

초록열매

2024 초록열매 성과확산 프로젝트 임팩트 연구

<종이팩 컬렉티브>, <농촌쓰레기 컬렉티브>를 중심으로



초록열매 성과확산 임팩트 평가보고서 Vol.2

2024 초록열매 성과확산 프로젝트 임팩트 연구

<종이팩 컬렉티브>, <농촌쓰레기 컬렉티브>를 중심으로



2025. 6

초록열매

초록열매 성과확산 프로젝트

숲과나눔·사랑의열매 <2024 초록열매 성과확산 프로젝트>는 종이팩 및 농촌쓰레기 자원순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회수모델 실험, 정책포럼 진행, 시민인식 개선 활동을 진행합니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삼삼은구, 비니루없는점빵, 경기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소비자기후행동, 지구를지키는소소한행동사회적협동조합이 함께 합니다.

본 보고서는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숲과나눔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자원순환과 임팩트의 확산 011

제1절	연구 목적 및 기대효과	012
	1. 연구의 배경과 주요 문제 인식	012
	2. 연구 목적과 필요성	015
	3. 주요 연구 내용	016
	4. 분석의 초점	016
제2절	연구 방법 및 구성	018
	1. 연구의 흐름과 수행	018
	2. 보고서 구성	021

제2장 임팩트의 확산으로 본 자원순환 관련 문헌 및 국내·외 사례 022

제1절	문헌 조사 결과	023
	1. 국내 주요 문헌	024
	2. 해외 주요 문헌	026
제2절	국내·외 사례 분석 결과	028
	1. 국내 주요 사례	028
	2. 해외 주요 사례	032
제3절	소결	035
	1. 국내 및 해외 연구 문헌의 종합 분석 요약	036
	2. 국내 및 해외 사례의 종합 분석 요약	037
	3. 시사점 도출 및 제언	038

제3장 면접조사 결과 분석 040

제1절	면접조사 개요	042
	1. 조사 설계	042
	2. 분석의 범위 및 방법	045
제2절	1차 면접조사 분석	049
	1. 종이팩 자원순환 대상	049
	2. 농촌쓰레기 자원순환 대상	055
	3. 지원조직 대상	059

제3절	이해관계자 면접조사 분석	062
	1. 종이팩 자원순환 대상 개방 코딩 분석	062
	2. 농촌쓰레기 자원순환 대상 개방 코딩 분석	067
제4절	2차 면접조사 분석	070
	1. 종이팩 자원순환 대상 변화의 양상	070
	2. 농촌쓰레기 자원순환 대상 변화의 양상	076
	3. 지원조직 대상 변화의 양상	080
제5절	소결: 내용 종합 요약	082
	1. 종이팩 자원순환 조직	082
	2. 농촌쓰레기 자원순환 조직	083
	3. 지원조직	084

제4장 결론: 연구 요약 및 종합 제언 085

제1절	연구의 진행 및 결과 요약	086
	1. 연구의 진행	086
	2. 면접조사의 내용	089
	3. 연구분석의 틀	090
	4. 문헌분석의 요약	090
	5. 연구결과의 요약	092
제2절	시사점 도출 및 제언	110
	1. 종이팩 자원순환 활동 부문	112
	2. 농촌쓰레기 자원순환 활동 부문	113
	3.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자원순환 활동 관련	115
	4. 기타: 외부 변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대안 필요	116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탐색	117
	1. 연구방법론의 측면	117
	2. 정책 포럼 등 학습 기반의 온라인 네트워크 강화	118

참고문헌 119

부록 121

표 목차

〈표1-1〉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에서의 임팩트 창출 요소	013
〈표1-2〉 주요 분석의 초점	017
〈표1-3〉 본 연구의 면접조사 개요	019
〈표1-4〉 연구의 흐름도	020
〈표1-5〉 보고서 구성	021
〈표2-1〉 문헌 조사의 범위	023
〈표2-2〉 순환경제 전략의 네 가지 루프 전략	033
〈표2-3〉 국가별 여건에 맞는 전략	035
〈표3-1〉 제3장의 구성과 흐름	041
〈표3-2〉 면접조사의 참여조직	043
〈표3-3〉 면접조사 질문지(예시)(지원조직 대상)	045
〈표3-4〉 사업수행단의 임팩트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주요 분석의 초점	048
〈표3-5〉 프로그램 전반부 종이팩 자원순환 조직	049
〈표3-6〉 사례1의 분석 항목과 개방 코딩 내용	050
〈표3-7〉 사례2의 분석 항목과 개방 코딩 내용	051
〈표3-8〉 사례3의 분석 항목과 개방 코딩 내용	052
〈표3-9〉 사례1, 사례2, 사례3의 커뮤니티 혁신의 조건·맥락과 함의 종합	053
〈표3-10〉 프로그램 전반부 농촌쓰레기 자원순환 조직	055
〈표3-11〉 사례4의 분석 항목과 개방 코딩 내용	055
〈표3-12〉 사례5의 분석 항목과 개방 코딩 내용	057
〈표3-13〉 사례4, 사례5의 커뮤니티 혁신의 조건·맥락과 함의 종합	058
〈표3-14〉 프로그램 전반기 사례6의 개방 코딩 분석	060
〈표3-15〉 프로그램 전반기 사례6의 집합적 임팩트(커뮤니티 혁신)에 대한 인식	061
〈표3-16〉 종이팩 자원순환 이해관계자 대상 면접조사 개방 코딩 분석	063
〈표3-17〉 농촌쓰레기 자원순환 이해관계자(지역주민) 대상 면접조사 개방 코딩 분석	067
〈표3-18〉 농촌쓰레기 자원순환 이해관계자(지자체 구성원) 대상 면접조사 개방 코딩 분석	069
〈표3-19〉 프로그램 후반부 종이팩 자원순환 조직	070
〈표3-20〉 사례7의 분석 항목별 변화의 양상	070
〈표3-21〉 사례8의 분석 항목별 변화의 양상	072
〈표3-22〉 사례9의 분석 항목별 변화의 양상	074
〈표3-23〉 사례7, 사례8, 사례9의 커뮤니티 혁신 변화의 종합	075
〈표3-24〉 프로그램 후반부 농촌쓰레기 자원순환 조직	076
〈표3-25〉 사례10의 분석 항목별 변화의 양상	077

표 목차

〈표3-26〉 사례11의 분석 항목별 변화의 양상	078
〈표3-27〉 사례10, 사례1의 커뮤니티 혁신 변화의 종합	080
〈표3-28〉 사례12의 변화의 양상 종합	080
〈표3-29〉 사례1, 사례2, 사례3 간의 주요 내용 비교 요약	082
〈표3-30〉 사례4 및 사례5 간의 주요 내용 비교 요약	083
〈표4-1〉 면접조사 참여조직	088
〈표4-2〉 면접조사 질문지 예시(지원조직 대상)	089
〈표4-3〉 사례1, 사례2, 사례3 간의 주요 내용 비교 요약	092
〈표4-4〉 사례4 및 사례5 간의 주요 내용 비교 요약	093
〈표4-5〉 프로그램 후반부 종이팩 자원순환 조직	095
〈표4-6〉 사례1의 분석 항목별 변화의 양상	095
〈표4-7〉 사례2의 분석 항목별 변화의 양상	097
〈표4-8〉 사례3의 분석 항목별 변화의 양상	099
〈표4-9〉 사례1, 사례2, 사례3의 커뮤니티 혁신 변화의 종합	100
〈표4-10〉 프로그램 후반부 농촌쓰레기 자원순환 조직	100
〈표4-11〉 사례4의 분석 항목별 변화의 양상	101
〈표4-12〉 사례5의 분석 항목별 변화의 양상	102
〈표4-13〉 사례4, 사례5의 커뮤니티 혁신 변화의 종합	104
〈표4-14〉 지원조직의 집합적 임팩트 수준의 변화의 양상 종합	105
〈표4-15〉 프로그램 참여조직의 생활 기반의 실천 사례	110
〈표4-16〉 프로그램 참여조직의 커뮤니티 조직화의 실천 사례	111
〈표4-17〉 프로그램 참여조직의 지역 확산 실천 사례	111
〈표4-18〉 프로그램 참여조직의 관계 회복 실천 사례	111
〈표4-19〉 사업참여단 구성원 대상의 갈등 조정 및 관리 교육의 필요성 제안	115

그림목차

〈그림1-1〉 연구의 배경과 주요 문제 인식의 도식화	015
〈그림2-1〉 2019년 제4차 유엔환경총회 장관선언문 일부 내용	029
〈그림2-2〉 서울새활용플라자	031
〈그림2-3〉 엘렌 맥아더 재단의 순환경제 사례 연구 프로젝트	032
〈그림2-4〉 영국 ‘Pentatonic’의 제품 트레이드백(trade-back) 프로그램 데모	034
〈그림2-5〉 제로웨이스트센터	039
〈그림3-1〉 면접조사 참여조직의 지리적 위치	044
〈그림3-2〉 QCA를 활용한 본 연구의 사례 분석의 흐름 및 경로 도출	047
〈그림4-1〉 초록열매 성과확산 프로젝트: 사업과 연구의 흐름 도식화	086
〈그림4-2〉 초록열매 성과확산 프로젝트 연구를 위한 분석의 틀	087
〈그림4-3〉 초록열매 성과확산 프로젝트의 집합적 임팩트 구성 요소	090
〈그림4-4〉 종이팩 자원순환 부문: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사례1의 임팩트 확산 요소의 변화	106
〈그림4-5〉 종이팩 자원순환 부문: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사례2의 임팩트 확산 요소의 변화	107
〈그림4-6〉 종이팩 자원순환 부문: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사례3의 임팩트 확산 요소의 변화	107
〈그림4-7〉 농촌쓰레기 자원순환 부문: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사례4의 임팩트 확산 요소의 변화	108
〈그림4-8〉 농촌쓰레기 자원순환 부문: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사례5의 임팩트 확산 요소의 변화	108
〈그림4-9〉 초록열매 성과확산 프로젝트의 커뮤니티 혁신을 위한 공통 요소	112
〈그림4-10〉 공익적 메시지 프레이밍에 따른 종이팩 재활용 의도에 관한 실험연구 모델	117

초록

오늘날의 사회문제는 기후위기, 자원 고갈, 지역 공동체 해체라는 복합적 특성을 띠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접근 방안 중 하나로 순환경제가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에서 빠지지 않는 연구 주제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을 안고 시민들이 직접 실천하는 순환경제의 작은 실험을 따라가 보았다. 실험은 숲과나눔의 <2024 초록열매 성과확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종이팩’과 ‘농촌쓰레기’라는 두 주제를 다루는 자원순환 활동이 순환경제의 실천 행위로서 어떻게 사회적 임팩트로 창출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본 연구는 최신 기반의 문헌과 국내·외 사례 분석을 수행하여, 오늘날 시민 주도의 자원순환 활동이 순환경제의 지도 안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가늠하고자 하였다. 또한 시민 주도의 자원순환 활동이 단지 환경을 위한 실천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지역 거버넌스의 재구성 and 제도화의 수렴 과정으로 이어지는지를 따라가 보았다. 이를 위해 QCA(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QCA 분석 중에는 동일한 참여자를 두 차례 인터뷰함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임팩트 확산의 다양한 조건들과 그 결합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다양한 측면에서의 정책적 함의도 제시할 수 있었다. 이를테면, 종이팩 자원순환과 농촌쓰레기 자원순환의 실험장에서, 차츰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지역주민의 일상 속 실천 인식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쓰레기 수거 자체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농촌 지역에서는 시민이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이 수용하고자 하는, 이른바 ‘상향식 혁신’(bottom-up innovation)을 포착할 수도 있었다.

이외에도 자원순환 활동의 효과가 시민들의 단발적 행동 변화에 그치지 않고 지역 네트워크와 연계되어 나타났다는 점도 의미있는 발견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숲과나눔의 <초록열매 성과확산 프로젝트>가 시민사회의 제도적 실험장으로 거듭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시민 활동가의 실천이 지역 리더십을 형성하고 지자체와의 협치를 통해 제도로 이어지는 과정들이 종종 포착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시민 활동가는 <초록열매 성과확산 프로젝트>와 함께 활동을 지속하면서 ‘좋은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우리 지역을 바꾸는 주체’로서의 화두에 대해서 고민의 끈을 놓지 않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몇 가지 중요한 의의와 시사점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임팩트의 창출(확산)을 단일 요인의 함수로 보지 않고, 다양한 조건의 조합과 상호작용이라는 복합성의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소규모의 실천들이 어떻게 제도화로 나아가는지를 제시하였다. 이는 오늘날 순환경제의 실현에 있어 시민 주도의 미시 실천이 지역 거버넌스와 접속하면서 어떻게 지속가능한 정책적 전환 가능성을 갖는지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사업수행단의 구성과 연구의 면접조사에 도움을 주신 분들은 다양하다는 점을 소개하고 싶다. 사업수행단에는 종이팩 자원순환 부문의 지구를지키는소소한행동, 소비자기후행동, 경기환경연합, 전북환경연합, 농촌쓰레기 자원순환 부문의 삼삼은구, 비니루없는점빵,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지자체 공무원 등이 있었다. 지원조직인 숲과나눔과 기후변화행동연구소도 시민 모두가 순환경제에 참여하는 기획·실행·확산까지의 전 과정에 함께해 주었다.

이러한 모든 분들의 노력 덕분에 숲과나눔의 <초록열매 성과확산 프로젝트>가 공공 정책의 설계에 있어 매우 소중한 실천적 실험장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그리고 자원순환 활동이 커뮤니티 혁신으로 변모해 가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이로써 시민 주도의 제도 혁신 모델이 비단 순환경제에 국한하지 않고 향후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도 의미있는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제1장

서론: 자원순환과 임팩트의 확산

제1절 연구목적 및 기대효과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1

서론: 자원순환과 임팩트의 확산

제1절 연구 목적 및 기대효과

1. 연구의 배경과 주요 문제 인식

□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기반의 사회 혁신 활동에 대한 지속 요소의 검토

○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들은 숲과나눔과 사랑의 열매가 3년에 걸쳐 진행하는 중장기 사업 <초록열매 성과확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오늘날 순환경제사회(Circular Economy Society)에서의 시민사회 주도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성장의 마중물임. → 자원순환율이 떨어지는 특정 자원(예: 종이팩, 농촌쓰레기)에 주목함으로써 자원순환 생활양식을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 2023년 1차년도 <종이팩 컬렉티브> 프로그램은 종이팩 자원순환 정책 제안 도출을 목표로 하여 사업수행 단체들의 수행 과정이 효율적·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는 평가 지표를 제안하고 측정하는 데 일차적 목적이 있었음.

- 이를 위해 협력체계(협력적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사업 내·외부적으로 필요한 다각적 운영 요소들을 검토하였으며,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행위자의 사회적 조정 양식을 구체적으로 포착할 수 있었음.

- 2024년 2차년도부터는 <종이팩 컬렉티브>에 이어 농촌쓰레기 문제 해결을 다루는 <농촌쓰레기 컬렉티브> 프로그램까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주제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거버넌스 커뮤니케이션의 지속요인이 새롭게 구성되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이는 보다 광범위한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기반의 사회 혁신 활동의 지속 요소를 도출하고, 중심 요소 및 주변 요소를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함.

□ 임팩트 확산으로서의 자원순환 시민 활동: 네트워크 확장과 제도적 수렴 과정의 확인

○ 개별 프로그램이나 정책, 조직적 실천이 기존의 사업 성과를 뛰어넘어 보다 많은 외부 대상과의 교류를 통해 시스템(제도) 및 지역사회로의 긍정적 변화로 이어지는지를 자원순환의 주제(종이팩, 농촌쓰레기)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2023년 1차년도 성과 평가 연구의 경우, 임팩트 창출의 주요 요소(<표1-1>)를 확인하기 위해 협력적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식별 및 인식을 구조화하였으며, 사업참여자들이 이해관계자에 대해 명확하게 식별할수록 효과적인 사업 커뮤니케이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Freeman, Harrison, Wicks, Parmar, & De Colle, 2010).

- 또한 이해관계자 간 협력 활성화 인식(공동의 사업 목표 달성에 맞춰 공동 비전을 향해 노력해 나간다는 효능감) 역시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이라는 임팩트 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Ansell & Gash, 2003).

- 이번 2024년 2차년도에서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임팩트 확산으로서의 자원순환 시민 활동이 어떠한 양상의 지식·실천·가치를 확산시키며 보다 넓은 네트워크와 제도적 틀로 수렴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Seyfang & Smith, 2007).

<표 1-1>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에서의 임팩트 창출 요소(2023년도 숲과나눔 연구결과보고서)

No.	핵심 지표	하위 지표
1	소속 조직의 지원·지지수준	-
2	이해관계자 간 협력 활성화 인식	-
3	상호역할과 책임의 명확성 인식	-
4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	(내가 사는) 지역사회의 주민 욕구 충족 정도 주민의 지역문제 해결 자발성 (내가 사는) 지역사회의 주민 삶을 위한 노력 정도 이웃의 고통 공감 정도 이웃의 기쁨 공감 정도 (내가 사는)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소속감 주민 노력에 따른 지역사회 발전의 실현 기대 (내가 사는) 지역사회와의 연결감 사회적 고립의 위험 정도
5	사회혁신가 지향성	사회적 가치 창출의 중요성 인식 정도 의사결정시 타인의 이익 고려 정도 문제 해결의 창의성 미래 문제(변화)의 선제적 예상 사업프로젝트 선제적 기획 사업프로젝트 주도적 자발성 낯선 영역에의 도전(행동력) 높은 수익성예의 시간 및 비용 투자

No.	핵심 지표	하위 지표
6	정치적 효능감	정치 참여도 인식
		주도적 투표 정도
		정치인 기대감 인식
		투표의 중요성(영향력) 인식
		나의 정치적인 일 영향력
		당선자에 대한 관심
		정치인에 대한 신뢰
		정치인에 대한 불신
		선거 후 정치인에 대한 위상 변화 인식
7	일에 대한 소명의식	자아실현에 대한 내 일의 가치와 의미
		내 일의 중요도와 영향력
		내 일의 사회적 기여도 인식
8	조망수용 역량	기존에 관점에서 벗어나 독창적 아이디어 창출 정도
		타인의 관점과 입장에서 경청하여 타인이 이해하는 표현을 구사하는 정도
9	자원순환(환경문제) 관련 일(직업) 정체성 탐색	자원순환(환경문제)관련 직업(진로) 도움 정도
		공동과업 협력 업무 조율 및 수행을 위한 도움 정도
		사업 활동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구상 도움 정도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의사결정 도움 정도
		자원순환(환경문제) 관련 나의 의견 표명(설명) 도움 정도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실천 도움 정도
		자원순환(환경문제) 관련 기관에의 신뢰 생성 정도
10	공공기관의 참여적인 태도와 전문성	사회변화를 위한 정책활동 도움 정도
		공공기관의 반응성
		공공기관의 전문성(역량)
		공공기관의 적극적 참여도
		공공기관과 시민단체 간 합의의 신속성
		상호 이해관계자에 대한 동반자 인식
		공공기관과의 충분한 의사소통 정도

<그림 1-1> 연구의 배경과 주요 문제 인식의 도식화

임팩트 : 커뮤니티 혁신을 통한 순환 경제 발전

<종이팩 컬렉티브> 프로그램 시작

<종이팩 컬렉티브>, <농촌쓰레기 컬렉티브> 프로그램 확대

2023(1차년도)	2024(2차년도)
임팩트 창출 요소 확인 · 주요 관점: 협력적 거버넌스, 커뮤니티 협력 이론 · 사회성장 마중물로서의 지원 조직(숏과나눔)의 역할과 기여 확인 · 이해관계자 식별 및 상호 인식의 구조화 · 협력 활성화에 미치는 주요 요소 규명	임팩트 확산 요소 확인 · 주요 관점: 사회적 규범 확산 이론, 지역간 스퍼illover(spillover) 효과 · 네트워크 확장과 제도적 수렴 과정의 확인 · 지역의 실험장 활성화에 미치는 주요 요소 확인

2. 연구 목적과 필요성

□ 프로그램 성과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도출 및 사업 효과성 확인

○ 2023년 1차년도 연구에서는 종이팩 자원순환 협력 체계를 촉진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프로그램의 운영 체계(operational system)를 시민 주도의 협력적 거버넌스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살펴보았음.

- 이를 위해 새로운 공공 가치를 만들어 내기 위한 출발 조건, 협력 과정, 제도적 설계 등의 다양한 지표를 탐색하였으며, 이러한 지표들이 프로그램 성과에 이르는 과정에서 얼마나 주요한 역할을 하며 차이를 만들어 냈는지를 양적 접근을 통해 검증한 바 있음.

○ 2024년 2차년도에서는 1차년도 연구 결과물을 바탕으로 <종이팩 컬렉티브>와 <농촌쓰레기 컬렉티브> 프로그램의 성과를 제도화(정책화) 기반의 임팩트 확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며, 수거 모델의 확립(정책)에 이르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유형과 경로를 질적 비교 사례 연구방법론(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QCA)으로 분석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사업 효과성을 확인하고자 함.

- 질적 비교 사례연구(QCA)는 복수의 사례들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각 사례의 한정된 범주(경계)를 구분하고 이 사례들 간 존재하는 연계성의 특성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분석 과정임(Yin, 2003).
- 구체적으로 QCA는 종이팩 자원순환 시민 활동과 농촌쓰레기 자원순환 시민활동의 발전에 기여하는 복합적 요소들을 비교 분석하는 데 적합한 방법론이 되면서 발전 경로의 윤곽을 도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프로그램 발전을 위한 운영(관리) 측면에서의 개선점 및 발전 방향성 탐색

○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자원순환이라는 광범위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지원조직들과 2개의 주제(종이팩, 농촌쓰레기)로 움직이는 참여조직들과의 상호작용을 포착하는 것으로, 사업 성과(수거 모델 확립)의 도출 과정에서 사회혁신으로 거듭나는 시행착오 학습(trial-and-error learning)의 조건과 맥락을 면밀히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한정된 시간과 자원 내에서 서로 다른 주제의 제도 확립을 위해, 지원조직은 어떻게 참여조직 구성원들의 시행착오 경험을 보다 창의적이고 고무적인 제도 혁신의 과정으로 유인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지원조직의 보다 나은 프로그램 운영(관리)을 위한 방향성을 제언할 수 있을 것임.

3. 주요 연구 내용

□ 임팩트 확산으로서의 종이팩·농촌쓰레기 자원순환 관련 국내외 사례 현황 조사

○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임팩트 창출로서의 종이팩·농촌 쓰레기 자원순환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및 문헌을 바탕으로 동 연구와 관련된 배경을 탐색하고 분석함.
- 국내·외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여 향후 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프로그램 참여자와 주요 관계자의 인식 탐색

○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24 초록열매 성과확산 프로젝트>의 <종이팩 컬렉티브>, <농촌쓰레기 컬렉티브> 관련 주요 관계자(지원조직 및 참여조직 구성원, 마을관리자, 시민 활동가,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사업 효과성(현행 프로그램의 개선 방향 등을 포함)을 살펴보기 위한 심층 면접을 프로그램 초반 및 후반에 걸쳐 두 차례 실시, 그 결과를 분석함.
- 프로그램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경험과 의견을 수집함으로써 프로그램이 실제로 어떻게 운용되고 있으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임.
-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수집된 면접조사의 결과는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니즈(needs)를 명확히 포착하는 데 활용됨으로써, 이들의 관점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4. 분석의 초점

○ 본 연구에서는 상기 연구의 배경과 주요 문제 인식,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주요 연구의 내용을 기초로 <표1-2>와 같은 사항을 중점적인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음.

- 2023년 1차년도 사업과 2024년 2차년도 사업을 통틀어서 분석한 결과,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임팩트의 개념으로 '커뮤니티 혁신을 통한 순환경제 발전'으로 정의 내릴 수 있었으며, 이번에는 임팩트 확산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음.
- 이를 위해 본 연구의 주요 이론적 렌즈(사회적 규범 확산, 지역 간 스펠오버)에 따라 다양한 조건의 조합이 어떻게 성공적인 자원순환 활동에 기여하는 시민성(citizenship)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함. 특히 주제(종이팩, 농촌쓰레기)에 따라 조건의 조합에 따른 발전 경로의 부문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함.
- 커뮤니티 혁신은 공동체가 혁신적인 활동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을 의미함. 커뮤니티 혁신은 기술적 측면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요소를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특성을 가짐(Moulaert, Martinelli, Swyngedouw, & Gonzalez, 2005).
- 또한 커뮤니티 혁신은 소외된 공동체가 집단적 웰빙(well-being)을 향해 사회적, 생태적 환경을 변화시키는 협력적 과정으로 정의되기도 함(Reina-Rozo, 2019). 이러한 혁신은 시장 중심의 전통적인 혁신 프레임워크의 한계를 넘어, 공동체가 스스로 사회적 전환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함(Reina-Rozo, 2019).

<표 1-2> 주요 분석의 초점

범주	분석 항목	분석 내용
조건 상황	시민 주도의 캠페인	주민 대상 분리배출, 자원순환 교육 강도(예: 개인 간, 조직 간 교류, 포럼 참여 등)
	정부/정책 지원의 강도	지자체, 중앙정부 등의 제도적 지원, 지원조직의 프로그램 신뢰도
	공동체 조직화 수준	마을 조직, 주민 리더십의 정도
	네트워크의 확장성	프로그램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는 정도(예: 일자리 창출, 마을돌봄 등)
	제도적 실험장의 존재	마을 단위 및 규모의 경계
	파급효과의 정도	종이팩 분리배출/농촌쓰레기 분리배출 이후 2차 행동의 확장 여부
	사회적 규범 활성화	참여의 규모, 사업참여 외부인의 관찰 가능성, 주변의 모방 행위 여부
결과 상황	임팩트 확산 성과	시민 활동 재참여, 재활용 범위 확대, 참여지역 확대

제2절 연구 방법 및 구성

1. 연구의 흐름과 수행

- 본 연구는 선행연구 및 자료 조사, 프로그램 관계자 대상의 면접조사 실시 순으로 진행되었음(〈표1-3〉 참조).
- 임팩트 창출로서의 종이팩·농촌쓰레기의 현안과 관련하여 국내·외 중심으로 학술 자료, 토론회, 각급 기관의 연구결과 등을 수집하고, 기타 참고 가능한 관련 자료(예: 커리큘럼, 활동 자료) 등을 QCA에 입각하여 분석 및 비교함.
 - 면접조사는 온라인·오프라인 기반의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면접 질문지는 면접 참여자의 특성과 참여 시기(프로그램 초반부, 후반부)에 따라 달리 구성되었으며, 면접조사 4~5일 전에 미리 배포하여 보다 타당성 있는 면접조사 결과를 수집하려고 하였음.
 - 면접조사의 경우, 1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할 시에는 심층 면접(IDI, In-Depth-Interview), 2명 이상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할 시에는 FGI(Focus Group Interview)로 진행함. 심층 면접과 FGI의 진행 방식은 숲과나눔의 정책포럼이 개최될 시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으로 실시함.
- 프로그램 주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는 총 2회차에 걸쳐 인터뷰가 이루어졌으며, 1회차 인터뷰는 프로그램 전반기(2024.10~2025.1)를, 2회차 인터뷰는 프로그램 후반기(2024.2~4)를 주요 시점으로 하여 인터뷰를 실시함. 인터뷰 질문은 1회 때와 2회 때 동일한 질문이 일부 포함되었음.
- 본 연구는 동일한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시간차를 두고 동일한 질문을 수행하는 종단적 질적 연구(longitudinal qualitative study) 및 반복적 심층 연구(repeated in-depth interview)로서 참여자의 기억 소실로 인한 보호 편향(bias)을 줄이고 인과성에 대한 탐색적 보완 장치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타당성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였음.
 - 또한 프로그램 사업 성과와 프로그램 발전을 바탕으로 자원순환 관점에서의 사회적 임팩트 창출에 보다 타당하고 실효성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참여자의 프로그램 전-후의 인식 변화 및 공통 요소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는 보다 타당한 질적 연구로서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접근을 취하고자 하였음. 특히, 4가지 차원에서 본 연구의 타당성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구성적 타당성의 확보: 사례¹⁾에 대한 이론적 구성 요소들을 관련 선행연구와 이론으로 탐색하여 면접 조사가 탐색적 측정 도구로서 보다 많은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시도함.

1) 질적 연구에서는 ‘표본’ 대신에 ‘사례’로 쓰고 있음.

〈표 1-3〉 본 연구의 면접조사 개요

범주	프로그램 초반부 (2024년 10월~2025년 1월)	프로그램 중반부 (2025년 3월)	프로그램 후반부 (2025년 2월~2025년 4월)
대상자	· (지원조직) 숲과나눔,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종이팩 컬렉티브) 소비자기후행동, 지구를지키는소소한행동, 전북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 (농촌쓰레기 컬렉티브) 삼삼은구, 비니루없는점빵	· (종이팩 컬렉티브) 지역주민, 지자체 공무원 · (농촌쓰레기 컬렉티브) 지역주민, 지자체 공무원	· (지원조직) 숲과나눔,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종이팩 컬렉티브) 소비자기후행동, 지구를지키는소소한행동, 전북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 (농촌쓰레기 컬렉티브) 삼삼은구, 비니루없는점빵
면접 시기	2025년 2월	2025년 3월	2024년 5월
주요 내용	· 문제 인식과 임팩트 정의 · 참여 동기 및 이해관계자 상호작용 · 프로그램 지원 노력 및 도전 과제, 선제적 준비사항 · 지원조직과의 상호작용	· 수거 모델의 확립(확산)과 관련,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확인되는 이해관계자의 기여 요인 도출 · 협력적 거버넌스에 기반한 임팩트 확산의 양상의 확인	· 문제 인식과 임팩트 정의 · 참여 동기 및 이해관계자 상호작용 · 프로그램 지원 노력 및 도전 과제, 선제적 준비사항 · 지원조직과의 상호작용

〈표 1-4〉 연구의 흐름도

일정	연구 내용	세부 내용	연구방법
2025.1~ 2025.5	문헌 조사 및 분석	[국내] □ 타 사례 검토 및 선행연구(관련 보고서) 분석 [해외] □ 자원순환 수거모델 사회 혁신(확산)을 위한 사 례 조사 및 분석	□ 문헌연구 □ 현황 및 자료조사
2025.2~ 5월 초순	면접조사/현장연구	□ 온오프라인, 심층면접(FGI) 실시 □ 농촌쓰레기 정책포럼 #1(3월) □ 농촌쓰레기 정책포럼 #2(4월)	□ IDI/FGI
2025.3 ~5	면접조사/현장연구, 면접조사 분석	□ 종이팩 정책포럼 #10(2월) □ 종이팩 정책포럼 #11(5월)	□ QCA
2025.5 ~6	면접조사 분석	□ 문헌 분석 및 면접조사 결과 분석 종합	□ QCA
2025.6	연구결과 공유	□ 피드백 수렴 및 최종안 논의	-
↓			
최종보고서 제출(2025.6.)			

2. 보고서 구성

○ 본 보고서는 〈표1-5〉와 같이 1장의 서론: 자원순환과 임팩트의 확산, 2장의 임팩트의 확산으로 본 자원
순환 관련 문헌 및 국내외 사례, 3장의 면접조사 결과 분석, 4장의 결론: 종합제언 부분으로 구성되었음.

〈표 1-5〉 보고서 구성

연구 구성	주요 내용	연구방법
1장 서론: 자원순환과 임팩트의 확산	· 연구의 배경 및 주요 문제 인식 · 연구 목적 및 기대효과 · 연구 수행 방법과 흐름 · 보고서의 구성	문헌조사
↓		
2장 임팩트의 확산으로 본 자원 순환 관련 문헌 및 국내외 사례	· 종이팩 및 농촌쓰레기 자원순환 국내 및 해외 문헌 조사 · 국내·외 사례 분석	문헌조사 현장연구
↓		
3장 면접조사 결과 분석	· 면접조사 설계 및 내용 검토 · 1차·2차 면접조사 결과 분석	면접조사 현장연구 QCA
↓		
4장 결론: 종합 제언	· 연구결과 도출 및 요약 ·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탐색 · 시사점 및 종합 제언	-

제2장

임팩트의 확산으로 본 자원순환 관련 문헌 및 국내·외 사례

제1절	문헌 조사 결과
제2절	국내·외 사례 분석 결과
제3절	소결

2

임팩트의 확산으로 본 자원순환 관련 문헌 및 국내·외 사례

제1절 문헌 조사 결과

- 문헌 조사는 학술논문과 국내·외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최대한 임팩트 확산의 관점에서 자원순환 활동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또한 문헌조사 결과를 면접조사의 주요 참고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정의하고 이에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자 함.
- 문헌 조사의 범위는 <표2-1>과 같이, 2020년 이후 이루어진 국내·외 학술논문과 사례를 다루는 것으로 한정하였으며, 본 장의 결론에서는 문헌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숲과나눔의 <초록열매 성과확산 프로젝트>와 비교하여 공통점 및 차이의 공백을 도출하고자 함.
 - 가능한 한 선행연구 및 기존의 사례에서 숲과나눔의 자원순환 주제인 종이팩과 농촌쓰레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동일 주제에 한정해서 보게 될 경우 그 사례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측면이 있어 본 연구에 참고할 만한 사례들이라면 분석의 범주에 포함하였음.

<표 2-1> 문헌 조사의 범위

문헌 조사 구분		
학술논문		국내·외 사례: 국내·외 보고서 및 홈페이지
KCI ²⁾	SSCI ³⁾	

2)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3) 사회과학인용색인(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1. 국내 주요 문헌

(1) AI를 활용한 생활 폐기물 순환자원 관리체계(2020)

- 본 연구는 인공지능과 IoT를 기반으로 제주도의 효율적인 생활 폐기물 처리와 관리 방안을 제안하였음.
 - 제주도는 생활폐기물 종량제 시행 이후 2018년을 기점으로 상주인구 60만과 관광객 1,400만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0년 생활폐기물 처리 능력이 만기상태에 도달,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가운데 관련 기존 제도의 한계(예: 불법투기 감시 CCTV, 740여명의 현장지킴이)를 뛰어넘는 사회적 해결 방법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상주 인구나 사계절 관광객의 변화를 통하여 폐기물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사례를 제시하였음.
 - CCTV 영상 정보에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불법 투기된 생활폐기물 정보와 관련 의사결정을 수거 차량에 GPS 정보로 전송함으로써, 원활한 폐기물 처리 및 관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2)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스마트 패키지 디자인의 지속가능성 분석과 활용(2020)

- 본 연구는 패키지디자인이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수명주기의 전 과정에서, 순환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스마트 패키지 디자인의 지속가능한 기술과 활용 전략을 제안하였음.
 -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개념과 동향 분석을 통해 키워드를 도출하고, 각 키워드에 필요한 사례를 분석하였음. 사례 분석은 2015년 EU의 순환경제 정책 발표 이후부터 최근 5년간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각 나라에서 실행하고 있는 스마트 패키지 디자인의 사례를 수집하여 기술과 전략을 분석하였음.
 - 연구결과 순환경제의 수명주기에서 요구되는 스마트 패키지 디자인의 전략 키워드는 총 7가지로 도출되었으며, 각 단계별 전략으로 환경영향을 저감시키는 친환경 소재 사용, 불필요한 산업 공정을 줄이는 최소화, 최적화된 에코디자인, 제품과 패키지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스마트 기술 도입,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모니터링 시스템, 물리적 객체를 디지털화하여 폐기물 자체의 발생을 제거하는 비물질화 기술, 제로웨이트를 위해 기업과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녹색소비, 자원의 순환을 위한 폐기물 원료 회수를 들었음.

(3) 토픽모델링 분석을 활용한 국내 자원순환 연구동향 분석(2022)

- 본 연구는 2003년~2021년에 수행된 국내 연구 207개의 자원순환 논문을 대상으로 '자원순환'과 '순환경제'를 주제로 하여 토픽모델링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동향을 정리하였음.
 - 토픽모델링 분석을 통해 도출된 우리나라의 자원순환 관련 주요 토픽은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친환경 디자인 및 시스템', '폐전자제품 및 플라스틱 관리', '순환경제 및 지역사회 활성화', '자원순환 관련 환경 법률', '순환자원을 활용한 콘크리트', '물질흐름 분석 및 관리 시스템' 등 7가지 주제이었음.
 - 주요 이슈인 에너지·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자원순환 관련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자원순환과 관련된 환경 법률에 대한 연구 및 순환경제와 지역 활성화 관련 연구도 다수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자원순환 정책 및 법률 등에 관한 정책적인 연구는 60건으로 비교적 많이 수행되고 있으며, '콘크리트', '폐전자제품 및 플라스틱 관리' 등 특정 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대한 공학적인 연구는 25건으로 많이 수행되고 있었음. 또한, '물질흐름 분석 및 전과정평가' 등 자원순환 관련 연구방법론을 활용한 연구도 19건으로 학제를 막론하고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참고로 본 연구가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는 임팩트 확산으로서의 시민 주도 기반의 자원순환 활동(종이팩, 농촌쓰레기)에 대한 연구는 아직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재차 확인할 수 있었음.

(4) 우리나라 자원순환 정책수단 유형의 특징 및 변화(2023)

- 본 연구는 정책수단 유형분류의 관점에서 국내 자원순환 정책의 특징과 변화를 분석하였음. 구체적으로 자원순환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책수단들을 분류하고 생산-소비-관리-재생의 자원순환 단계별로 특징과 변화를 분석하였음.
 - 분석 결과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1-2015)'에서는 정책수단의 반 이상이 재생 단계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에서는 생산과 소비 단계의 정책수단들이 대폭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정책수단의 유형별로는 두 계획 모두 정보·설득 정책수단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규제 정책수단이 가장 적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본 연구에서는 향후 생산 및 소비 단계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 활용이 필요하고, 좀 더 직접적으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수단 활용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음.

(5) 자원순환정책의 수용성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제주도와 세종시의 일회용컵보증금제도를 중심으로 (2025)

- 본 연구는 일회용컵보증금제도의 정책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종 시민 150명, 제주도민 350명을 표본으로 하여 총 500명을 연구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을 적용하여 정책내용요인, 정책수단 요인, 정책대상자 요인은 정책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하였음.
 - 반면, 정책집행자 요인은 정책수용성과 부(-)의 인과관계를 보여주었음. 또한 독립검정을 통해 세종시민과 제주도민의 집단 간 인식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제주도민이 세종시민에 비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정책집행자 요인에 대해서만 제주도민의 긍정적 인식이 낮게 나타났음을 규명하였음.

2. 해외 주요 문헌

(1) 순환경제의 사회적 측면을 다루기: 체계적 문헌 검토(Addressing the Social Aspects of a Circular Economy: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2020)

○ 본 연구는 순환경제 관련 문헌 60편을 분석하여, 순환경제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이론과 프레임워크를 통해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였음.

- 방법론적으로는 체계적 문헌고찰(SLR)과 해석학적 접근(hermeneutic approach)을 결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 결과 사회적 영향 평가에 사용되는 이론과 프레임워크가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일부 연구는 사회적 생애주기평가(S-LCA)⁴⁾를 사용하였지만, 대부분은 명확한 이론 없이 진행되었음.
- 이에 본 연구는 지식 지도(knowledge map)를 통해 순환경제와 사회적 지속가능성 간의 관계를 시각화한 연구 동향 및 학문적 공백을 파악하였으며, 순환경제 담론에서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사회적 영향 평가를 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수 있는 이론적·실천적 기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아울러 본 연구는 순환경제가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달성하려면 사회적 가치(공정성, 사회복지, 시민참여 등)의 측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공학, 사회학, 경영학 등 다양한 분야 간의 융합적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하였음.

(2) 순환경제의 사회적 영향: 인식론적 입장과 방법론적 관행 살피보기(The social impacts of circular economy: disclosing epistemological stances and methodological practices, 2024)

○ 본 연구는 순환 시스템의 사회적 지속가능성 평가를 다룬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새로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구체적으로 순환경제가 사회적 지속가능성, 즉 삶의 질, 복지, 사회적 형평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메타분석을 수행함.

- 이를 위해 체계적 검토와 메타 분석을 위한 'PRISMA' 프로세스⁵⁾ 기반의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최종 검토된 42개의 연구들 중 83,3%는 해석주의(interpretivism) 패러다임에 기반을 두고 있고, 7편만이 포스트 실증주의(post-positivism) 관점을 따른 것으로 나타남. 결론적으로 순환경제 연구에서 표준화된 사회적 영향 평가 지수와 정량화 방법에 대한 합의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을 규명하였음.
- 구체적으로 사회적 영향 평가에 사용되는 지표나 범주가 일관되지 않으며, 연구자 개인의 해석이나 관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비교 가능성과 객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4) 제품이나 서비스의 전 과정(원료 채취부터 폐기까지)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론으로 환경적 측면만을 평가하는 LCA(Life Cycle Assessment)와 달리, 노동 환경, 인권, 지역사회 영향 등 사회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5) PRISMA(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는 체계적 문헌 고찰 및 메타 분석의 보고 지침

- 따라서 향후에는 순환경제의 사회적 영향 평가를 위해서 다양한 지식론적 관점을 인정하고 통합하는 접근이 필요하며, 정성적 방법론의 적용의 경우에도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한 기준 마련이 중요함을 제시하였음.
- 한편 본 연구는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사회적 영향 지표, 평가 범주, 데이터 수집 방식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으며, 정성적 해석 기반 한 다양한 관점의 통합 사용의 측면에서 참고할만한 사례들이 다수 제시되고 있음.

(3) 인간 환경 시스템에서 자원 피드백과 소셜 네트워크 역학의 공진화 모델링(Modelling co-evolution of resource feedback and social network dynamics in human-environmental systems, 2024)

○ 본 연구는 인간의 자원 소비 행동과 사회적 상호작용이 어떻게 교류하며, 이러한 양상이 공공재(common pool resources)의 지속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였음.

- 이를 위해 에이전트 기반 모델(agent-based model)과 네트워크 이론을 결합하여, 자원 상태에 따라 소비를 조절하는 개인들이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시뮬레이션하여 보여주었음.
- 연구 결과 이른바 지식 피드백(knowledge feedback) 효과에 의해 자원의 상태에 대한 정보가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개인은 자원에 대한 정보만으로도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점을 보여주었음.
- 한편 인간의 사회적 연결은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촉진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양면성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네트워크의 연결성(connectivity)과 이질성(heterogeneity)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규명됨.
- 본 연구는 자원 동역학과 사회적 네트워크의 상호작용을 동시에 고려한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인간-환경 시스템의 공진화 모델을 도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사회적 연결망(네트워크망)의 구조가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 결론적으로 자원에 대한 정보 제공 이외에도 사회적 연결망의 설계와 효과적인 개입이 자원 관리의 전략적 핵심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음.

(4) 자원 가용성과 적합성 효과가 공유자원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Impact of resource availability and conformity effect on sustainability of common-pool resources, 2024)

○ 본 연구는 인간-환경 시스템에서 자원 상태와 사회적 동조가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공유자원의 지속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였음.

- 연구 결과 자원이 풍부할수록 개인은 협력보다는 이기적 소비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자원 고갈로 이어질 수 있음을 제시하였으며, 자원 상태에 대한 사회적 동조는 협력을 촉진할 수도 있지만, 비협력적 행동이 다수일 경우 오히려 자원 고갈을 가속화 할 수 있음을 복잡계 이론과 게임이론, 네트워크 측면에서 제시하였음.

- 본 연구는 공유자원 문제를 대할 때 사회적 영향력과 자원 상태 간의 복잡한 피드백 고리를 정량적으로 설명하였고,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를 위한 정교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음.

제2절 국내·외 사례 분석 결과

1. 국내 주요 사례

(1)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확산과 한국의 과제(KIEP 연구보고서, 2021)

- 포스트코로나 시대 이후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추진 노력을 분석하고, 폐기물 관리 측면에서의 주요 쟁점과 국제협력에서의 대응 사례, 그리고 순환경제 인증제도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음.
- 이를 통해 한국의 활성화에 일조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순환경제 전반에 걸쳐 제품의 전 주기를 고려한 정책을 강화하고, 국제무역 관점의 순환경제 논의에 주도적 참여를 제안하였음.
- 또한 EU 및 신남방국가와 순환경제 대응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민간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재활용률뿐만 아니라 자원효율성(제한된 자원을 사용하여 최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을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이행 점검 및 모니터링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음.
- 특히, 상기 사항의 임팩트를 강화하고자 데이터 기반의 이행 점검 및 모니터링을 적극 제안하였음. 구체적으로는 신뢰할 만한 정확한 기준에 따라 축적된 데이터와 이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난 2019년 제4차 유엔환경총회(UNEA)(환경과 관련된 사안을 다루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사결정 기구로, 193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음)에서 채택된 장관선언문(환경문제와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혁신적인 해결방안, Ministerial declaration of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Assembly at its fourth session: Innovative solutions for environmental challenges and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에서의 증거기반 의사결정을 위해서라도 해외 수준과 호환 가능한 데이터 구축을 해야 함을 제안하였음.
- 이는 본 연구의 임팩트로 삼고 있는 커뮤니티 혁신을 통한 순환경제 발전을 위해, 종이팩과 농촌쓰레기 부문에서의 비교가능한 환경데이터(environmental data)의 구축 및 관리 능력에 대한 시사점을 연계 지어 생각해 보는 데 참고 가능할 것임.
-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자원순환마루에서 다양한 환경통계정보(재활용가능자원 가격조사, 영농폐기물 조사 등)를 공개하고 있으나, 폐기물 처리 방식이나 재활용률 산정 기준이 국가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어 국제 수준에서의 비교가능한 데이터 정렬이 부족한 상황임을 연구보고서에서는 보고하고 있음.

<그림 2-1> 2019년 제4차 유엔환경총회 장관선언문의 일부 내용

Draft Ministerial Declaration of the 2019 UN Environment Assembly “Innovative solutions for environmental challenges and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Vision: Sustainable, prosperous and inclusive societies that address key environmental challenges with innovative solutions and rely on responsible patterns of consumption and production

As ministers of the environment of the world, we recognise that poverty eradication, changing unsustainable and promoting responsible patterns of consumption and production and protecting and managing the natural resource base of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are the overarching objectives of and essential requirement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e acknowledge that the availability of transparent, reliable, comparable and accessible environmental data is vital for decision making.

We highlight the importance of creating synergies between sustainable and efficient uses of resources, maintaining and restoring healthy ecosystems, and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mitigation in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자원순환 정책분석 연구(한국환경연구원, 2021)

- COVID-19로 인한 온라인 쇼핑 및 음식 배달과 같은 소비 패턴의 변화에 따른 국내 재활용 쓰레기 발생 변화를 조사하였음. 또한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한국의 정부 대책을 분석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자원순환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음.
- 팬데믹이 기존 자원순환 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그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일회용 포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을 제안하였음. 또한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사용 용기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중장기 정책도 지속가능하게 추진되어야 함을 피력함.
- 본 연구의 경우 특별히 임팩트의 확산에 대하여 중점적인 과제 및 대안을 논의하지는 않고 있으나, 팬데믹과 같은 글로벌 수준의 사회적 위기 이후 자원순환 개선 정책이 어떠한 변화의 양상을 반영하여 연구되었는지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포함하였음.
- 참고로 본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회적 충격(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연구의 진행과 프로젝트의 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에 다양한 영향(예: 시민의 자유 및 활동의 자유 위축, 자원순환이라는 공적 담론의 경직화, 시민사회의 심리적 위축 및 불안 심화 등)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3)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 수거·처리 체계 개선 방안 마련 연구(한국환경연구원, 2018)⁶⁾

- 수도권 아파트에서 발생한 폐비닐·폐플라스틱 수거 거부 사태(재활용 가능 자원 가격 하락으로 민간 업체의 수익성 악화)를 계기로, 자원순환 체계의 제도적 개선 방안을 연구하였음. 본 연구는 분리배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급제 도입과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를 제안하였음.
- 본 연구는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체계 개선의 사회적 임팩트로 시민의 분리배출 참여를 촉진하여 자원순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재활용 폐기물의 수거 중단으로 인한 시민 불편 비용을 추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정성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제시하였음.
 - 한편 공공부문의 적극적 개입으로 민간 업체의 수익성 의존도를 낮추고, 자원순환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폐비닐 등 저부가가치 폐기물의 재활용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기술을 개발해야 함을 세부 과제로 제안함.
 - 이와 더불어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 배출량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투명한 자원 관리 체계 마련해야 함을 제시하였음.

(4) 서울시 시민주도의 '제로웨이스트' 자원순환 프로젝트(서울시, 2023~현재)

- 시민이 직접 생활 속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해나가는 프로젝트로 이른바 '2023년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 아래 추진되고 있는 사업임.
- 자원순환과 관련해서는 '제로웨이스트 문화 확산 등 시민참여형 자원순환 인식 및 실천'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새활용플라자'(www.seoulup.or.kr) 프로그램을 운영해 폐자원을 활용한 업사이클링(Upcycling) 교육과 도슨트 안내의 전시를 통해 시민의 참여를 유도해 오고 있음(2025년 기준 누적 방문자 11만명).
 - 이러한 활동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사회적 임팩트로는 시민들이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환경 의식이 높아지고 지역 내 업사이클링 커뮤니티 형성으로 사회적 연결망이 강화된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음. 또한 서울새활용플라자를 통해 재활용품을 활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기회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사회적 임팩트를 보다 확산하고자 서울시는 2024년 기준으로 음식물 쓰레기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확대하고, 특히 SNS와 지역커뮤니티를 통해 젊은층의 환경 운동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시민참여 캠페인의 전국 확산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그림 2-2〉 서울새활용플라자(출처: 홈페이지)



(5) 순환자원정보센터의 폐가전 수거 시스템(순환자원정보센터, 2019~현재)

- 한국의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는 폐가전제품 수거 체계를 구축하여, 가전제품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있는 기관으로, '내 집 앞 폐가전 수거함' 서비스(소형 폐가전을 버릴 수 있는 공간)와 순환장터를 통해 시민이 쉽게 폐기물을 배출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이러한 지원 활동으로 시민의 재활용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 중소기업 간 순환장터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또한 폐가전 재활용을 통한 환경 오염 감소 및 자원 절약의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2025년 기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폐가전 수거 예약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지역별 수거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원효율성을 높이는 등 보다 사회적 임팩트를 확산하고자 함. 이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 중심의 자원순환 네트워크 형성과 시민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사회적 신뢰도 향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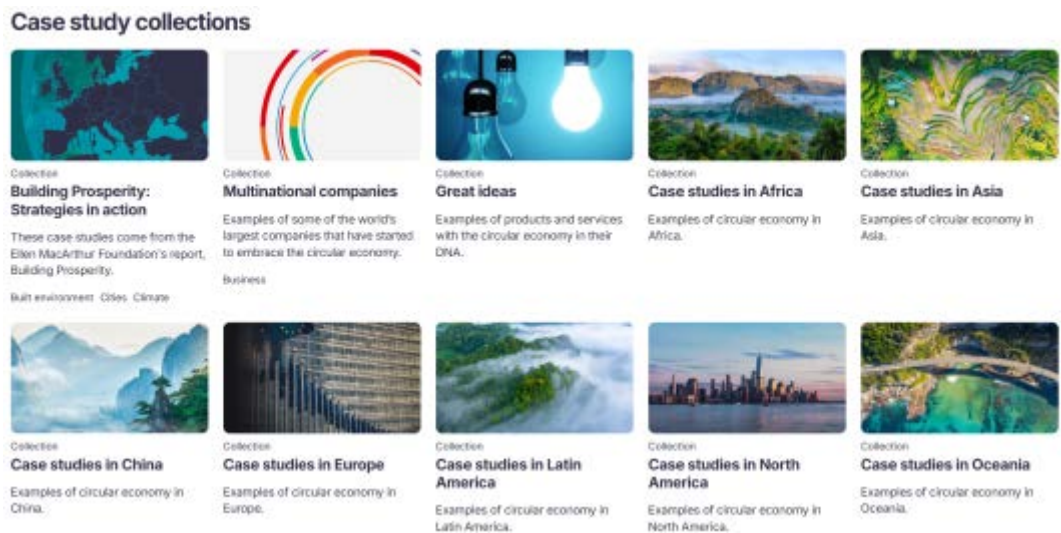
6) 본 연구의 문헌조사 범위는 2020년 이후로 한정하고 있으나, 국내 연구보고서 중 시민주도 기반의 자원순환 체계에 관한 사례 연구와 같이 본 연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을 시 문헌조사 범위에 포함하였음.

2. 해외 주요 사례

(1) 엘렌 맥아더 재단의 순환경제 사례 연구 프로젝트(Ellen MacArthur Foundation’s Circular Economy Case Studies Project, 2020)

- 2020년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엘렌 맥아더 재단⁷⁾(ellenmacarthurfoundation.org)의 순환경제 사례 연구 프로젝트는 전 세계에서 실천되고 있는 순환경제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수집·분석·공유하여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공유해 오고 있고 있음.
- 최근에도 2024년 임팩트 리포트와 함께 새로운 사례들이 추가되고 있으며, 도시, 기업, 정책,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신 순환경제 전략과 실천 모델을 소개하고 있음.
- 실제 적용된 순환경제 전략을 나라별, 주제별로 제시함으로써 정책입안자, 기업, 연구자, 시민단체 모두에게 벤치마킹 가능한 구조와 지표를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또한 순환경제 운동의 사회적 임팩트와 지속가능성을 통합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글로벌 지식 허브가 작동되는 방식에 대해서도 연구가 가능함.

<그림 2-3> 엘렌 맥아더 재단의 순환경제 사례 연구 프로젝트(출처: 홈페이지)



7) 전직 세계일주 요트 선수인 엘렌 맥아더 선수가 2010년에 창립한 재단으로, 엘렌 맥아더는 요트 항해 중 자원의 유한함을 체감하고 이를 계기로 순환경제 운동에 뛰어들었음.

(2) 플라스틱 순환경제의 실현: 투자 사례 연구(Unlocking the Plastics Circular Economy: Case Studies on Investment, World Economic Forum & The Circulate Initiative, 2022)

- World Economic Forum과 The Circulate Initiative가 공동 발간한 연구보고서 자료로,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투자 기반 사례 10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음.
- 단순한 기술적 접근을 넘어서 임팩트 투자, 임팩트 정책, 민간 협력이 어떻게 순환경제를 가속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천적 로드맵을 담고 있으며,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투자 가능성, 수익성, 정책 간의 연계된 실증적 사례를 제시하였음.
- 투자 유인 기반의 정책 설계, 데이터 기반의 접근,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순환경제의 임팩트 확산의 핵심 요소로 꼽고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협력 부문에서 지역사회와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포용적 모델이 지속가능성의 열쇠임을 제시하였음.

(3) 포용적 루프: 순환경제에서 사회적기업⁸⁾의 중요한 역할(Inclusive Loops: The Crucial Role of Social Enterprises in the Circular Economy, World Economic Forum, 2023)

- IKEA Social Entrepreneurship, TechnoServe, Global Alliance for Social Entrepreneurship이 공동 발간한 연구보고서 자료로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s)이 순환경제(circular economy)에서 수행하는 핵심적 역할을 조명하였음.
- 본 연구보고서는 순환경제가 환경·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의 역할과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전 세계 40개 이상의 사회적기업 사례를 분석함.
- 사회적기업이 어떻게 순환경제를 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확장하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순환경제 전략을 <표2-2>와 같이 크게 네 가지 루프(loops)로 구분하고, 각 루프에서 사회적기업이 수행하는 역할을 분석하였음.

<표 2-2> 순환경제 전략의 네 가지 루프 전략

구분	전략
Narrow Loop	자원 사용 자체를 줄이는 전략(예: redesign, reduce, refuse)
Slow Loop	제품 수명을 연장하는 전략(예: repair, reuse, sharing)
Close Loop	자원을 다시 순환시키는 전략(예: recycle, refurbish, remanufacture)
Regenerate Loop	자연 생태계와 사회 시스템을 회복시키는 전략(예: 생태농업, 지역사회 재생)

8)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업들의 현재 상태를 2025.6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일부는 사회적기업에서 민간기업의 비즈니스모델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Narrow Loop의 사례: 인도의 'Protoprint'(projectprotoprint.com)의 경우 이른바 비공식적으로 집계되고 있는 폐기물 수거자(informal waste pickers)와 협력해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거하고 이를 3D 프린터용 필라멘트로 재가공해 가는 사업을 전개해 나갔음. 이를 바탕으로 비공식 노동자와의 협업 모델을 제도화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소득 창출과 사회적 자원 절감을 동시에 달성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음.
- Slow Loop의 사례: 호주의 'Green Collect'(greencollect.org)의 경우 폐기물 수거 과정에서 이민자 여성과 장애인 등을 고용함으로써 취약 계층 대상의 고용 및 교육 기회 제공, 수리권(right to repair)의 보장, 공공기관의 중고품 구매 의무화 등의 제도 활성화, 지역사회 역량 강화라는 사회적 임팩트를 창출하였음.
- Close Loop의 사례: 영국의 'Pentatonic'(pentatonic.com)은 디자인 중심의 순환경제 전문 기업으로 단순한 친환경 제품을 넘어서 디자인·기술·환경 데이터를 통합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임.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소비자 경험을 통한 환경 인식 전환을 유도하는 전략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현재 사회적기업은 아니지만 사회적·환경적 임팩트를 핵심가치로 삼고 있는 민간기업으로 글로벌 기업 스타벅스, 나이키, 버거킹과 박물관 등과 협업하고 있음.
- Regenerate Loop의 사례: Sustainable harvest(sustainableharvest.org)는 토양의 건강 회복과 생물 다양성 증진, 탄소 흡수 등을 목표로 하는 농법을 도입하여 커피 생산자들이 기후회복력(climate resilience)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비영리 조직임. 지속가능한 농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사회적 평가를 받고 있음.

〈그림2-4〉 영국 'Pentatonic'의 제품 트레이드백(trade-back) 프로그램 데모(출처: 홈페이지)



(4) 전환을 가속화하는 순환경제 사례(Circular Economy Examples That Are Accelerating Transition, World Economic Forum, 2023)

- 전 세계에서 순환경제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는 혁신적 실천 사례 9가지를 소개하고 있으며, 국가별 여건에 맞는 순환경제 전략이 어떻게 설계되고 실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음.
- 전 세계 자원순환률이 9.1%에서 7.2%로 감소(Circularity Gap Report, 2023)된 상황(연간 1,000억 톤 이상의 자원 중 단 7.2%만이 재사용되고 있다는 의미)에서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국가별 맞춤형 전략과 실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자원순환을 위한 수거 체계의 강화를 논의하고 있음.
- 보고서는 국가별 여건에 맞는 순환경제 전략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책-기술-커뮤니티 연계의 시스템 전환을 기반으로 해야 효과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음.

〈표 2-3〉 국가별 여건에 맞는 전략(출처: 전환을 가속화하는 순환경제 사례 보고서)

구분	순환경제 전략
Build: 저소득국	인프라 구축 중심
Grow: 중소득국	산업 확장과 자원 효율화
Shift: 고소득국	소비 감축과 시스템 전환

제3절 소결

- 지금까지 국내·외 연구 및 문헌 조사를 통해 사회적 임팩트 확산의 관점에서 자원순환과 수거 체계에 관한 연구와 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현 시점에서의 자원순환의 정책적·기술적 특성과 국내의 자원순환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임팩트 확산의 상(image)과 관련 과제를 확인할 수 있었음.
- 국내·외 연구 및 사례들을 통해 자원순환을 위한 수거 체계의 강화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며, 임팩트 확산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자원순환의 성공 요인과 과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
- 이와 관련, 한국의 경우에는 체계적인 분리수거 시스템과 스마트 기술 도입을 통한 자원순환을 중점적인 과업으로 삼고 있으며, 종이팩 자원순환의 경우에는 낮은 재활용률과 지역별 불균형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종합적으로 순환경제의 전환과 임팩트 확산은 단지 폐기물 재활용이나 기업 전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기술-디자인-정책-시민-네트워크-사회적 가치가 얹힌 복합 시스템적 이행과제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

1. 국내 및 해외 연구 문헌의 종합 분석 요약

- 해외 문헌을 종합 고찰한 결과, 자원순환(순환경제)과 사회적 영향(임팩트)의 연구는 아직 정량적 접근보다는 질적·해석적 접근이 우세하며, 정량 평가 체계는 아직 정형화되지 않아 표준화된 사회영향 지표 및 프레임워크의 개발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 정량적 접근의 대안으로서 다양한 방법론적 접근(네트워크 방법론)을 적용하여 개인 간 사회적 연결성(connectivity)이 자원순환 확산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음.
 - 또한 사회적 피드백의 메커니즘(예: 동조, 협력 등)이 연결성의 품질에 따라 자원순환 활동의 효과를 강화하거나 저해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AI 및 디지털화의 흐름이 나타나면서 기술 기반의 자원순환 관리 사례들이 조명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제주도의 사례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AI, IoT, GPS, CCTV 영상 기술들이 활용되어 생활폐기물 감지 및 수거 효율화가 모색되었음. 이는 실시간 폐기물 관리와 불법투기 억제, 수거 최적화라는 정책적 함의를 가졌음.
 - 이는 해외 사례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흐름으로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폐기물 추적 시스템이 필요함을 시사함.
- 스마트 디자인과 소재 전략에 기반한 제품 단계의 순환성 설계가 필요함이 제시되고 있음.
 - 스마트 패키지 디자인 연구는 제품 수명주기의 전 과정에서 소재 최적화-디지털화-내구성 강화-그린 소비 촉진 등의 설계를 요구하고 있음. 이는 EU의 순환경제 정책과 연동된 글로벌 디자인 전략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 중심의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제품단위 전략 수립에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음.
- 사회적 네트워크의 자원 관리 영향이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의 이론적 흐름을 살펴본 결과, 순환경제의 확산(활성화)을 위해서는 피드백 기반의 자원 관리와 사회적 연결성을 다룬 연구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네트워크 구조, 동조 효과, 정보 피드백이 자원 고갈 또는 지속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량적·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음.
 - 이는 시민참여형 실천과 커뮤니티 네트워크 기반의 정책 설계, 사회적 인식의 확산을 위한 전략과 관련하여 핵심 이론(관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2. 국내 및 해외 사례의 종합 분석 요약

- 국내에서는 '자원순환사회기본법(2018)'과 '2050 탄소중립 목표'를 기반으로 자원순환 체계의 강화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현시점을 기준으로 크게 두 가지의 주요 동향이 관찰되고 있음.
 - 기술 혁신을 통한 임팩트 강화: 전반적으로 AI 기반 재활용품 분류기와 스마트 수거함 도입을 통해 수거 효율성을 높이는 데 관심이 많음.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서울시의 스마트 수거함 설치 지역은 50% 이상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연료 비용 절감과 수거 경로의 최적화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서울시, 2024). 또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폐가전 수거 예약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2024년 폐가전 수거율을 15%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남(순환자원정보센터, 2024).
 - 시민참여의 강화를 통한 임팩트 강화: 지역 단위의 온·오프라인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의 '쓰레기 줄이기 챌린지'는 SNS를 통해 10만 명 이상의 참여를 기록하는 등 젊은층의 환경 의식을 제고하였다는 평가가 가능함.
 - 플라스틱 재활용률(약 30%)과 종이팩 회수율(약 15%)이 여전히 낮게 기록되고 있는 상황에서(환경부, 2021), 지역별 수거 체계의 차이나 비효율적인 운영을 개선할 수 있는 차원에서의 임팩트의 확산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정책적 접근의 측면에서는 한국은 주로 중앙정부(환경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자원순환을 추진하지만, 지역 간 표준화 부족으로 자원순환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음. 반면, EU는 회원국 간 표준화된 정책(예: 단일 사용 플라스틱 지침)을 통해 자원순환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독일은 경제적 인센티브(보증금)를 활용해 시민참여를 극대화하고자 함.
- 시민참여 기반의 자원순환의 측면에서, 일본과 미국(샌프란시스코)은 지역사회 중심의 자원순환 모델로 공동체 의식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한국의 지역 단위 캠페인보다 유사한 방향성을 보인다고 말할 수 있음. 다만 독일과 같이 경제적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자원순환 지속을 강화하려는 보증금 제도 부분은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라고 말할 수 있음.
- 종합하면 사회적 임팩트의 확산의 측면에서 국내와 해외 모두 시민 기반의 자원순환을 통해 환경보호, 경제적 가치 창출, 사회적 통합을 달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공통적으로 확인되고 있음.
 - 한국은 업사이클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독일과 일본은 취약계층 포용과 사회적 자본 축적이라는 사회적 가치 창출(확산)이라는 양상을 띠는 것으로 나타남. 참고로 EU는 글로벌 영향력을 바탕으로 저개발국으로의 기술과 노하우 전파를 해당 성과로 평가할 수 있음.
 - 특히, 한국은 고소득국(shift)(Circular Economy Examples That Are Accelerating Transition, World Economic Forum, 2023)으로 분류될 수 있어, 순환경제의 전략이 소비 감축-시스템 재설계-시민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 이행될 필요가 있음.

3. 시사점 도출 및 제언

- 시민 주도의 자원순환 활동으로 인한 사회적 임팩트를 보다 확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언하고자 함.
- 보증금 제도 도입 및 확대의 검토가 필요함.
 - 독일의 'Pfand 시스템'(반환보증금 제도)을 벤치마킹해 페트병, 캔, 종이팩 등에 보증금 제도 도입 강화를 검토할 수 있음. 독일은 반환보증금 제도로 페트병과 캔 수거율 98%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디지털 보증금 시스템 도입으로 편의성을 개선한 상황임(EU 보고서, 2024).
 - 한국의 경우에도 페트병 보증금 제도를 일부 시행 중에 있으나(2020년 기준 회수율 70%), 종이팩로도 전면적 적용의 여지가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종이팩의 수거율 증가 및 재활용 자원의 품질 향상을 위해 종이팩 보증금 반납기의 설치나 스마트폰 앱을 통한 포인트 환급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지역사회 기반의 자원순환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더욱 다양한 지역 단위 분리배출 모델을 참고해 마을 단위 재활용 센터를 설립하고, 주민 주도형 자원순환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⁹⁾. 일례로 일본 도쿠시마현 가미가츠 마을은 제로웨이스트 마을(2003년)임을 선포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조직 구성과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하여 연간 총 폐기물의 최대 80%를 재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특히 NGO인 '제로웨이스트 아카데미'를 통해 지역주민의 협력을 도모하여 재활용률을 향상시켰으며, 이는 가미가츠 마을의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자본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남.
 - 서울새활용플라자, 폐가전 수거 시스템 등의 사례는 시민참여와 커뮤니티 기반의 실행이 순환경제 전환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2-5〉 제로웨이스트센터(출처: zwtk.jp/en/zwcenter/)



- 데이터 기반의 순환경제 이행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국내·외 연구 문헌 및 사례 모두 정량적 접근과 비교가능한 환경 데이터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특히 UNEA 장관선언문과 KIEP 연구는 증거 기반(Evidence-based) 정책 결정을 위해 데이터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필수임을 지적하고 있음.
- 순환경제와 사회적 가치의 통합 및 정렬에 대한 보다 다양한 연구가 필요함.
 - 해외 보고서(Inclusive Loops, WEF 등) 검토를 통해 순환경제 전략이 사회적 포용·기후 회복·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계하여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순환경제를 단순한 재활용 기술이 아닌 '시스템 전환'과 사회혁신의 전략으로 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나 국내의 상황에 맞는 연구는 아직 활성화되고 있지 않아 향후 관련 연구가 보다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9) 참고로 비니루없는점빵도 포럼을 통해 일본 도쿠시마 현 가미가츠 마을의 '제로웨이스트센터' 사례를 발표 및 공유한 바 있음.

제3장

면접조사 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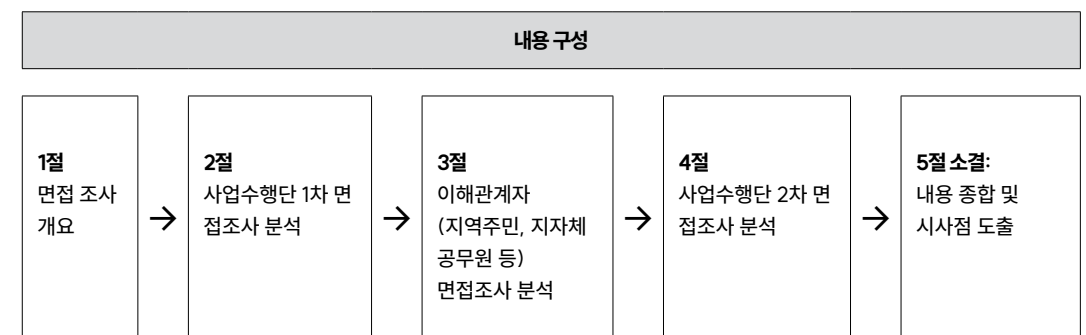
제1절	면접조사 개요
제2절	1차 면접조사 분석
제3절	이해관계자 분석
제4절	2차 면접조사 분석
제5절	소결: 내용 종합 요약

3

면접조사 결과 분석

- 제3장은 본 연구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면접조사 결과를 분석한 것으로, <표3-1>과 같이 크게 1절 면접조사 개요, 2절 1차 면접조사 분석, 3절 이해관계자 면접조사 분석, 4절 2차 면접조사 분석, 5절 소결: 내용 종합 및 시사점 도출로 이루어져 있음.
- 1차 면접조사 개요에서는 면접조사의 대상 및 기간, 자료수집방법, 분석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였으며, 2절과 4절에서는 사업수행단을 대상으로 한 1차 면접조사와 2차 면접조사에 대한 분석의 내용을 담고 있음. 3절에서는 이해관계자 대상의 면접조사 분석을 담고 있으며, 2절과 4절의 사이에 위치시킨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1차와 2차의 면접조사 사이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에 따라 구성한 것임.

<표 3-1> 제3장의 구성과 흐름



제1절 면접조사 개요

1. 조사 설계

(1) 면접조사의 대상 및 기간

- 면접조사의 참여자는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업수행단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2월에는 프로그램 전반기에 대한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3월에는 프로그램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기반의 상호작용에 대한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4월과 5월초에는 프로그램 후반기에 대한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 프로그램 전반기와 후반기 모두 사업수행단(종이팩, 농촌쓰레기)에 참여하는 동일한 조직들이 면접조사에 참여하였으며, 각 조직을 대표하는 1명 이상의 참여자들에게는 프로그램 전·후에 따른 인식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질문들이 주어졌음.
- 또한 프로그램 중반기에는 프로그램 사업수행단으로부터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거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이해관계자(지역주민, 지자체 구성원, 시민 활동가, 전문가)들을 추천받아 면접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이들에게는 사업수행단에게 주어진 면접조사에 대한 질문지를 기준으로 주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동일하게 또는 상이하게 가지며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 교류하고자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음.
- 면접조사 참여조직으로는 <표3-2>와 같이, 지원조직 2개, 종이팩 컬렉티브 참여조직 3개, 농촌쓰레기 컬렉티브 참여조직 2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해관계자(지역주민, 전문가, 시민 활동가, 지자체 구성원)는 종이팩 컬렉티브의 경우 8명, 농촌쓰레기 컬렉티브의 경우 6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음.

<표 3-2> 면접조사 참여조직

구분	인원(명)	주제	대상	주요 내용
2월	1	종이팩+농촌 쓰레기	숲과나눔	· 프로그램 주요 참여자 대상 · 프로그램 전반기에 대한 인터뷰 · 종이팩 정책포럼 #10 <종이팩 재 활용률 13%, 반전의 시작>
	1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	종이팩	지구를지키는소소한행동	
	1		경기환경운동연합	
	1		전북환경운동연합	
	2	농촌쓰레기	삼삼은구	
	2		비니루없는점빵	
	10명			
3월	3	종이팩	경기 시흥시 지역주민	· 프로그램 이해관계자 대상(지역주 민, 지자체 구성원, 시민 활동가, 전 문가 등) · 수거 모델의 확립(확산)과 관련, 프 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확인되는 촉 진/저해 요인 도출 · 농촌쓰레기 정책포럼 #1 <홍천군 폐농약 및 폐농약병 수거시스템 활 성화 방안>
	2		전북 전주시 전문가	
	2		중구 지역주민	
	1		중구 지자체 구성원	
	1	농촌쓰레기	홍천 지역주민	
	1		홍천 지자체 구성원	
	3		남원시 산내면 지역주민	
	1		남원시 산내면 지자체 구성원	
14명				
4월말~ 5월초	1	종이팩+ 농촌쓰레기	숲과나눔	· 프로그램 주요 참여자 대상 · 프로그램 후반기에 대한 내용 · 농촌쓰레기 정책포럼 #2 <남원, 마 울과 함께 농촌쓰레기 자원순환을 디자인하다> · 종이팩 정책포럼 #11 <지자체 주도 의 종이팩 자원순환 활성화 방안>
	1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	종이팩	소비자기후행동	
	2		지구를지키는소소한행동	
	2		경기환경운동연합	
	2		전북환경운동연합	
	2	농촌쓰레기	삼삼은구	
	1		비니루없는점빵	
13명				

(2) 면접조사 항목 및 방식

- 면접조사의 문항은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묻는 질문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본 프로그램에 갖는 참여의 의미, 사회적 임팩트(성과 및 영향력)의 의미, 사회적 임팩트를 확산하기 위한 참여조직들의 노력과 이에 수반한 어려움, 활동을 기반으로 관계를 맺은 이해관계자와의 상호작용에 대해 묻는 것으로 이루어졌음.
- 이러한 내용을 기본 질문으로 하되, 프로그램 전반기, 중반기, 후반기 그리고 참여조직의 주제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다른 내용의 면접조사 질문을 구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연구보고서의 부록1~6에 제시하였음.
- 본 면접조사는 <그림3-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참여조직의 지리적 위치가 서울,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북도 남원시, 강원도 홍천군, 경기도 시흥시인만큼 광범위한 지역 단위로 분산되어 있음. 이에 면접조사 방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혼용하여 이루어졌으며, 온라인 방식으로 응한 참여자들은 연령에 관계없이 기술적 접근성에 있어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음.

<그림 3-1> 면접조사 참여조직의 지리적 위치



<표 3-3> 면접조사 질문지(예시)(지원조직 대상)

구분	질문
참여의 의미	<2024 초록열매 성과확산 프로젝트>의 두 가지 주제 '종이팩'과 '농촌쓰레기'를 소재로 프로그램을 참여·진행해 오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회문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업을 전제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모색을 해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두 사회문제의 참여는 어떤 점에서 의미가 있나요?
임팩트 정의	지원조직으로서 소기의 성과는 어떠셨나요? 그러한 성과가 사회적으로 파생된 가치들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참여조직의 특성	참여하였던 조직들의 활동이나 문제 해결 사례 중심에서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은 것들이 있으세요? 주제별('종이팩', '농촌쓰레기')로 수렴되는 조직의 성향이나 특성도 있을까요?
프로그램 지원 노력	지원조직으로서 목표한 바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회고해 본다면 그 목표들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참여조직의 기여	지원조직으로서 참여조직들에 받은 도움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고 이유는 무엇인가요?
프로그램 발전을 위한 조언	본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다른 지원조직들(또는 관심있는 비영리 활동가)에 줄 수 있는 조언들이 있을까요? 그들이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프로그램 이해관계자와의 상호작용	종이팩 자원순환과 농촌쓰레기 자원순환이라는 사회적 실천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이해관계자를 만나셨을 텐데요. 참여조직 이외에 가장 도움을 받았던 분(조직)이 있으셨나요?
자유 의견	지금까지 이야기 해주신 것들 중에서 덧붙이고 싶은 의견이나, 이야기 나누지 않은 중요한 사항이 더 있을까요?

2. 분석의 범위 및 방법

- 자원순환 정책의 성공은 국가 차원의 제도적 추진만으로 충분치 않음, 지역사회의 일상적 실천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는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확산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인 상황에서, 시민활동을 기반으로 한 종이팩 자원순환과 농촌 쓰레기 자원순환 사례를 비교 분석하는 일은 매우 의미있다 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소수의 사례를 기반으로 복잡한 사회현상에서 원인적 복수성과 결과로 이어지는 경로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어떤 조건들의 조합이 성공적 확산(임팩트 확산)으로 이어지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음.
- 이를 위해서 시민 활동 기반의 자원순환 활동(자원순환 임팩트 확산)에 대한 조건과 결과의 상황을 도출하기 위해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으며, <표3-4>와 같이 주요 분석의 초점을 구성할 수 있었음.
- 조건 상황으로는 시민 대상의 교육 양상, 공동체 조직화 수준, 정책 지원의 강도, 네트워크의 확장성, 제도적 실험장의 존재, 파급효과의 정도, 사회적 규범 활성화 정도를 살펴보았으며, 결과 상황으로는 임팩트 확산 성과, 구체적으로 시민 활동의 재참여 의사, 재활동 범위 확대, 참여지역의 확대, 조례의

구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음.

- 상기 사항을 주요 분석의 범주로 삼은 이유로는, 시민활동 기반의 임팩트 확산에 있어 시민들은 개인적인 신념뿐만 아니라, 주변 커뮤니티의 규범적 분위기에 의해 자신의 행동을 강화하거나 지역 간 모범사례의 공유를 통해 유사한 정책 모형이 확산된다는 이론에 근거하기 때문(Cialdini, Reno, & Kallgren, 1990; DiMaggio, & Powell, 1983).
- 여기에 미치는 세부 사항으로는 시민 대상의 교육 양상 등의 조건 상황이 폭넓게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자원순환의 주제와 시차에 따라 복합적 경로를 탐색하고 농촌과 도시의 자원순환 확산의 메커니즘을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상기 사항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질적 비교 분석(QCA,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을 통해 자원순환(종이팩, 농촌쓰레기) 시민 활동 사례를 살펴보려고 함.

- QCA는 연구의 지속성의 측면에서 1차년도(2023년)에 수행되었던 계량적 접근의 연구뿐만 아니라, 향후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방법론을 잇는 가교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소규모 사례라고 하더라도 관찰 가능한 함의(observable implications)를 도출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론임(Ragin, 1987).
- QCA는 서로 다른 인과 구조를 갖는 각 사례들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파악하는 방법론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김용학·임현진, 2005).
- 다시 말해 QCA는 비교적 소수의 사례에서 인과적 관계 및 상관관계적 지식을 도출하고자 할 때 유용하여 본 연구에서 다양한 요인의 결합구조를 파악함으로써 시민 기반의 자원순환의 확산경로를 밝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함(Ragin, 1987).

○ 분석의 수준 및 흐름

-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결과 상황에 대한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변수의 순효과를 살펴보는 선형적 통계 분석 방법과 달리, 조건 상황들이 결합(조합)하여 결과 상황에 대해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며,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현실의 복잡한 사회현상을 경로화하고자 함.
-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원순환 주제(종이팩, 농촌쓰레기)에 따른 개별 사업수행단 조직의 특성도 고려할 수 있고, 중범위 수준에서의 지역 간 사례 비교 분석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QCA를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함.
- 본 연구는 QCA(Ragin, 1987)의 세부 흐름(<그림3-2>)에 따라, 사례의 내용을 조건 상황(분석 항목 별)과 결과 상황으로 코딩(예: 있음=1, 없음=0)하여 QCA에서 요구되고 있는 진리표(truth table)를 구성하고 결론 부분에서는 조건들의 충분성을 분석하여 임팩트 핵심 경로를 도출하고 시사점(종합 제언)을 도출하고자 함.

<그림 3-2> QCA를 활용한 본 연구의 사례 분석의 흐름 및 경로 도출
(Federo(2019)를 기반으로 연구자 자체 정리)



〈표 3-4〉 사업수행단의 임팩트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주요 분석의 초점

범주	분석 항목	조작적 정의	지표 및 예시
조건 상황	시민 주도의 캠페인(C)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 전환과 실천을 촉진하는 활동. 교육, 홍보, 대면 설득 등을 말함.	주민 대상 분리배출, 자원순환 교육 강도 (예: 개인 간, 조직 간 교류, 포럼 참여 등), 시민 대상의 교육
	정부/정책 지원의 강도(G)	행정 조직의 협조 수준, 정책의 반영 가능성, 제도화 추진 과정에서의 지자체 혹은 중앙정부의 반응과 대응 능력을 의미함.	지자체, 중앙정부 등의 제도적 지원, 지원조직의 프로그램 신뢰도
	공동체 조직화 수준(O)	지역 기반 조직(시민단체, 협동조합 등)이 지역사회 특성과 필요에 맞춰 문제를 정의하고 실행하는 역량을 말함.	마을 조직과 주민 기반의 리더십의 정도
	네트워크의 확장성(N)	다른 단체, 활동가, 전문가, 기관들과의 협력 관계 형성 및 이로부터 파생되는 상호작용의 확장 가능성을 의미함.	프로그램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는 정도 (예: 일자리 창출, 마을돌봄 등)
	제도적 실험장의 존재(L)	기존 제도의 밖에서 새로운 해결 구조를 구상하거나 실행해 보는 시도를 의미함.	마을 단위 및 일정 규모의 경계 안에서 수거 시스템 설계, 교육 콘텐츠 제작, 조직 운영 방식 등이 이루어짐.
	파급효과의 정도(R)	특정 프로그램이나 개입 활동이 직접적 대상 외의 개인, 조직, 제도, 지역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 깊이, 지속성을 가지는 정도	종이팩 분리배출/농촌쓰레기 분리배출 이후 2차 행동의 확장 여부
결과 상황	사회적 규범의 강도(S)	시민 및 사회 구성원 사이에서 자원순환 또는 환경 실천이 당연한 행위(자연스러운 행위)로 자리 잡는 정도	실천의 일상화를 나타내는 참여의 규모, 사업참여 외부인의 관찰 가능성, 주변의 모방 행위 여부
	임팩트(성과) 창출/확산(I)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정책적 변화를 견인하고, 참가자의 인식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의미함.	활동의 질적·양적 성과 창출, 시민활동의 재참여 의사, 재참여 범위 확대, 참여지역 확대, 조례 구성 여부 등

주) C: Citizen-led Campaigns, G: Government/policy Support's Strength O: Community Organization Level, N: Network scalability, I: Presence of an Institutional Laboratory, R: Degree of Ripple Effect, S: Social Norms' Strength

제2절 1차 면접조사 분석

1. 종이팩 자원순환 대상

○ 2025년 2월 프로그램 초반부와 후반부에 사업 참여조직들 대상으로 수집된 면접조사 기반의 사례들을 카운트 코딩(count coding)¹⁰⁾으로 분석될 수 있도록 분석 항목(내용)들을 진리표(truth table)¹¹⁾에 맞춰 작성하였으며, 이는 모든 사례의 조건의 조합을 나열하는 표를 의미함.

- 카운트 코딩의 경우 '0=전혀 없음, 1=일부 존재하나 제한적, 2=상당히 존재함 또는 실질적 성과가 도출됨, 3=매우 강하게 존재하여 핵심적 역할로 나타남'으로 조작적 정의함.

○ 진리표(truth table)에 제시된 사례들과 관련, 면접조사 참여자의 인터뷰 내용 중의 일부를 예시로 직접 인용하여 별도의 테이블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해당 내용들을 분석 항목에 따라 개방 코딩(open coding)¹²⁾의 내용을 제시하였음.

- 진리표는 참여조직이 자체적으로 생각하는 임팩트 확산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분석 항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본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조직의 집합적 임팩트(collective impact)는 '커뮤니티 혁신을 통한 순환경제의 발전'인 만큼 커뮤니티 혁신의 조건·맥락, 그 사례 또한 구체적으로 제시함.

(1) 개별 사례의 진리표 구성

○ 사례1의 경우 전반적으로 공동체 조직화 수준, 네트워크 확장성, 파급효과 정도, 임팩트 확산이 내용에서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음. 아울러 시민 주도의 캠페인, 정부/정책 지원의 강도와 제도실험장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으며, 사회적 규범의 강도의 경우에는 초기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표 3-5〉 프로그램 전반부 종이팩 자원순환 조직

분석 항목 사례	시민 주도 캠페인 (C)	정부/정책 지원 강도 (G)	공동체 조직화 수준 (O)	네트워크 확장성 (N)	제도적 실험장 존재 (L)	파급효과 정도 (R)	사회적 규범 강도 (S)	임팩트 창출/확산 (I)
1	2	1	3	2	2	3	1	2
2	2	2	2	2	2	2	1	2
3	2	1	2	2	1	2	2	1

10) 여기서의 '코딩'의 의미는 질적 연구에서 연구의 목적에 따라 관여하는 기본적인 분석 과정을 의미하며, 카운트 코딩은 원 자료(raw data)에서 특정 범주로 생성된 내용의 개수를 의미함.

11) QCA에서 활용되고 있는 분석 항목의 코딩 표

12) 개방 코딩은 분석의 초점을 보여주고 관련 생각과 의미가 드러나도록 하는 범주화(개념화) 작업을 의미하며, 이는 카운트 코딩으로 제시될 수 있음.

〈표 3-6〉 사례1의 분석 항목과 개방 코딩 내용

분석 항목	개방 코딩 내용
시민 주도 캠페인	시민협동조합, 서포터즈, 종이팩 배출 카페 설득, 청년 환경활동가 양성
	“카페 300개가 이제 다 채워지면 너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카페들이 직접 배출을 해서 의미 있는 종이팩 재활용률 수치를 만들어 내는 게 저희의 목표요” “서포터즈들이 직접 자기가 활동해 가면서 기후 시민이 되어가고, 또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성과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부/정책 지원 강도	제한적인 구청과의 제도 협력, 이 과정에서 지속적 설득 필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거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구청에서는 또 엄연히 재활용 자원이니 임의로 가져가면 안 된다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구청에서는 따로 직접 수거하고 있지 않았어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직접 시민들이 가져다주는 것만 재활용을 했었거든요.” “구청이랑 협의하는 테이블에서 숏과나눔이라는 단체를 통해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고, 관련 프로그램을 전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 조금 더 설득력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네트워크의 확장성	산업계-공공-비영리 연계로의 사업 기회 확장과 동기 강화
	“다량의 양질의 재활용품이 들어오면 선별이 가능한 거니까 다른 품목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확산되는 것이 저희의 성과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럼에 가서 만나 뵙고 공부가 그만큼 많이 됩니다. 이제 아는 것들이 조금씩 많아지면서, 그리고 자세히 알게 되면서 더 의욕이 생기는 것 같아요. 포럼에서 교육 현황도 듣고 환경에 관련된 네트워크가 되다 보니까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파급효과 정도	자원봉사, 서포터즈 활동 등을 통해 시민이 주체적으로 기획·운영
	“작년의 경우 저희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자원봉사자를 직접 운영하고 노인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직접 수거를 했습니다. …… 또 대학생 서포터즈를 운영하는데 이들이 직접 카페를 방문해서 우유팩을 분리배출해 주실 사 안내 홍보를 열심히 해요.”
임팩트 창출/확산	수거 체계 효율화에 대한 지자체와의 공동 협력
	“그게 이제 다 선별장에 다시 들어왔다가 재활용처로 가는 구조가 지금의 상태인데요. 그런데 주민센터에 모이는 거는 다 이미 선별이 된 상태로 가 있으니까, 선별장이라서 선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실제로 탑차로 수집 운반도 하고 있으니까 협약을 좀 더 크게 맺어서……저희가 처음에 그걸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또 다른 측면에서 그런 수거 체계를 조금 효율화하는 제안을 받았던 것, 그게 공무원들은 좋아하더라고요.”

○ 사례2는 시민의 감수성과 실천적 제도를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엮는 중간 단계의 확산 모델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정책 제안부터 실천, 평가 반영까지 연결되는 구조를 지역에서 구현하고 있다는 점이 임팩트 확산으로 제시될 수 있음. 또한 전국 단위의 확산을 위해 시범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제도화·지속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하여 한층 성숙한 리더십과 공공 감수성 중심의 전략을 펼치려고 함.

〈표 3-7〉 사례2의 분석 항목과 개방 코딩 내용

분석 항목	개방 코딩 내용
시민 주도 캠페인	시민이 수거 실천과 정책 제안의 주체로 작동하며, 수용성 높은 모델을 공동 설계하는 단계
	“이 사업이 종이팩 화장지 교환사업으로 진행되면서 주민 수용도와 주도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렇게 되면서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3배 정도 수거량이 늘었죠. 이걸 시민들의 아이디어로 시작한 사업이고, 그래서 정책이 되었고, 그래서 시가 동 평가 지표에 넣기 시작한 거예요.”
정부/정책 지원 강도	지자체 실무자 수준의 제도 협력이 있으며, 제안이 정책 항목으로 반영된 사례가 존재
	“성남시는 동별로 실적 평가를 하는데 종이팩 수거량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10배 가까이 많아진 거예요.”
공동체 조직화 수준	시민·지자체·환경단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 시도가 활발하며, 동 평가체계에 반영함
	“동장님이 통장 전체 회의에 교육하라고 열어주셨어요… 수강생 400명이 넘는데 같이 할 수 있게 해보자고 했죠.”
네트워크 확장성	다양한 재활용 기업, 시민단체, 환경부와 연결된 전국 규모의 컬렉티브 연계 확대 중
	“이해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각자의 문제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역할 분담을 통해 문제를 풀고 있어요. 환경부, 재활용 기업, 협회, 시민단체가 다 이 네트워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은 종이팩 컬렉티브가 전문가입니다.”
제도적 실험장 존재	시범사업이 동 평가 지표로 반영되고 있고, 이를 전국 확산하려는 구조적 기획 존재
	“행정의 평가 항목에 종이팩 수거량을 넣는 것이 빠른 수거율 증가의 핵심… 제도적 정책 제안이 만들어져야 해요.”
사회적 규범 강도	시민 감수성 증대와 투명한 재활용 경로 요구가 나타나며, 실천 공감대 형성 중
	“시민들은 감수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모은 종이가 어디로 갔는지’ 투명하게 알고 싶어해요.”
임팩트 창출/확산	지역 내 성공 모델의 타 지역 전파, 이를 통해 사회적 인식과 시스템을 변화시키고자 함.
	“제가 성남시에서 했던 시범사업의 경험을 기반으로, 이걸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겠다… 제도와 정책들을 자리잡게 해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종이팩 수거량이 성남시에서 15톤에서 150톤까지 늘었고… 이제 광역단위 시군 평가에 반영되니까 더 확장됐어요.행정의 평가 항목에 이걸 넣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제안서가 이번 컬렉티브에서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 사례3은 임팩트 확산과 관련하여 종이팩 캠페인 활동이 단순한 메시지의 확산이 아닌, 실천 기반의 구조 전환과 시민 인식 변화, 그리고 정책 영향력의 확보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표 3-8〉 사례3의 분석 항목과 개방 코딩 내용

분석 항목	개방 코딩 내용
시민 주도 캠페인	제도적 개선과 데이터 수집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시민참여. 시민 및 활동가 개인 수준을 넘어서 조직 차원의 실천으로 작동하게 하기 위한 노력
“종이팩 분리배출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수거함이 없어서고, 두 번째가 잘 몰라서다… 그래서 수거함을 잘 만들어주는 것도, 분리배출에 대한 교육도 다 우리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부/정책 지원 강도	지자체 일부 부서의 실무 차원 협력은 존재하나, 행정-시민단체 간 갈등 및 시스템 차원의 정책 지원은 미흡
“전주시가 환경을 계속 훼손해서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담당자가 바뀌었더니 수거함 설치 연락, 전화 다 우리가 해보겠다고 해서 숨통이 트였어요.”	
네트워크의 확장성	지역 내 시민, 등 주민센터, 환경운동단체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나 완전한 거버넌스 수준까지는 아님
“‘사람과환경’이라는 업체가 자동 선별기를 들여오고, 광주에서 전주로 종이팩이 오게끔 확장도 고려되고 있어요. 이게 다 네트워킹이라고 생각해요.”	
제도적 실험장 존재	수거 체계 실험, 평가 지표 반영 등 일부 제도 연계가 있으나 제도화의 지속가능성은 제한적
“전주시가 종이팩을 넘어선 또 다른 고민을 더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전주시 평가 지표에 종이팩 수거량이 반영되게 하려고 해요.”	
파급효과 정도	데이터 수집과 정책 피드백 시도는 지역 범주 내에서 파급 가능성을 갖추고 있음
“마지막 결과가 너무 궁금해요… 이 짧은 성과가 잘 나오면 전주시가 더 큰 고민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적 규범 강도	수거함 자발적 설치, 설문 응답을 통한 시민의식 확인 등 생활 내 인식 확산의 토대 형성
“단지를 돌아보니 수거함이 없어도 따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었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임팩트 창출/확산	지역 기반 실험이 다음의 아젠다로 확장되는 것
“이 짧은 성과가 잘 나오면 전주시가 종이팩을 넘어선 또 다른 고민을 더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가 필요할 것 같고요.”	

(2) 집합적 임팩트 수준의 분석

○ 사례1, 사례2, 사례3의 내용을 바탕으로 커뮤니티 혁신의 조건·맥락과 그 구체적 사례 예시 및 함의를 제시하였음.

〈표 3-9〉 사례1, 사례2, 사례3의 커뮤니티 혁신의 조건·맥락과 함의 종합

사례	조건과 맥락	예시 및 함의
1	제도 적응력이 있는 구조 설계	(예) “이번 컬렉티브의 가장 큰 성과는… 시민과 마을공동체와 행정기관들과 기업들이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솔직하게 내놓고, 문제를 같이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서로를 지원 협력하는 이러한 부분들” → 시민 주도 실천이 행정과 ‘격돌’이 아닌 ‘연결’될 수 있는 중간 프레임이 필요함.
	혼합형의 조직 역량 강화	(예) “비영리 조직이 폐기물 수거·운반업 등록까지 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자격을 갖추는 방식도 고민해야 돼요. 실제로 이게 ‘우리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스템 전체에 개입해야 하니까요.” → 비영리조직이 정책 제안뿐 아니라 직접 실행 가능한 제도적 자격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예: 폐기물 수거업 허가)
	시민 정체성의 확장	(예) “종이팩 문제는 결국 시민들이 단순히 배출하는 수준이 아니라, 제안하고 설계하고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커져야 해결돼요.” → 시민 대상의 교육·시민 주도의 실천과 참여를 통해 ‘기후 시민’이 ‘제도 설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다중 이해관계자 간의 실질적 협력의 장(場)을 형성하였음	(예) “서로가 솔직하게 문제를 내놓고, 자신의 영역 밖 역할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이야기하는 구조입니다.” → 기존에는 시민, 지자체, 기업이 각자의 방식으로 고립된 해결 노력을 해왔으나, 종이팩 컬렉티브는 이들을 한 장(場)에 모아 네트워크로 연결해 주었음.
	시민을 실천가에서 제안가로 확장하는 구조	(예) “시민 제안이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제도화되고, 이어 행정복지센터의 성과지표 변화로 확장되었습니다.” → 참여 시민들이 단순한 분리배출을 하는 행위자를 넘어,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실증적 실험가들임.
	시민 활동가의 성장 경로를 제시함	(예) “종이팩 캠페인은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시스템의 결함을 인식하고 그 구조를 제안하는 시민 리더십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활동가의 작은 문제의식이 작은 실험으로 이어지고 시스템 전환의 도모로 이어지는 경로가 드러남.
	숲과나눔 컬렉티브는 제도 설계를 위한 실험 플랫폼으로서 기능함	(예) “행정의 평가 항목에 종이팩 수거량을 포함하는 것이 빠른 수거율 증가의 핵심이라는 것을 도출할 수 있었어요. 지자체 평가 항목에 ‘종이팩 수거량’이 포함되니까 동별 수거량이 확 늘었거든요. 이런 구조를 제안하는 것 자체가 제도 설계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 종이팩 수거량이 증가하면서 동 단위 평가 지표를 만들 수 있었으며 이는 광역 단위의 정책 피드백 구조로 연결되었음.

사례	조건과 맥락	예시 및 함의
3	시민의식 기반 실천에서 제도 설계로 확장되는 구조를 체험	(예) “정부가 시민들의 의식을 못 따라간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 바뀌는 것까지가 저의 이제 최종 목표인 거고 이 활동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 시민이 단순 실천자에서 정책 제안자이자 제도 설계자로 성장하는 구조를 의미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음.
	지역 내 이해관계자 간 네트워크 역량과 신뢰 기반의 협력이 필요	(예) “혁신도시라고 하는 도시 안에… 주민센터 동장님이 계셨는데… 통장 전체가 모일 때 설명해라, 수강생 400명이 넘는데 같이 뭔가 할 수 있게끔 해보자… 사람들이 다 하나씩 길을 열어주는 것 같아서…” → 지자체, 주민센터, 민간업체, 시민단체 간 협력 구조의 형성과 신뢰 자산의 축적이 필요함.
	활동가의 개인적 실천이 조직적 혁신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경험	(예) “자원순환 종이팩 사업을 통해서 영상 하나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모습으로 마무리되는지… 그래야 더 당당하게 '진짜 재활용돼요'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고…시민들 한 명 한 명의 삶 안에서도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운동도 하고 있다고 하는 게 저의 목적인데…” → 개인 활동가의 성찰과 주도적 실천이 조직 문화와 혁신으로 확장가능할 때 커뮤니티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음.
	조직 이미지의 전환과 공공성과 실천성의 점점 확인의 필요	(예) “우리 조직은 맨날 반대만 해, 싸워… 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바꿔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또 도전하기도 했어요.” → 전통적 투쟁 중심 시민단체의 이미지를 삶 속 실천과 연계된 포용적 브랜드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시민행동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구조적 조건 개선에 기반한 접근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예) “종이팩 분리배출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수거함이 없어서고, 두 번째가 잘 몰라서다… 우리가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 시민참여의 불편함을 생각할 때 물리적 조건의 미흡함(예: 수거함 부재, 정보 부족)을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소통적 리더십과 네트워크 기반의 자원 확장을 경험	(예) “‘사람과환경’이라고 하는 수거 업체가 지금 선별기도 자동 선별기가 들어와요. 그러면서 광주에 있는 종이팩이 전주로 올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지금 고민하고 계세요.” → 타 단체 및 관계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자원을 적극적으로 연결하고 확장하는 역량의 중요성 경험

2. 농촌쓰레기 자원순환 대상

(1) 개별 사례의 진리표 구성

〈표 3-10〉 프로그램 전반부 농촌쓰레기 자원순환 조직

분석 항목 사례	시민 주도 캠페인 (C)	정부/정책 지원 강도 (G)	공동체 조직화 수준 (O)	네트워크 확장성 (N)	제도적 실험장 존재 (L)	파급효과 정도 (R)	사회적 규범 강도 (S)	임팩트 창출/확산 (I)
4	3	2	3	2	2	3	2	2
5	3	2	2	2	2	2	1	2

- 사례4는 생활 기반의 실천에 바탕을 둔 자원순환 운동의 유형이라 볼 수 있으며, 여기에는 기존에 구성된 공동체를 자원순환을 염두하여 재구성(재조직)이 함께 진행되고 있었음. 또한 쓰레기 문제라는 일상적 불편에서 출발해 주민 주도의 시스템 설계와 공동의 실천으로 확장되고 있었음.
- 이 과정에서 공동체 내부의 신뢰 회복과 관계의 재구성, 외부 자원과의 연결을 통해 자생적 확산 기반이 움텄음. 농촌쓰레기 자원순환의 제도화는 아직 초기 단계라 할 수 있지만, 사회적 감수성과 실천의 진정성이 주민 인식과 참여를 변화시키는 핵심 동력으로 확인되고 있어 농촌형 커뮤니티 혁신 모델이라 말할 수 있음.

〈표 3-11〉 사례4의 분석 항목과 개방 코딩 내용

분석 항목	개방 코딩 내용
시민 주도 캠페인	농촌 쓰레기 문제를 주민 스스로 정의하고, 수거·분류·교육까지 공동 설계하며 실천 주체로 작동함
“처음엔 그냥 마을에 쓰레기 너무 많아서 보기 싫다, 이거 누가 좀 치워줬으면 좋겠다였는데… 결국 우리가 직접 나서서 분류하고, 수거함도 만들고, 교육도 하게 됐어요.” “이건 우리가 직접 해보자고 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냥 불편하다고만 하지 말고, 우리가 바꿔보자고요.” “마을회관 앞에 분리수거장 만들고, 거기서 매주 같이 모여서 분류하는 날을 정했어요. 처음엔 몇 명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나와요.”	
정부/정책 지원 강도	군청 및 읍사무소와의 협력은 일부 실현되었으며, 제도화 가능성을 모색 중이나 구조적 연계는 제한적
“지자체에서도 꽤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이런저런 걸 하고 있는데 정작 이게 마을에 닿지를 않는 거예요… 이걸 조금 부드럽게 만나게 하는 역할이 활동가의 역할이 아닐까?” “처음에는 행정이 잘 안 움직였는데, 우리가 데이터를 모아서 보여주니까 반응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같이 회의도 하고 있어요.”	

분석 항목	개방 코딩 내용
공동체 조직화 수준	마을회, 부녀회, 청년회 등 다양한 주민조직이 자원순환 활동에 참여하며 공동체 기반 실천이 강하게 작동
	“공방 분위기가 엄청 좋아요. 언니들이 와서 되게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고 가세요… 수리모아도 같이 만들고, 마을에서 긴급한 수리 요청이 있으면 연결해 주고 있어요.” “주민들뿐 아니라 동네 가게, 학교, 복지관까지 다 같이 참여하고 있어요. 이제는 마을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 느낌이에요.” “마을에서 환경에 관심있는 분들 초대해서 마을 차원의 행사로 만들어 보자고 해서 돈도 조금 보태주시고 이번에 크게 했는데 어쨌든 분위기가 좋았어요. ...(중략)...마을의 모든 단체가 다 참여해 준 거예요. 우리 모아 팀이 뭔가 일을 꾸렸는데 다른 마을들도 많이 오고 우리 마을 주민들도 거의 다 오고 심지어 군수, 군의원, 면장 등 다 왔어요. 이게 무슨 공식 행사처럼 한 게, 마을의 환경축제가 되었어요.” “공방 모임에서 언니들이 처음엔 머릿수 채우러 오셨는데… 지금은 힘든 일 털고 가는 장소 됐어요.”
네트워크 확장성	인근 마을, 농협, 지역 복지기관 등과의 연계가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타 지역 벤치마킹 요청도 있음
	“홍천복지관하고도 환경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다른 마을에 강의도 나가고 있어요. 군수도 오고, 군의원도 오고, 공식 행사처럼 됐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이걸 해보고 싶다고 연락이 오고 있어요. 우리가 했던 방식이 참고가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이장님들 사례도 접하고 다른 마을 사람들과 연결해서 축제도 함께 해봤어요.”
제도적 실험장 존재	마을 단위 수거체계가 실험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군 단위 정책 반영을 위한 논의가 시작됨
	“지자체에서도 노력은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지만… 주민들과 잘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시범사업이지만, 이걸 시 정책으로 만들 수 있을지 논의 중이에요. 행정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파급효과 정도	마을 내 인식 변화, 쓰레기 분류 정확도 향상, 타 마을 확산 가능성 확보 등 실질적 변화가 나타남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주변에서 ‘물걸리 요새 되게 핫한 것 같고 활발해졌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별거 아닌데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처음엔 몇 명만 하다가 지금은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애들도 학교에서 배워서 집에서 부모님한테 알려주고요.”
사회적 규범 강도	‘함께 치우는 마을’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며, 쓰레기 분리배출이 공동체 규범으로 자리잡는 중
	“이 활동을 하면서 싫어하셨던 분들이 지금은 모아지기로 활동하고 계세요… 직접 해보니까 ‘이거 돈이 안 되네’ 하시고 나서는 마음이 달라지셨어요.” “이제는 분리배출을 안 하면 눈치 보인다는 말도 나와요. 그만큼 다들 신경 쓰고 있다는 거죠.” “사람은 밥을 같이 먹어야 돼… 그 다음에 (쓰레기 자원순환 관련) 좋은 말이 귀에 들어가요.” “예전에는 관심도 없었는데 지금은 그냥 ‘쓰레기’ 주제 하나라도 마을이 활발해졌다고들 해요.”
임팩트 창출/확산	군청, 농협, 환경단체, 지원기관(예: 숲과나눔) 등과의 협력이 형성되어 실천을 뒷받침함
	“숲과나눔 덕분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었어요… 복지관, 군청, 다른 마을들과도 연결되고 있어요. ...(중략)...환경축제하면서 다른 마을 분들도 초대하고, 우리만의 스타일로 해보고 싶었어요.. 지금은 농약 문제까지 연결해서 학습하고, 더 넓게 문제 해결 방안 생각 중이에요.”

- 사례5의 경우에는 농촌 쓰레기 문제를 공동체가 정의하고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자원순환형 커뮤니티 혁신 모델의 사례로, 농촌에서 발생하는 특유의 무단투기 현상, 소각, 분류 미흡 문제를 주민 주도의 실천과 공동 설계로 해결하고 있는 과정에 있었음.
- 이 과정에서 공동체 내 마을회 중심의 조직화, 지역 기관과의 연계, 군 단위 정책 제안으로 자생적 확산을 위한 기반이 형성되고 있었으며, 이는 사례4와 마찬가지로 지역주민 지도의 실천 → 인식 변화 → 제도의 실험 → 지역 확산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었음.

〈표 3-12〉 사례5의 분석 항목과 개방코딩 내용

분석 항목	개방 코딩 내용
시민 주도 캠페인	시민이 문제를 인식하고 직접 실천을 설계하며, 지역 내 자원순환 구조를 주도적으로 형성함 (예: 장바구니 공유함 설치, 종이팩 세척 교육 등 자발적 캠페인 실행)
	“분리배출 교육, 장바구니 들고 다니기 캠페인하고... 7개인가 슈퍼에다가 공유 장바구니함 같은 걸 마련을 해놓고 거기다가 천 장바구니를 비치해 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A마트에서 그 장바구니를 사용하고 C마트에 가까운 데 갖다 놓을 수 있게... 한 3년 정도 운영했는데 나중에 한 250장의 천 장바구니가 다 없어졌어요. 회수가 안 되더라고요.” “우유팩을 제가 그 전에 산내 아닌 다른 학교 가면 그냥 먹고 난 다음에 그냥 안 씻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 가면서부터는 그 우유팩을 다 씻어 가지고 가위로 잘라서 다 펼쳐서 말려서 이렇게 딱딱 하는 걸 보더니 애들이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걸 따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농촌쓰레기 분리배출을 대신해 줄 수는 없으니까, 스스로 해서 버리고 그 다음에 좀 분리배출할 수 있는 인식을 자발적인 의지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저는 일단은 크게 보면 그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쓰레기 배출장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주민들 설문조사도 하고 시민들 모여서 공청회도 하고 이제 시에다 계속 요청하면서 마을 분리배출장이 설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남원시 전체로 보면 이렇게 마을마다 분리배출장에 설치되어야 하는데, 면 단위에서는 산내면 말고는 사실은 없어요. 저희가 계속 요구하면서 이렇게 된 상황이거든요.”
정부/정책 지원 강도	지자체와의 협력 및 행정적 수용이 일부 실현되며, 제도화 가능성을 모색 중
	“면사무소나 이런 데서도 많이 이제 면장님이나 지원을 해 주시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내려와서 이거 해야 된다고 하는 것만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되지는 않은 부분이니까...” “4대 보험은 이제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안 들고 이렇게 했는데 숲과나눔에는 여기 세무 업무 봐주시는 분이 나 회계사분이 또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도움을 받아서 4대 보험 처리하는 것에 대한 도움들을 많이 받았어요.”
공동체 조직화 수준	주민, 상점, 학교, 행정 등 다양한 주체가 연결된 강한 커뮤니티 기반 실천 구조 존재함. 농민회, 귀촌자 단체 등 다양하나 내적 분절 존재
	“농민회에서 이걸 주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썩 좋지는 않아요. 농사만 집중하시는 분들은 ‘굳이 우리가 나서서 해야 될까’ 하시고, 하지만 공동체 활동도 같이 하시는 분들은 매우 공감하시고...” “이장단 회의에서 계속 얘기하고, 이장단 회의를 통과되어서 이장들하고 개별적으로도 소통하고 만나고, 뭔가 트라이를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었고...”
네트워크 확장성	지역 외부 단체 및 기관과의 연계가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타 지역 확산 가능성 보유
	“산내 전체 마을로 확대해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된 거예요. 저희가 지금 총 18개 마을 중에 12개만 하고 있거든요. 뽕사골 쪽은 다 빠졌는데... 지금 분리배출하는 데 빠진 6개 마을 쪽은 여전히 일회용이 엄청나게 나와요.”

분석 항목	개방 코딩 내용
제도적 실행장 존재	시험사업이 행정 시스템과 연결되어 일부 제도화되는 데 노력 중. 정책 반영을 위한 구조적 논의 진행 중 “더 발전되면 이게 제도화되는 게 저희 목표죠. 이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이번에 했던 그대로 되는 거가 목표가 아니라, 같이 얘기를 해서 태도나 시스템이 좀 만들어지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파급효과 정도	지역내 실천 확산과 인식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일부 마을에서 페트병 분리배출 80% 이상, 행사 시 일회용품 최소화) “분리배출장이 말을 배출장이 그냥 깨끗하게만 보이면 다 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직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지금 보면 한 80% 이상은 페트병도 되게 깨끗하게 라벨 제거한 상태에서 버리거든요.” “그전에는 마을 체육대회나 이렇게 하면은 전시의 일회용 식기에 식당에서 까는 비닐 천 있잖아요. 그거 깔고 종이컵에 나무 젓가락에 그래 갖고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었는데, 작년에는 그때 행사에서는 굉장히 적었거든요.”
사회적 규범 강도	아직 개별적으로 실천의 편차가 큼. 규범적 내면화의 미비 “제가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 나 이제 분리배출 안 할 거야. 이런 얘기까지 들어요. 뭔가 자기가 아니다 싶거나 자기가 불이익을 얻었다는 생각이 들면 그런 개인적인 감정이 앞서서 거를 봤거든요.” “왜 이거를 개인이 하느냐, 나라에서 인원을 써서 쓰레기 버리면 쓰레기장에서 인건비 주고 그 사람들이 라벨도 해야지, 왜 이걸 국민들한테 시키느냐.”
임팩트 창출/확산	일부 마을 성공, 면 단위 확대 시도가 있음. “저희가 해온 마을은 잘 정착됐고, 산내면 전체 마을로 확대하려고 했어요. 분리배출하고 라벨 제거까지 같이 실천하면서 이제 주민들이 스스로 관심갖고 참여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죠.” “초등학교에서 우유팩 씻어서 펼치고 말리는 거 시범 보이니까, 아이들이 따라하고 저학년은 선생님께 부탁해서 가위질 부탁드리는 식으로 바뀌었어요.”

(2) 집합적 임팩트 수준의 분석

○ 사례4, 사례5의 내용을 바탕으로 커뮤니티 혁신의 조건·맥락과 그 구체적 예시 및 함의를 제시하였음.

〈표 3-13〉 사례4, 사례5의 커뮤니티 혁신의 조건·맥락과 함의 종합

조건과 맥락	예시 및 함의
문제를 생활 속에서 정의하고, 공동으로 해결하려는 의지	(예) “생활의 문제에 대해 내가 느낀 문제를 마을 주민들과 뭔가 같이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해결해 보고...”, “그냥 불편하다고만 하지 말고, 우리가 바꿔보지요.” → 커뮤니티 혁신은 외부 주도의 캠페인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가 불편을 인식하고 문제를 정의하는 데서 출발하며, 문제의식은 공동의 실천과 자율적 구조 설계로 이어질 때 혁신의 동력이 됨.

조건과 맥락	예시 및 함의
공동체 내부의 신뢰와 조직화된 실행력	(예) “공방 분위기가 엄청 좋아요. 언니들이 와서 되게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고 가셔요... 수리모아도 같이 만들고...”, “주민들뿐 아니라 동네 가게, 학교, 복지관까지 다 같이 참여하고 있어요.” → 커뮤니티 혁신은 공동체 구성원 간의 신뢰와 협력 구조가 있을 때 지속가능하며, 부녀회, 청년회, 학교, 상점 등 다양한 주체들이 역할을 나누고 함께 실천할 때, 일회성의 실천이 아닌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임.
실천이 제도와 연결될 수 있는 활동가의 연결적 상상력	(예) “지자체에서도 꽤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정작 이게 마을에 닿지를 않는 거예요... 이걸 부드럽게 만나게 하는 게 활동가의 역할이 아닐까?”, “지금은 시범사업이지만, 이걸 시 정책으로 만들 수 있을지 논의 중이에요.” → 커뮤니티 혁신은 단순 실천을 넘어서 활동가의 연결적 상상력을 필요로 하며, 주민이 만든 기준과 수거 방식, 교육 콘텐츠 등이 행정 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외부 자원과의 유연한 연계	(예) “숲과나눔 덕분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었어요... 복지관, 군청, 다른 마을들과도 연결되고 있어요.”, “기업에서 포장재 줄이는 걸 같이 고민해줬고, 학교에서도 교육 자료를 같이 만들었어요.” → 커뮤니티 내부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원기관, 기업, 지자체, NGO 등 외부 자원과의 연결이 중요하며, 이때 중요한 것은 외부 주도의 개입이 아니라, 내부 실천을 존중하고 확장하는 방식의 연계임.
실천이 규범으로 자리잡는 문화적 전환의 확인 필요	(예) “이제는 쓰레기 아무 데나 버리면 눈치 보여요. ‘같이 치우는 마을’이라는 말이 진짜 생긴 것 같아요.”, “이제는 분리배출 안 하면 눈치 보인다는 말도 나와요.” → 커뮤니티 혁신은 행동의 변화뿐 아니라, 인식과 규범의 변화를 동반할 때 비로소 완성되며, “눈치 보인다”, “이제는 다들 한다”와 같이 사회적 규범의 형성을 보여주는 지표에서 자원순환에 대한 사회문화적 전환의 시그널을 읽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3. 지원조직 대상

(1) 개방 코딩 분석

○ 사례6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단이 소기의 사업 목표의 달성과 사회적 임팩트 창출 및 확산을 위해 높은 수준의 시민 자발성과 행정을 지원하고 사업수행단 대상의 투명한 정보 공유를 통해 본 사업이 보다 안정적이고 자율적인 시민사회 실천 모델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나타남.

- 주요 개방 코딩 내용으로는 크게 문제인식의 차이와 복잡성(제도와 현실의 간극, 지역성과 분산된 문제 해결), 시민의 자발성 지원, 제도적 연계성, 학습과 전문성 강화의 노력, 네트워크 확장성 지원, 정보공유의 지원 부문으로 도출할 수 있었음.

〈표 3-14〉 프로그램 전반기 사례6의 개방 코딩 분석

개방 코딩 내용
문제 인식의 차이와 복잡성1: 제도와 현실의 간극
“종이팩은 재활용률이 너무 낮다 보니까 … 그래서 잘 안돼, 심각해, 해결해야 돼,라는 전제가 있었는데 … 영농폐기물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영농폐기물은 그냥 일회성으로 한 4년 전 5년 전에 한 번씩 하시고 그냥 연구 발주 용역하시고 만 경우에 가까워요. 나중에 관계자들과 이야기 나누어 보면 특별히 할말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도와 현실은 같이 항상 가는 것 같은데 … 제도적 토대가 마련된 후에 이제 이게 진행이 되는 거겠죠.” “종이팩은 종이류로만 재활용을 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 이런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환경부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규제를 좀 바뀐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문제 인식의 차이와 복잡성2: 지역성과 분산된 문제 해결
“중앙에서 뭔가 하나의 솔루션을 찾는다는 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 … 지역별로 그 지역에 맞는 어떤 문제 인식과 해결 방안을 찾는 게 조금 더 유효할 것이다.” “예를 들면 홍천 같은 경우는 농약병과 농약병에 들어 있는 남은 농약을 버리는 장소가 다르거든요. 수거 체계가 다 이런 문제부터 문제를 발견했고.”
시민의 자발성 지원
“지금은 약간 나름의 확신을 갖고 있는 건 시민들이 어쨌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 우리 그래도 뭐라도 하나 성공 케이스를 만들어보자라는 저는 그 굉장한 의미가 우리의 힘으로 작은 거 뭐라도 해보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 6월에 이제 좀 맛있는 공간에서 무대에 다 이제 어떤 스피커로서 초청을 하고 …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작은 성취의 기쁨을 누리면서 이 활동을 하게 되는 보람과 의미를 좀 지속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각각 진행되기보다는 좀 연결돼서 시너지가 나게 하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활동에 필요한 리소스들을 협업을 해서 같이 만들게 한다거나. 같이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여기에서 이 정책을 같이 우선하는 거에 대한 뭔가 확신이 있는 거죠.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걸 해결하는 게 먼저야라는 동의와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제도적 연계성(행정 제도와와의 연결 의지 및 실질적 협력 실현)
“종이팩에 이제 3년에 걸친 전체 목표는 변화를 지속시키는 것, 그게 이제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는 것 … 분리배출 지침 개정까지 가자, 이것을 저희의 사업 목표로 보고 있고 그걸 달성하는 게 이제 성과가 될 것 같습니다.”
학습과 전문성 강화 노력
“이번에 중간보고서 받아봤는데 7팀 중에 숫자 맞춘 팀 두 팀밖에 없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 제가 맞춰드리고 이제 맞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약간 그런 데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이게 컬렉티브 활동이 되고 자원순환 시스템을 개선해야 돼,라고 하면서 지금 나의 문제가 그 시스템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다 보니까 … 파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농작물의 종류에 따라 신규 영농폐기물도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 알고 있어야겠다 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필요한 것들 그때 그때 공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계속 이런 이슈 클리핑이라고 해서 그 기사를 일단 저는 키워드 설정해서 계속 받아보거든요. … 농촌쓰레기도 리포트 다 찾아가지고 공유하고 공부하고는 있긴 해요.”

개방 코딩 내용
네트워크 확장성 지원
“시민사회도 이런 공공기관이라든지 기업을 협력의 대상으로 전혀 보지 않았는데 저희 사업을 통해서 만남의 횟수가 증가하면서 이제 이런 거는 같이 할 수 있겠구나 … 서로의 역할과 장점을 좀 인식하게 된 것 같아요.” “이 정책 포럼 자체가 시민사회의 강력한 활동 내용이었던 정책화에도 목적이 있어요. … 산업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시민사회에서는 다소 약했던 뭔가 약간 비즈니스 네트워크 같은 그런 성격도 있더라고요.”
정보 공유의 지원
“예를 들면 수거량을 데이터 지역별로 나눠진 거 그런 거 이제 현장 단체에서 일일이 이렇게 OO 같은 데 전화해 가지고 물어보면 대답도 잘 안 해주고 … 제가 OO의 팀장과 이제 좀 더 스킨십이 있으니 이제 필요하면 몇 번이고 다시 요청을 하면 되거든요.” “그냥 계속 이런 이슈 클리핑이라고 해서 그 기사를 일단 저는 키워드 설정해서 계속 받아보거든요. … 농촌 쓰레기도 리포트 다 찾아가지고 공유하고 공부하고는 있긴 해요.” “농작물의 종류에 따라 신규 영농폐기물도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 알고 있어야겠다 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필요한 것들 그때그때 공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 집합적 임팩트 수준의 분석

○ 사례6의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집합적 임팩트라고 볼 수 있는 커뮤니티 혁신에 대해 매우 실천적이고 다층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례6의 참여자들은 사업수행단들이 단순히 지역 공동체의 일원이 아닌, 사회적 문제 해결의 주체이자 제도 변화의 능동적 촉진자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를 통해 사례6의 참여자들은 제도와 현실, 중앙과 지역, 시민과 정부(지자체)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실험적 공간으로서의 커뮤니티 혁신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음(〈표-15〉 참조).

〈표 3-15〉 프로그램 전반기 사례6의 집합적 임팩트(커뮤니티 혁신)에 대한 인식

문제 해결의 실험지이자 주체
“중앙에서 뭔가 하나의 솔루션을 찾는다는 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 이제 지역별로 그 지역에 맞는 어떤 문제 인식과 해결 방안을 찾는 게 조금 더 유효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저희가 3월에 홍천도 가고 4월에는 이제 산내도 가고... 이거는 지역에서 하는 게, 지역에서 포럼을 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더라고요. 이거를 거기 사는 분들의 목소리로,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 커뮤니티는 단순한 수혜 대상이 아니라,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 방안을 실험하는 주체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영농폐기물(농촌쓰레기) 주제와 같은 지역 기반 문제는 중앙이 아닌 지역 커뮤니티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제도와 현실을 연결하는 매개
“종이팩은 되게 생각보다 정말 이해관계자들의 전부 다는 아니지만,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주체들이 그래도 이제 좀 내적 친밀도도 생기고 우리 좀 뭔가 해보자 그리고 서로 그래도 도움을 주고받아서 이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 커뮤니티 활동은 제도 개선을 위한 실험적 기반이자, 제도 변화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현실적 근거로 작용하고 있었음. 대표적으로 종이팩 사례는 시민들의 자발적 실천이 제도 개선을 견인한 사례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임.
협업과 학습의 장
“시민사회도 이런 공공기관이라든지 기업을 협력의 대상으로 전혀 보지 않았는데 저희 사업을 통해서 만남의 횟수가 증가하면서 이제 이런 거는 같이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거는 여기가 해야 되겠구나하는 서로의 역할과 장점을 좀 인식하게 됐어요.” “이 정책포럼 자체가 시민사회의 강력한 활동 내용이었던 정책화에 관심이 많아요... 산업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시민사회에서는 다소 약했던 뭔가 약간 비즈니스 네트워크 같은 그런 성격도 있더라고요.” → 커뮤니티는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의 역할과 관점을 이해하고, 협업을 통해 새로운 해결 방식을 모색하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었음. 특히 시민사회와 산업계, 공공기관 간의 협업이 커뮤니티 기반 포럼을 통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제3절 이해관계자 면접조사 분석

1. 종이팩 자원순환 대상 개방 코딩 분석

- 종이팩 자원순환 부문 이해관계자 8명을 대상으로 종이팩 자원순환 사업참여단과의 연계 활동의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보았으며, 크게 참여 동기 및 계기, 종이팩 자원순환의 가치 인식, 활동 중의 어려움, 외부 지원 및 협력에 대한 인식, 보람과 변화 양상의 인식, 정책 및 제도 개선의 요구의 측면에서 제시할 수 있었음.
- 각각의 개방 코딩 내용에 해당하는 주요 인터뷰 내용을 제시하여 범주화(개념화)하였으며, 시민참여 자들과 전문가(1명)는 다양한 의견의 양상을 보여주었음.

〈표 3-16〉 종이팩 자원순환 이해관계자 대상 면접조사 개방 코딩 분석

개방 코딩 내용
참여 동기 및 계기
(교육을 통한 문제 인식, 호기심과 실천 의지 생김) “교육이라는 거를 통해서 필요성을 되게 느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내가 집에서 이렇게 종이팩을 모은다든지 실천은 분명히 해볼 수 있지만 기존에 했던 거랑 조금 다르게 조금 폭넓게 활동을 할 수 해볼까 라는 약간의 욕심이라고 해서...” “환경 강의를 듣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학교 활동으로 이렇게 집어넣게 된 거예요.” (환경문제에 대한 공감과 실천 기회, 대외활동으로서의 접근의 용이성) “항상 환경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을 하면서도 직접적으로 활동을 한 적이 없었어요... 대외 활동을 통해서 임시적으로 가입해서 할 수 있는 형태였기에 부담 없이 활동할 수 있겠다 싶어 가지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면서 굉장히 많은 우유팩이 나오는 걸 보면서 저 우유팩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걸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친구한테 제안을 하고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현장 경험에서 비롯된 문제 의식, 가족의 생활 속 분리배출 경험,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실천의지) “종이류 같은 경우는 우유팩이나 이런 물질이 있고 음식물이 있는 것도 종이하고 한꺼번에 이렇게 분리수거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거를 가지고 와서 다 소각을 하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워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셔서 가지고 병원에서 뉴케어라는 두유 같은 그거를 매일 이제 두 팩씩 드시는데... 종이류에다가 버리면서... 안타까워하던 중에 작년에 000 선생님을 만나 뵈면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알게 돼 가지고요.” (조직 내 역할 분담에 따른 자연스러운 참여, 지역 내 자원순환 포럼을 통한 연계) “제가 처음 들어오고 조금 사업을 다시 분배하는 과정에서 저에게 한번 맡아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이 와 가지고 그냥 하게 됐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맡고 있고 종이팩 관련한 이슈를 계속 다뤄 왔었고...” (실업·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자활 기반으로서 자원순환 관심 시작, 공공이 책임지지 않는 자원순환 영역에 대한 문제의식 생김, 시민 실천 플랫폼과 외부 환경 변화의 결합 필요함) “IMF 실업이라는 빈곤이라는 부분에 대한 타개책으로,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장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게 자원순환이라는 개념이라서 시작한 부분이 있어요. 결국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원순환이라는 걸 약간 도구처럼 활용했었어요.” “공공에서 책임지지 않는 이런 섹터 영역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까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종이팩이었거든요.”
종이팩 자원순환의 가치 인식
(미래 세대를 위한 실천, 자존감 향상, 시민의식 확산) “종이팩은 되게 실용적으로 재활용이 되는구나. 그게 확 와닿으니까 종이팩은 꼭 나도 완벽하게 분리수거 해보고 싶고...” “이게 깨끗하게 자원순환돼서 굳이 이렇게 쓰레기를 우리가 수입 안 하고 우리 자원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환경보호의 실질적 실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시민참여) “결국 저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사회적 가치는 환경 보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장님한테 이 분리수거 방식을 이런 식으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권유를 한다거나 할 수 있는 사소한 행동들은 이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려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활동 이후에도 개인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은 따로 또 동참할 수 있는 활동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질적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 공동체 실천의 긍정적 영향,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감)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이 지구가 조금이라도 낫지 않을까 하면서 기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가 좀 더 어느 순간에는 멸망하지 않아. 근데 이제 이 시기를 늦출 수 있는 일을 같이 참여하고 있다는 데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개방 코딩 내용
(환경적 가치와 경제성의 균형에 대한 생각, 자원순환 품목으로서의 실용성 체감) “종이팩이나 멸균팩이 음료 부분에서는 플라스틱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대체할 수 있는 거여 가지고 자연스럽게 플라스틱 소비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환경 문제에 관련된 거는 단순히 경제성만 보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투자하고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선 통합적 가치 추구, 지속가능한 순환사회로의 전환 필요) “종이팩 같은 경우는 시민 실천 플랫폼을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들이 큰 차이가 있어요.” “자원순환이라는 것 자체가 문화적, 윤리적 소비, 교육 이런 가치들이 다 통합적인 지속가능한 순환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측면에서 자원순환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활동 중 어려움
(시민들의 부정적 인식과 현장 노동의 어려움) “시민분들이나 현장에서 일하시는 경비분들께서 우리가 기껏 하면 뭐 해 이거 다 갖다 그냥 한꺼번에 모아서 쓰레기로 버리잖아...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우유팩 함에 이제 쓰레기 놓는 분들도 계시고 그랬거든요... 그 인식이랑 이런 참여도 이런 게 바뀌어야 할텐데...” (대면활동의 심리적 부담, 시민의 무관심 또는 무응답) “카페 주인을 대상으로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반응이나 부정적인 반응이나 어떤 반응도 하지 않고 아예 무응답으로 반응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카페에서 회원분들이 물리는 시간대를 피해서 방문을 드려야 말이라도 꺼내볼 수가 있었거든요... 방문할 수 있는 시간대가 많이 짧다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경비인력의 업무 과중과 입주민 참여 부족 등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 발생) “경비 반장님들이 원래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이 남아 있으면 또 물로 씻으시기도 하고, 그런 게 이제 다 품으로 드니까... 입주민 전체로 번져야 되는데...” “이 사업도 제가 알기로는 계속할 수 없고 어느 순간에는 종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속할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확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시민의 분리배출 피로감, 종이팩 처리 과정의 복잡성, 수거시스템과 시민 인식 간의 간극 존재) “종이팩은 특히 멸균팩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을 제거하고 또 씻고 펼치고 하는 그 과정이 다른 품목보다도 훨씬 더 복잡해가지고...” “종이팩이라는 게 추가되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1차적으로 있고, 또 한 번의 부담감이 시민들의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경제성 부족으로 인한 지속가능성 위협, 시민 인식 부족과 수거 시스템의 부재) “공공도 책임지지 않고 기업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저희 같은 데들이 이걸 먼저 시작을 해요. 근데 이걸 버티는 것들에 한계가 있는 거죠.” “종이팩 같은 경우도 한 1년 해봤더니 억대의 손실이 났어요.” “종량제 봉투나 폐지로 혼입돼서 수감을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식이나 홍보 개선이 안 되는구나.”

개방 코딩 내용
외부 지원 및 협력에 대한 인식
(시청의 제도적 지원) “시청에서 직접 가져갈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냥 했던 분들도 이제 시에서 이제 해 이런 인식이... 든든한 백 같은...” (운영진의 피드백과 가이드 제공, 현장 대응을 위한 실시간 소통) “지소행 분들께서 저희가 작성한 활동 일지를 보고 매주 피드백 같은 거를 주셔가지고 그게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카페 사장님들이 물어보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답변을 할 수 없을 때 매니저 분들께 연락을 드려서 좀 전달을 해드리는 식으로 진행이 됐고... 빠르게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원활하게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역 활동가의 전문성과 헌신, 예산 및 물적 지원의 필요성, 주민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필요) “땃골마을의 000 선생님이 이제 만나 뵙고 제안해 주셔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을 진행하면서 워낙 프로페셔널하게 잘해 주셔서... 그분들이 단지 봉사만으로 하지 않는 어떤 예산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보 물품이나 비용 같은 게 있나 여쭙봤더니 거의 없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이 일을 하실 때 봉사의 마음으로 하시겠지만 그런 거에 지원되는 예산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자원순환 정책 포럼을 통한 협업, 지자체와의 실무적 연계 가능성,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한 학습 가능) “자원순환 정책 포럼이라는 실행 기구랑, 지역의 행정, 시의회 의원님들, 자활센터, 청소 대행업체 등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기구를 운영하고 있고...” “회의할 때 모르면 그냥 물어보면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다 알려주셔가지고...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시민사회단체와 기업과의 연대, 시니어클럽 및 강사 양성 등 다층적 협력 구조 뒷받침) “멸균팩협회랑 MOU를 맺고 거기서 지원받고... 테트라팩코리아에서도 환경을 담당하는 아태지부가 있어요... 홍보물 제작 등 이런 데에서는 지원들을 많이 받았어요.” “전주시 시니어클럽에서 60명 정도는 직접적으로 종이팩을 수거했어요. 20명 정도는 강사 활동했는데, 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했거든요.”
보람과 변화의 양상
(가족의 변화와 자원순환의 실체 확인) “우리 애들도 이제 엄마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 나가면서 내 주위에서 이렇게 조금 바뀌고 있구나 느꼈어요” “나는 ‘지구를 지키는 어벤저스야’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게 진짜 뭔가 자원순환이 되는 거야?’ 라는 게 이제 눈으로 보이니까 보람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실천의 확산 가능성 체감, 개인적 성장과 태도의 변화) “거절을 당했지만 내가 상대에게 이걸 알렸구나 하는 게 크게 와닿더라고요... 이후로 활동에 좀 진정한 의미를 더 크게 느끼게 됐고 좀 더 활동에 다른 마음가짐으로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했던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 카페였는데, 그럼에도 하겠다고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앞으로는 일단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경험이었어요.” (가족 간의 인식 변화, 자녀와의 긍정적 관계 형성, 주민 간 소통의 계기 마련) “딸아이하고 대화를 할 때 얘기를 해줬더니 엄마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진 것 같은 기분,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계기로 오셔서 ‘너는 이렇게 했니’ 이런 얘기도 좀 더 하시게 되고... 그런 부분이 좋은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사회문제 해결과 기업 성장의 병행, 지역 내 최초의 대안 제시와 구조 전환 실감) “사회 문제 해결이었고 수익성이 안 나는 측면에서 접근했는데... 수익이 나는 과정까지 성장을 시켰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크기도 하고...” “전주시에서는 선별장이라는 개념이 없고 다 매립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기면서 이걸 선별하고 재활용 과정이 생겼었고...”

개방 코딩 내용
정책 및 제도 개선의 요구 (제도화의 필요성,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띤 자원순환 제도의 필요) “정말로 정책이 돼서 이제 우유팩도 자원순환이 너무 절실하다, 우유팩도 이런 항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종이팩이나 멸균팩에 대한 재활용 분리도 약간 이렇게 홍보도 많이 하고 약간 일종의 강제성도 조금 가져서 이제 좀 완전히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분리배출 체계의 명확화, 시민인식 개선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실천 유도형 인센티브 필요) “종이팩이 따로 분리수거가 되어야 하는 건데 종이에 같이 버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분리수거 잘못된 분리수거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활동을 하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종이팩이라는 한 카테고리기가 이제 분리수거 체계에 명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걸 목표로 활동이 진행이 되었고요.” (분리배출 체계의 제도화, 교육과 홍보의 강화 필요) “학교에서부터 교육이 좀 이루어지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지속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당연하게 받아들일 때, 여기서 일어난 일들을 서로 공유하고 대화도 하고 왜 하는 지도 알고 이런 과정이 다 보람으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분리배출 시설 및 처리 시스템 개선 강화 필요, 조례 제정과 행정 현실 간의 조율 필요, 시민의 부담을 줄이는 구조적 접근 필요) “배출하는 과정에 대한 그 부담이 워낙 있어서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례상으로 조금 다양화하는 거를 해볼까 생각을 했었어요... 행정에서는 그렇게 늘려놓은 품목도 그대로 수거가 안 되는 상황이어 가지고...” “지금은 너무 시민분들한테 ‘잘 버려주세요’ 하는 게 좀 큰 것 같아가지고...” (지자체와 기업의 책임 강화 필요, 조례 제정과 수거 시스템의 제도화 강화) “지침과 환경부의 지침과 지자체의 조례를 개정해서 우유팩을 의무 수거하게끔 해야 되는 것들이 중요하지만 제도만 가지고는 50%밖에는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이예요.” “이 프로젝트를 1년짜리 프로젝트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2~3년 단위로 지원하고 그 변화의 폭을 봐야 되지 않을까...”

2. 농촌쓰레기 자원순환 대상의 개방 코딩 분석

- 농촌쓰레기 자원순환 부문 이해관계자 6명(지역주민 4명, 지자체 구성원 2명)을 대상으로 농촌쓰레기 자원순환 사업참여단과의 연계 활동의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보았음.
- 각각의 개방 코딩 내용에 해당하는 주요 인터뷰 내용을 제시하여 범주화(개념화)하였으며, 지역주민들과 지자체 구성원 간에는 다른 내용의 개방 코딩 내용으로 범주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각각 별도의 표로 제시하였음.
-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는 크게 참여 자발적 참여와 리더십 수용, 비공식적 규범의 형성과 작업의 분업, 다소의 사회적 저항과 협업의 진화, 지역 환경 변화에 대한 자부심, 고령화 일자리로서의 의미, 비용과 효율의 간극에 대한 인식 등의 측면에서 제시할 수 있었음.
- 지자체 구성원을 대상으로는 크게 주민 주도 실천에 대한 제도적 인식, 환경 변화에 대한 체감과 주민 인식 전환, 행정의 수동성 및 책임 회피 문화, 주민과 행정 간 소통 부재의 측면에서 도출되었음.

〈표 3-17〉 농촌쓰레기 자원순환 이해관계자(지역주민) 대상 면접조사 개방 코딩 분석

개방 코딩 내용
자발적 참여와 리더십 수용 (지역 기반의 자기 주도적 리더십의 초기 형성) “쓰레기를 모아 오다 보니까 거기에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모아짱으로 한 거예요.” “또 누가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줘야지 뭐...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자발적 공동체 실천의 동기) “마을관리자라는 이 업무를 올해 1월부터 시작했어요. 업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마을 구성원이니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좀 자발적으로 해보려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좋은 프로젝트를 열어서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예요.” (주민에 의한 자발적 수거 및 계량을 통한 실태 파악) “그래서 제가 이제 요일별로 이렇게 돌면서 수거를 해서 비닐하우스를 배치한 게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모아놓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제가 무게를 재고 분리 안 된 것들을 다시 분리하고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해서 통계를 내 봤어요.” “일단은 아마 한국 최초의 면 단위의 쓰레기 배출량에 대한 통계가 아닐까 싶어요.”
비공식적 규범의 형성과 작업의 분업 (실천 속에서 생성되는 규칙과 전문화) “누구는 깡통을 하고 누구는 병을 고르고... 다 자기의 전문성이 생겨나고 이렇게 맞아요. ...(중략)...시스템이 딱 처음부터 자 이렇게 된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희한하게 자연스럽게 생겨나더라구요.”
다소의 사회적 저항과 협업의 진화 (공동체 내 인식의 전환 과정) “처음에는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죠. 근데 반대하던 사람도 지금 우리랑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개방 코딩 내용
지역 환경 변화에 대한 자부심 (환경 개선을 통한 공동체 자긍심) “전에 이거 시작하기 전에는 쓰레기가 그냥 길에 막 널려 있고 엉망이었어요... 지금 길 옆에 쓰레기 하나도 없어요.” “쓰레기 천국을 그래도 깨끗한 마을로 만든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고령화 일자리로서의 의미 (사회적 가치: 농촌쓰레기 자원순환과 고령자 일자리의 연계) “다른 사람들은 노는 날 나는 나와서 돈을 벌잖아.” “이런 노인 일자리가 마을에서도 많이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자원순환의 지속가능성을 어렵게 하는 요소 (경제적 효율성과 활동 지속가능성의 긴장) “고철도 우리가 따로 또 팔아서 우리 자금으로 쓰니까. 작년부터 모은 게 한 차 될 거야. 그거 싼고 갔다가 20만 원도 안 돼.” (농촌 현실에서의 비닐 농자재 확대와 처분의 딜레마) “비닐 두둑을 지어 썩워서 나온 것이 그때부터 이제 농촌에도 비닐을 사용업에 많이 됐잖아요. 그로부터 엄청난 비닐 사용과 더불어 그것을 농촌에서 웬만하면 태웠지 사실 그대로 거짓말할 거 뭐 있어 옛날에는 거의 태웠어.” (정책 불신과 주민에 대한 신뢰 부족) “개발과 발전이 됐다는데 그 뭐 다시 재생을 한다든가 그게 아니고 바로 땅에 묻어버려요...” “나는 똑같다고 봅니다. 그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나 여기서 태우나 뭐 의미가 있나 똑같아.”
자원순환 실천을 위한 대안적 생활 환경(실험) (자원순환을 위한 생활밀착형 실천 대안 개발) “자전거 작업장이라고 마을에 마을 수리소 역할을 하는 것도 있고... 그 일하고 그다음에 마을 목공소 이렇게 두 가지 일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일은 쓰레기를 좀 덜 만드는 쪽으로 덜 만드는 것에 대안을 만드는 쪽으로 하고 있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 시스템의 간극과 주민의 보완적 역할 (제도적 공백을 메우는 주민 기반 인프라 실천) “분리배출의 경우, 각 마을마다 12개 마을마다 여기 아까 이 동네 마당 있는데 거기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제가 또 분리해 놓고, 거기 이제 놓아두면 남원시 수거 차량이 싼고 가는데 이제 그 일을 하고 있죠.”
주민 수용성 기반의 정책 설계의 필요 (고령화된 농촌 주민의 생활 현실의 반영 필요) “노인들 대부분 밖에 나서기도 힘든데 그런 문제까지 버려려 요일마다 종류별로 버린다는 게 얼마나 힘든냐... 시장으로 갈 때 요일별로 파일 하고 검수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주민 노력과 행정 처리 방식의 불일치) “남원시에서 수거할 때 다 썰어서 가버려요... (중략) 특히 이제 병하고 이렇게 비닐을 수거를 해도 종량제로 가져가 버려요... 저희들은 또 헛수고하는 거잖아요.”

개방 코딩 내용
(자원순환 불충분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은 있으나 시스템/실질적 대안의 부재) “나는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가락 꼬트머리를 바늘로 찌른다고 안 아픈니까? 아 프쵸. 그러면 지금 쓰레기 매립을 이 대한민국이 이 땅이라면 남한의 여기에다가 묻었던 말입니다.”
마을관리자와 주민 교육의 효과 (교육과 보상의 결합이 실질적 효과를 촉진) “마을 교육 관리자들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줘서 단 10만 원이라도 그렇게 해서 이제 하면 그게 엄청나게 이제 효과가 있더라는 거죠.”

〈표 3-18〉 농촌쓰레기 자원순환 이해관계자(지자체 구성원) 대상 면접조사 개방 코딩 분석

개방 코딩 내용
주민 주도 실천에 대한 제도적 인식 (자발적 주민 실천에 대한 제도적 보완 시도) “우리 삼삼은구나 이렇게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하시는 일들을 보면 우리 행정에서는 따라 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저희들이 우리 행정에서 봤을 때 스스로 이렇게 마을에서 하는 그런 역할들을 더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정도의 그런 조례를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었고요.”
환경 변화에 대한 체감과 주민 인식 전환 (주민 주도 실천에 의한 환경 인식의 변화) “예전에는 도로가에 쓰레기봉투, 폐기물 건축 자재, 이런 게 막 군데군데 쌓여 있던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일단 깨끗해졌고...” “내가 이거 가지고 가서 쓰레기가 될 것은 아예 안 갖고 오려고 하는 습성이 생기지 않았나...”
행정의 수동성 및 책임 회피 문화 (행정의 소극적 수용 태도와 조직문화) “우리 행정이라고 하는 시스템에서 보면 자꾸 뭐 요구가 있거나 또 요청이 있을 때 조금씩 조금씩 이제 등 떠밀려가듯이 이렇게 가는 거라서 답답한 감이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은 이게 내가 할 일인가 이걸 모르는 것 같아요.”
주민과 행정 간 소통 부재 (주민 의견 반영 구조의 한계) 이제 어떤 공청회나 아니면 포럼 같은 걸 해서 우리가 사회 문제화하고 있는데, 제도로 시행하고 이러는 건 아직은 좀 부족한데...” “기회 있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그때는 좋은 생각이고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리고 이제 그다음에는 뭐 거의...”

제4절 2차 면접조사 분석

1. 종이팩 자원순환 대상 변화의 양상

(1) 개별 사례의 변화 양상

○ 사례7(사례1의 후반부 인터뷰)의 경우에는 각 분석 항목별로 변화의 구체적인 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음.

– 시민 주도의 캠페인은 단순한 참여를 넘어 정책 제안과 실행 기획으로까지 확장되며 네트워크의 외연을 넓힌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다양한 로컬 이슈와 연결된 활동들이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 시민 주도의 임팩트가 프로그램 전반부보다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다고 말할 수 있음.

<표 3-19> 프로그램 후반부 종이팩 자원순환 조직

분석 항목 사례	시민 주도 캠페인 (C)	정부/정책 지원 강도 (G)	공동체 조직화 수준 (O)	네트워크 확장성 (N)	제도적 실험장 존재 (L)	파급효과 정도 (R)	사회적 규범 강도 (S)	임팩트 창출/확산 (I)
1	3	2	3	3	3	3	2	3
2	3	3	3	3	2	2	3	3
3	3	2	2	2	1	2	2	2

주) 굵게 표기된 것은 프로그램 전반부 종이팩 자원순환 조직의 진리표를 기준으로 보다 강화된 인식 및 실천(수행)의 변화를 나타냄.

<표 3-20> 사례7의 분석 항목

분석 항목
시민 주도의 캠페인
(변화의 양상)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 전환과 실천을 촉진하는 활동. 교육, 홍보, 대면 설득 등이 포함됨. 초기에는 수거 중심의 시민 실천에 무게를 두었으나 후기에는 구조적 인식 개선 캠페인으로 전환됨. 서포터즈 활동을 통한 간접 실천 유도과 메시지 전달이 중심이 됨. “162개 카페가 참여를 하겠다고 해서 분리배출을 시작했죠.” “서포터즈들은 많은 카페들을 섭외 시도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드리거든요.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는 이유는 종이팩이 종이기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분석 항목
정부/정책 지원 강도
(변화의 양상) 프로그램 초기에는 구청과의 협조가 어려웠으나, 후반에서는 정책적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한 소통의 노력이 더욱 요구됨. 즉, 초기에는 지자체의 방어적 태도가 관찰되었으나, 후기로 갈수록 지속적 소통과 전략적 협상 시도가 조금씩 달리진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여전히 행정 영역의 비협조적 태도가 장애물로 존재하는 것 역시 확인되었음. “청소행정과 000 주무관이나 팀장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쪽은 관심이 없어요.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 종이팩 사실 개인적으로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연락하는 거죠. 진짜 되는 거 맞죠? 계속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나서서 하고 있는데도... 너무 또 애네가 기분 나쁘지 않게 부담스럽지 않게 그 수준을 지켜가면서 소통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동체 조직화 수준
(변화의 양상) 프로그램 초기에는 조직 차원에서의 대응 및 실험이 시작 단계였으나, 후기에는 서포터즈 조직화 및 커뮤니티 중심 교육·홍보 활동 등 체계화된 실천으로 진전되었음. “서포터즈 활동에서 종이팩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분명히 메시지는 전달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종이팩은 이러한 문제로 분리배출되어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담아서 비닐을 카페들에게 드렸기 때문에...”
네트워크 확장성
(변화의 양상) 프로그램 초기에는 포럼 참여 중심이었고, 후기에는 협력 강사 초청, 교육 콘텐츠 공유, 다른 지역 활동가와의 지속적 연결 등으로 확장되었음. 즉, 단순한 정보 교류 수준을 넘어 타 단체와의 협업, 프로그램 외부 협약, 교육 강사 초청 등으로 연결 범위가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음. “유어스텝 000 님에게 부탁드렸는데 일정까지 바꾸면서 와주셨어요. 교육을 다채롭게 만들어주셔서 엄청 감사했고...” “정책 포럼에서 만났던 HRM 000 팀장님을 만나서 멸균팩 회수와 관련된 협약을 맺고 회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제도적 실험장 존재
(변화의 양상) 서포터즈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사용자 여정 지도 작성, 종이팩 분리배출 구조 설계 등 다양한 제도 실험이 시도됨. 구체적으로 초기에는 자원봉사 중심 수거 활동 위주였고, 후기에는 사용자 여정 설계, 교육 기획안 발표, 파일럿 제도 운영 등 실험 성격이 강화됨. “사용자 여정 지도를 그린다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서포터즈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섭외까지 하고 그 과정들을 다... 진짜 이거는 준비를 하면서 머리 아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2기 때는 소스 아이디어 내고 중간에 종이팩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획안 작성을 조별로 했었거든요. 기획안을 발표해서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6개 조가 다 다른 주제로 진행하고...”

분석 항목
사회적 규범 강도
(변화의 양상) 참여자의 인식 변화 및 참여 방식의 확장으로 자원순환 실천이 시민 규범적 행위로 차차 자리잡고 있었음. “기후 행동 실천이라는 게 그 내용 자체가 별로 없고… 그런데 이 짧은 기간에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떤 변화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실천을 했을 때 뭔가 이런 효능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효능감을 좀 줄 수 있었던 표현인 것 같아서…”
임팩트 확산
(변화의 양상) 단순 재활용률 향상을 넘어서, 환경 교육, 정책 제언, 실행 기획안 등 다층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로 연결되었음. “기획안을 팀 미팅을 하고 발표해서, 진짜 아까울 정도로 문제의식이 다 담겨 있어서 3기 때 구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기후 시민으로서 뭔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요. 활동하는 데도 많이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기업에 바라는 점이나 구청에 바라는 점, 아니면 시민들이 해야 할 일등, 구현할 수 있는 방법들로 한번 꺼내볼까 하고 있어요.”

- 사례8(사례2의 후반부 인터뷰)의 경우에는 시민 주도의 캠페인 관련, 초기에는 개별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에 머물렀지만 점차 제도적 한계를 인식하고 구조적 변화로 나아가는 것으로 나타났음.
- 아직은 제도적 실행 역시 구상과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 제도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의 인식 변화와 함께 사회적 규범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시민은 단순한 참여자를 넘어 변화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으로 제 역할을 하고 있었음.

〈표 3-21〉 사례8의 분석 항목별 변화의 양상

분석 항목
시민 주도의 캠페인
(변화의 양상) 프로그램 초기에는 시민 주도의 캠페인은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나, 제도적/구조적 한계로 인해 분절적이고 고립된 형태였음. 또 활동가는 자원봉사 수준에서 활동하며 시스템 개선보다는 지역 내 한정된 실천에 집중한 측면이 있었음. 그러나 후반기로 갈수록 종이팩 수거, 선별, 분리과정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실천적 과제가 늘어났으며 변화의 운영 주체로 나서며 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기 시작함. “각자의 노력은 굉장히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각자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나 뚜렷했고 그 영역을 넘어서기가 너무 어려웠어요...(중략) 참여하는 사람들도 OO동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동에서 참여했고, 공익적인 활동에서 자기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는 자기 일처럼 막 나서면서 활동하게 됐고요... 다들 척척척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시민들이 공공에 계속 가서 이거 해줘라 저거 해줘라 자꾸 막 요구해요. 이제는 얘기를 하면 쉽게 쉽게 가더라고요.”

분석 항목
정부/정책 지원 강도
(변화의 양상) 프로그램 초기에는 정책 지원이 주로 개별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며, 아직은 지속가능성과 정책 전환이 미약했음. 그러나 후반기로 갈수록 시민 및 단체의 요청을 계기로 시 행정과 공공기관이 점진적으로 응답하며, 입찰 구조 변경 및 조례 제정 등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짐. “지자체가 실행하기 위한 제도화 정책을 어떻게 제안할 것인가를 주요하게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이런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좋은 사업들이 시도됐다가 사장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OO도시공사도 툭툭거리면서도 해줄 거 다 해주셨어요. 종이팩 입찰도 해 주셨고 OO시청 자원순환과도 처음엔 ‘잘해보시오’ 스탠스였지만 요청하면 빨리빨리 해주고” “조례 만드는 것에 있어서도 되게 애써주셨고...정책이 하나 만들어지기 위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관여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공동체 조직화 수준
(변화의 양상) 공동체 조직은 기존 네트워크 중심으로 제한되어 있었고, 새로운 외부 참여자 유입이나 교차 협업은 어려운 상태였음.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시민 기반 활동가가 확대되고 지역 단위 경계를 넘어 시 단위 조직화로 진전되었으며, 외부 인지도까지 강화되었음. “기존에 우리 마을학교 활동가들 또 하던 사람이 또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과 같이 하게 될 수 있었는데 다양한 지역에서 제가 잘 모르던 활동가들이 참여할 수 있었고” “이건 우리 동네 사업이 아니라 OO시 사업이니까 우리 동네에서만 꼼짝꼼짝하지 않아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참여자의 폭을 열어놓고 활동가들을 모집했어요.” “땃골마을학교나 이런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곳이 있다는 걸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었다가 이제는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된 게 아닌가 해서 되게 뿌듯해요.”
네트워크 확장성
(변화의 양상) 프로그램 전반부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했지만, 실질적인 네트워크 결합이나 역할 분담은 부족한 측면이 있었음. 조직 간의 실무 연계, 지역 간 협력 네트워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며, 지속가능성과 파급력 있는 구조로 전환되었음. “저희는 이 사업을 직접 받은 곳은 경기환경운동연합이고... 실제로 실무를 맡고 진행한 곳은 땃골마을학교인데요. 활동가들의 폭이 넓어졌어요.” “참여하는 사람들도 대화동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동에서 참여했다 그랬잖아요. 공익적인 활동에서 자기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고... 우리가 어쨌든 계속 가서 이거 해줘라 저거 해줘라 요구하다 보니, 이제 얘기를 하면 쉽게 가더라고요.”
제도적 실험장 존재
(변화의 양상) 프로그램 전반부에는 정책 제안과 제도화 가능성을 위한 실험적 접근이 구상 및 준비 단계에 머물렀으나, 후반기로 갈수록 해당 실험적 접근이 실질적인 수용 및 적용으로 전환되며 제도화 가능성의 실질적 진전을 확인하였음.

분석 항목
“지자체가 실행하기 위한 제도화 정책을 어떻게 제안할 것인가를 주요하게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게끔 지금 시범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고 시민의 아이디어로 이런 시범사업들이 진행이 되어 왔고…” “이번 컬렉티브를 통해서도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 제안과 제도 마련을 통해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갔어요.” “공동주택에서 이러한 조건에서 ‘종이팩은 따로 시에서 수거할게요’라는 조건을 말을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주택이 많지 않았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도 받아들이고…”
임팩트 확산

(변화의 양상)
임팩트의 확산이 주로 수거량이라는 정량 지표와 제도의 반영이라는 거버넌스 확산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있었음. 그러면서도 차차 주민조직과 실무 주체의 확장이라는 활동 기반의 확산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여 질적 성격의 전파력이 강조는 양상으로 관찰되었음. “〇〇시가 맨 초창기에 대략적으로 한 저희가 이제 시작할 때 한 15톤 정도 모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2020년 2021년에는 150톤 가까이 이러한 효과들을 이제 가지고 오게 됐죠.” “저희 땃골마을학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활동가들의 폭이 넓어졌어요. 이 사업 하나로.”

- 사례9(사례3의 후반부 인터뷰)의 경우, 초기에는 시민 주도의 캠페인에 있어 실행력에 대한 의문이 있었지만, 점차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역 내 연결망이 갖추어지면서 실질적인 실행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또한 이 과정에서 마을회관이나 지역 모임 등 생활권 내 공간을 활용한 참여 기회가 확대되면서, 시민들은 단순한 수용자가 아닌 변화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었음.

〈표 3-22〉 사례9의 분석 항목별 변화의 양상

분석 항목
시민 주도의 캠페인
(변화의 양상) 시민참여의 실질적 실행력에는 의문이 있었던 측면이 있었지만, 직접적인 시민 주도의 실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지와 연결의 역할을 강화해 갔음. “시민들의 준비가 과연 얼마만큼 됐을까… 그런데 단지를 돌아보면서 느낀 건 종이팩 수거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소에서 종이팩 수거함을 따로 만들어서 놓는 데도 있었어요.” “저희가 단체의 역할에서는 그 중간 다리의 역할을 계속 연결해 주는 역할로 저는 어찌 보면 지역사회 내에서는 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들긴 해요.”
정부/정책 지원 강도
(변화의 양상) 지자체와의 갈등과 불신이 존재했으나 점차적으로 소통 체계를 갖추려는 변화가 관찰되었음.

분석 항목
“〇〇시가 계속 환경을 훼손해요. 그래서 계속 싸우고 있어요.” “문제 제기를 했는데 반응이 없거나 이런 거하곤 달리 그래도 뭔가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보여지는 것 같아서…”
임팩트 확산
(변화의 양상) 전반기에서는 제도 변화까지의 연결은 기대 수준에 머물렀으나, 후반기에서는 실제 조례 개정 및 제도 기반 구축이 진행되었음. 또한 프로그램 전반기에는 종이팩 수거에 대한 시민 인식이 부족했으며 ‘수거함이 없어서 안 한다’는 정도의 반응이 대부분이었으나, 후반기로 갈수록 자발적으로 종이팩 수거함이 설치되고 운영이 확산되는 양상으로 관찰되었음. “조례까지 바뀌는 것까지만 말해도 마무리해도 저는 어찌 보면 지역사회 내에서는 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들긴 해요.” “관리소에서는 종이팩 수거함을 따로 만들어서 놓는 데도 있었어요. 그게 누군가가 가져가서가 아니라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269개 정도가 다 깔렸거든요. 아파트 66개 단지에 다 깔려서 이제 이거는 나름 노력했다는 생각이 좀 들고…”

(2) 집합적 임팩트 수준의 분석

- 사례7(사례1의 후반부 인터뷰), 사례8(사례2의 후반부 인터뷰), 사례9(3의 후반부 인터뷰)의 경우에는 종이팩 자원순환의 문제를 통해 기존 시민운동이 정치적 의제 중심에서 생활 기반 실천과 제도 전환에 기반한 커뮤니티 혁신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제시하였음.
- 이를테면, 환경 NGO의 투쟁 중심 운동에 초점을 맞추었던 조직이 실천 기반의 매개자형 시민 운동으로의 변모까지를 고민하고, 시민과 활동가 간 연대를 통해 보다 파급력 있는 임팩트를 확산하고자 하였음.

〈표 3-23〉 사례7, 사례8, 사례9의 커뮤니티 혁신 변화의 종합

조건과 맥락	예시 및 함의
종이팩 자원순환에 대한 시민의 문제 인식의 전환	(예) “이해 당사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 분담이 되지 않았던 과거에서…” → 초기에는 시민들이 각자 자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공공적 의제로 전환되며, 종이팩 자원순환은 시민뿐 아니라 기업·행정이 함께 다뤄야 할 ‘공적 커먼즈(common)’의 문제로 자리매김되었음.
종이팩 자원순환의 실천 행위 주체가 참여자→협력자→변화의 기획자로 서서히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남	(예) “이건 우리 동네 사업이 아니라 〇〇시 사업이니까 다양한 지역에서 제가 잘 모르던 활동가들이 참여할 수 있었고”, “지속가능하게 우유팩을 모아가지고 기업에게 보낼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제안했고 지자체가 움직이게 하기 위한 제도화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목표예요.” → 참여자들이 단순 실천자에서 벗어나 정책을 제안하고 제도 설계까지 시도하는 수준으로 성장하였음. 또한 활동가는 마을 단위에 머물지 않고 시 단위의 공론 형성자로 진화함.

조건과 맥락	예시 및 함의
처음에는 시범사업이었으나 지금은 제도 설계의 실험장으로 변모하고 있는 상황	(예) “2025년부터는 종이팩과 폐지류는 따로 나누어서 입찰을 받겠다… 쉽게 쉽게 잘 되더라고요” → OO에서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OO에서는 새로운 지자체 제도 설계를 위한 정책 실험장의 역할을 수행 중. 이는 공동주택 수거 방식과 입찰 구조 등에 영향을 미쳤음.
시민의 실천을 통한 종이팩 자원순환의 사회적 학습의 강화	(예) “어르신들이 이걸 여기다 버리고 이걸 저기다 버린다고 알려주면 고맙다고 하세요… 내가 이걸 한다고 재활용이 되나, 하시면서도 믿음이 생겨요.” “시민들과 함께 해서 변화를 만드는 시민 실천인데, 시민 실천 운동을 우리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더 저변으로 더 내려가서 활동하는 시민의 감성에 맞게 그런 운동을 더 해보고 싶은데...” →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학습을 통해 인식의 전환을 이루고 있음.
조직 정체성의 변화와 중간자 역할의 강화	(예) “원래 우리의 스타일은 뭔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런 정신이었다면, 이 자원순환 종이팩은 진행하면서 우리가 약간 중간자 역할을 해야하더라고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더 좀 낮은 참여로, 시민참여형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좀 한 단계 진입했다고 해야할까요.” → 기존의 조직이 갖고 있던 투쟁 중심의 이미지를 넘어, 시민 친화적이고 협업 중심의 실천 활동으로 방향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자체 평가함.

2. 농촌쓰레기 자원순환 대상 변화의 양상

〈표 3-24〉 프로그램 후반부 농촌쓰레기 자원순환 조직

분석 항목 사례	시민 주도 캠페인 (C)	정부/정책 지원 강도 (G)	공동체 조직화 수준 (O)	네트워크 확장성 (N)	제도적 실험장 존재 (L)	파급효과 정도 (R)	사회적 규범 강도 (S)	임팩트 창출/확산 (I)
4	3	2	3	3	3	3	2	3
5	3	2	3	3	3	3	2	3

주) 굵게 표기된 것은 프로그램 전반부 농촌쓰레기 자원순환 조직의 진리표를 기준으로 보다 강화된 인식 및 실천(수행)의 변화를 나타냄.

(1) 개별 사례의 변화 양상

- 사례10(사례4의 후반부 인터뷰)의 경우에는 시민 주도의 캠페인이 농촌 지역의 쓰레기 문제를 계기로 시작되어, 마을 공간을 중심으로 한 공동 관리와 주민 간의 자발적인 협력으로 발전해왔음을 알 수 있음.
 - 주민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대화를 통해 점차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새로운 유형의 공동체 내 신뢰를 쌓아가는 점이 특이할만한 사항으로 분석되었음.
 - 또한 아직 정부나 정책 차원의 지원은 제한적이었지만 오히려 주민들 스스로가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면서 자율성과 책임감이 강화된 측면도 살펴볼 수 있었음. 이러한 흐름 속에서 마을 주민들은 개인

- 수준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조직 문화가 움트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음.
- 한편 일상적인 관계망을 바탕으로 한 소규모 네트워크(예: 비니루없는점빵이 중심이 되는 연결망)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고, 이는 주민 간의 유대감을 높이며 캠페인의 지속성과 확장 가능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됨.

〈표 3-25〉 사례10의 분석 항목별 변화의 양상

분석 항목
시민 주도의 캠페인 (변화의 양상) 프로그램 전반기에는 농촌쓰레기 문제를 인식하고 마을 공간을 활용한 공동 관리를 시작하였으며 점차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마을 간담회가 조직되고 주민 중심의 대화와 공감이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쓰레기를 관리해야겠다. 도시하고는 다르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관리하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공간을 만들어서 같이 관리를 하면서 시작하게 됐고요.”
정부/정책 지원 강도 (변화의 양상) 프로그램 전반기에는 정책적 지원에 대한 언급은 미미하며 문제 해결의 주체는 시민 내부로 한정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간담회를 통해 정책 전달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나타남. “이걸 정리해서 군의회를 찾아뵙기로 했거든요.”
공동체 조직화 수준 (변화의 양상) 마을 주민들과의 이전과는 다른 관계가 형성되며 다른 차원의 상호 간 신뢰가 움트기 시작했음. “마을 사람들 간의 관계가 생활쓰레기 처리할 때랑은 다르게, 골치 아픈 문제를 같이 해결하기 위한 동료 같은 느낌이 생기더라고요.”
네트워크 확장성 (변화의 양상) 프로그램 전반기에는 개인 단위의 작은 모임을 기반으로 한 실천이 주로 눈에 띄었다면, 군의회 등 제도권 및 주민 다수와의 연계로 확장해 나가는 양상이 관찰됨. “마을 분들을 초대해서 얘기를 정리해 가지고 군의회를 찾아뵙기로 했거든요.”

○ 사례11(사례5의 후반부 인터뷰)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후반부로 진행되면서 다양한 측면에서의 변화의 양상이 나타났음. 시민 주도 캠페인은 단순한 인식 개선을 넘어 실제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도로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음.

- 정부 및 정책 지원은 단순 사업비 지원을 넘어 사무국의 적극적인 고민과 포럼 개최를 통해 제도화 및 현실적인 도움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질적인 향상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음.
- 한편 사회적 규범의 강도와 관련, 쓰레기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생겨났으나, 여전히 책임 전가나 ‘국가가 할 일’이라는 인식이 잔존하며 실천적 규범으로의 전환은 더딘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임팩트 확산은 지역 내 유사 사업의 급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제로웨이스트 샵 등장과 같은 특정 분야의 움직임, 그리고 전국적인 환경 활동 정보 공유를 통해 잠재적 확산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임.

<표 3-26> 사례11의 분석 항목별 변화의 양상

분석 항목
시민 주도의 캠페인
(변화의 양상) 프로그램 전반부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주도하여 농촌쓰레기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 및 개선 요구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음. 후반부에서는 단순한 주민 참여에서 나아가 제도적 제언 및 실현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 지역에 쓰레기 수거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이런 현상과 현장의 상황을 행정이 아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문제의식을 주민들이 공감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한 다음에 주민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먼저 되게 공을 들어서 좀 하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정부/정책 지원 강도
(변화의 양상) 프로그램 전반부에는 행정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나 제도화된 지원보다는 일시적, 비공식적 지원이 주를 이루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점차적으로 참여조직은 행정과 제도 활용에 대한 이해가 고도화되면서 행정과의 긴밀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저는 되게 다른 지원 사업하고는 좀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다른 데는 그냥 우리가 좀 뭐랄까 공모사업 지원금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미션을 수행하면 끝인데 네 여기는 이거를 진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사무국에서도 스스로 공부하고 지원을 어떻게 해줄까 다각적으로 도움을 주고 특히 이런 포럼은 저는 정말 되게 이번에 포럼하고 너무 좋았거든요. 이런 자리를 마련해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현실로 만들고 제도화하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사무국에서도 굉장히 끊임없이 고민하고 거리를 마련하고...”

분석 항목
공동체 조직화 수준
(변화의 양상) 프로그램 전반부에는 농민회 전체 차원에서 쓰레기 문제를 다루는 것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부분도 있었음. 또한 공동체가 활성화되어야만 쓰레기 문제 해결에 대한 논의가 수월하다는 인식이 서서히 나타나는 측면이 있었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쓰레기 문제가 가장 공통의 관심사로서 기능한다는 점은 강화되었으며, 이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단초로 활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가능성도 관찰되었음. “제가 일을 하면서 많이 느낀 거라고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공동체가 자체가 활성화가 되어야지만 조금 이게 얘기하기가 좋거든요.” “사람들이 뭐랄까 마음이 좀 닫혀 있거나 참여하거나 말하기를 주저하거나 아니면 비판받을까 봐 어떤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거나 뭔가 손해 보는 느낌이 든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그런 활동에 대한 보상이 다른 것들을 들어온 경험들이 안 좋은 것으로 쌓여 있을 때 공동체가 좀 활성화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네트워크 확장성
(변화의 양상) 프로그램 후반기로 갈수록 숲과나눔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활동가들의 활동을 접하고 정보를 얻으며 힘을 얻는 등 전국적인 단위에서 환경 관련 활동가들과의 정보 교류가 가능하다는 연대감을 가지는 것으로 관찰됨. “많이 유익하죠. 저는 거기에서 다른 분들이 하는 활동도 보는 것도 너무 도움이 많이 되고 힘도 나고 또 아이들도 생기고 이런 활동을 또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환경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구나 하는 또 정보도 또 알게 되고 너무 좋죠.”
제도적 실험장 존재
(변화의 양상) 프로그램 후반기로 갈수록 숲과나눔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활동가들의 활동을 접하고 정보를 얻으며 힘을 얻는 등 전국적인 단위에서 환경 관련 활동가들과의 정보 교류가 가능하다는 연대감을 가지는 것으로 관찰됨. “그전에는 그냥 주민들하고 알음알음하고 좋았다 박수 치고 잘했다 이렇게 평가했다고 치면, 이번에는 그거를 조금 더 공식화해서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거에 좀 성과가 있고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어떤 제도가 있고 그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고 누구랑 그런 얘기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파악했다는 측면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갔다고 해야 될까요?”
임팩트 창출/확산
(변화의 양상) 프로그램 전반부에는 산내면의 시범적인 분리배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산내 전체 마을로 확대해서 해볼 필요가 있다는 인식은 있었으나, 실제 확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족한 측면이 있었음. 하지만 차츰 남원에 제로웨이스트 샵이 생기는 등 특정 분야에서 유사한 움직임이 나타나며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전국적으로 환경 관련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됨으로써 긍정적인 임팩트 확산의 가능성을 시사하였음. “이런 활동을 또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환경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구나하는 또 정보도 또 알게 되고 너무 좋죠.”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붙어서 마을 곳곳에서 활발하게 이 문제를 얘기하고 파고들어서 집집마다 다니고 계속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활동가랑 조직화가 조금 더 결합이 된다면 요새 주민자치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거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좀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면 단위의 공동의 경험을 가진 굉장히 중요할...”

(2) 집합적 임팩트 수준의 분석

- 사례10과 사례11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후반부로 갈수록 숲과나눔을 통해 커뮤니티 혁신의 노력이 구체화되는 측면이 발견되었으며, 커뮤니티가 단순한 캠페인이나 개인적 노력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실험과 시스템 구축의 장(場)으로 거듭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커뮤니티 혁신으로 더욱 나아가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과제 역시 도출되었으며, 이는 여전히 변화를 가로막는 심리적, 사회적 장벽에 관한 것으로 몇몇 주민들에게서 관찰된 깊이 뿌리 박힌 회의적 인식과 관련됨.

<표 3-27> 사례10, 사례11의 커뮤니티 혁신 변화의 종합

조건과 맥락	예시 및 함의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실험과 시스템 구축의 노력	(예) “그전에는 그냥 주민들하고 알음알음하고 좋았다, 박수 치고 잘했다, 이렇게 평가했다고 치면 이번에는 그거를 조금 더 공식화해서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것에 좀 성과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고 누구랑 그런 얘기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나아갔다고 해야 될까요?” → 커뮤니티가 쓰레기 문제라는 현실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이를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만들고자 노력하는 과정이 엿보였음.

3. 지원조직 대상 변화의 양상

- 사례12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후반부로 갈수록 관찰되고 있는 지원조직의 변화의 양상으로, 숲과나눔에 참여하는 사업수행단의 자체적인 임팩트 창출 및 확산과 커뮤니티 혁신을 위해 어떠한 측면에서 그 변화의 양상이 엿보여지는지를 살펴보았음.
- 이러한 변화의 양상을 통해 중간지원조직이 갖는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와 함께 일부 프로그램의 발전 및 임팩트 창출 및 확산을 위한 과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이를테면, 여전히 복잡한 이해관계와 사회적 인식 변화라는 큰 과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28> 사례12의 변화의 양상 종합

분석 항목
문제 인식의 심화 및 구체화
(변화의 양상) 프로그램 전반부에서는 농촌쓰레기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전문가의 부재, 그리고 이해관계자 간의 이견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었으나, 후반부로 갈수록 농촌쓰레기 문제를 포함한 자원순환 문제 전반에 대한 조직적 미션 의식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이러한 유형의 사회적 문제의 해결이 단편적이지 않고 '뒷단'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산업적 연결을 포함한다는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분석 항목
“어쨌든 자원순환이 필요하고 관심 있는 여러 주체들과 이제 머리를 맞대면서 내가 되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일을 좀 잘 해내고 싶다는 생각은 점점 이제 이제 쌓이는 것 같아요.” “사실 그전에는 종이팩과 폐기물은 농촌 쓰레기는 관심 밖이었죠. 오히려 이제 시민사회에서 먼저 제안할 수 있는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시민사회가 약간 중심이 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게 되게 괜찮은 전략이었다는 생각도 해요. 정부 입장에서는 기업의 요구를 듣고 뭔가 정책을 바꾸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그게 시민사회의 요구라고 이제 했을 때는 좀 더 다르게 받아들이는 게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시민사회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게 되게 의미는 있더라 정도...” “뒷단에 이제 이제 산업이니까 산업이랑 연결되는 문제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씩 배워가면서 관계들을 좀 만들어 가면서 하고 있고...”
이해관계자 관여 및 네트워크 확장
(변화의 양상) 프로그램 전반부에는 농촌쓰레기 문제의 복잡성과 이해관계자들의 상이한 인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후반부로 진행되면서 이해관계자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을 가지는 여유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 프로젝트의 문제 해결의 키워드가 주요 이해관계자가 다 모여서 서로 문제점을 계속 공유를 하고 대안을 찾는 건데 이게 종이팩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빨리 그 네트워크가 좀 된 것 같아요.” “멸균팩협회나 테트라팩이나 이런 데도 어쨌든 거기는 이제 멸균팩에 포커스 돼 있지만 그래도 일단 그게 자원순환 회수력을 높이고 그 뒷단에 인프라 개발을하고 이런 것은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그런 식의 이제 파트너십까지 이제 저희가 조직화를 할 수 있었던 같아요. 그래서 그 지자체의 협약이나 이런 것들도 이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수거량을 높일 수 있겠다는 기대가 좀 있고요.”
성과 및 목표의 구체화와 실질적인 진전
(변화의 양상) 프로그램 전반부에는 종이팩 자원순환 문제의 경우 '분리배출 지침 개정'을 1순위 과제로 삼고 있으면서 일의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었으며, 농촌쓰레기 자원순환의 문제는 아직 문제 정의가 잘 되지 않은 편이어서 구체적 성과를 정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었음. 후반부로 갈수록 농촌쓰레기 자원순환과 관련해서는 시민사회의 주도적인 역할에 대한 강한 인식을 가지며 성과의 정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남. “오히려 이제 시민사회에서 먼저 제안할 수 있는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시민사회가 약간 중심이 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게 되게 괜찮은 전략이었다는 생각도 해요. 이제 저희가 나섰을 때랑 시민사회가 먼저 나서서 이제 여기 붙어라, 하고 이제 이렇게 듣는 그림이 좀 다른 것 같거든요.”
내부 학습 및 역량 강화의 인식
(변화의 양상) 프로그램 전반부에는 농촌쓰레기 문제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자료의 한계를 인식하며, 전문가 탐색의 어려움이 다소 관찰되었음. 후반부에는 여러 조직들과 새로운 미션을 수행하고 다양한 주체들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는 것까지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남. 이는 종이팩과 농촌쓰레기 자원순환 문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 개인적·조직적 역량이 성장하였음을 나타냄. “이제 다른 되게 이 문제에 관심 있는 여러 주체들과 이제 머리를 맞대면서 내가 되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일을 좀 잘 해내고 싶다는 생각은 점점 이제 이제 쌓이는 것 같아요.” “이제 조직에 들어와서 어쨌든 미션으로 주어졌으니까 이제 공부하고 하면서...”

제5절 소결: 내용 종합 요약

1. 종이팩 자원순환 조직

- 사례1, 사례2, 사례3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각 사례들이 시민 주도의 실천을 제도적 설계로 확장하고 다중 이해관계자 간의 실질적인 협력을 도모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사업단마다 자체적으로 조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는 시스템 전반에 개입하려는 공통적인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커뮤니티 혁신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전반부에는 어떤 종류의 문제로 인식하는지 탐색하고 이에 따른 협력이 상대적으로 단순하였다면, 후반부로 갈수록 시민의 주도성이 강화되고 보다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아울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각 사업단은 보유 조직역량을 다양한 측면에서 시도하고 배우며 지역 특유의 조건에 기반한 맞춤형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움직임이 관찰되었음.

〈표 3-29〉 사례1, 사례2, 사례3 간의 주요 내용 비교 요약

항목	사례1	사례2	사례3
시민 주도 캠페인	서포터즈를 통한 종이팩 배출 카페를 설득, 청년 환경활동가 양성에 초점	시민이 수거 실천과 정책 제안의 주체로 작동하며, 수용성 높은 모델을 공동 설계하는 단계임.	제도적 개선과 데이터 수집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시민참여가 두드러짐.
정부/정책 지원	아직은 제한적이며 구청과의 제도 협력 과정에서 지속적 설득 필요	지자체 실무자 수준의 제도 협력이 있으며, 제안이 정책 항목으로 반영된 사례가 존재함.	지자체 일부 부서의 실무 차원 협력은 존재하나, 행정-시민단체 간 갈등이 존재하고, 및 시스템 차원의 정책 지원은 미흡
공동체 조직화	전반적으로 매우 강함	시민·지자체·환경단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 시도가 활발한 편	전반적으로 공동체 조직화 전반적으로 매우 강함
네트워크 확장성	산업계 공공-비영리 연계로의 사업 기회 확장과 동기가 강화됨.	다양한 재활용 기업, 시민단체, 환경부와 연결된 전국 규모의 컬렉티브 연계 확대 중	지역 내 시민, 동 주민센터, 환경운동단체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나, 조직이 지향하는 완전한 거버넌스 수준까지는 아님.
제도적 실험장 존재	카페 지역 연계를 구축 중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음.	시범사업이 동 평가 지표로 반영되고 있고, 이를 전국 확산하려는 구조적 기획이 존재함.	수거 체계 실험, 평가 지표 반영 등 일부 제도 연계가 있으나 제도의 지속가능성은 제한적임.
파급효과 정도	자원봉사, 서포터즈 활동 등을 통해 시민이 주체적으로 기획·운영함.	시민 감수성이 증대하였고 보다 투명한 재활용 경로 요구가 나타나고 있음.	데이터 수집과 정책 피드백 시도는 지역 범주 내에서 파급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는 증거로 제시될 수 있음.

항목	사례1	사례2	사례3
사회적 규범 강도	아직은 초기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실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수거함의 자발적 설치, 설문 응답을 통한 시민의식 확인 등 생활 내 인식 확산의 토대가 형성되고 있음.
임팩트 창출/확산	수거 체계의 효율화에 대한 지자체와의 공동 협업이 발견됨.	지역 내 성공 모델의 타 지역 전파가 나타남. 이를 통해 사회적 인식과 시스템을 변화시키고자 함.	지역 기반의 실험이 다음의 아젠다로 확장되는 것에 대해 관심이 대단히 많음.

2. 농촌쓰레기 자원순환 조직

- 사례4와 사례5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각 사례들이 자체적으로 정의한 임팩트 창출에 도달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시민주도의 참여, 정부지원, 공동체 조직화, 파급력이 모두 존재하였던 것으로 파악되었음.
- 프로그램 전반기에는 이러한 조합이 임팩트 창출을 위한 충분조건으로 도출되었다고 할 수 있음. 한편 네트워크 확장성과 사회적 규범 강도는 임팩트 창출에는 유의미한 영향 요소로 꼽히지 않았음. 제도화나 문화적 내면화의 접근화는 임팩트 창출을 위한 강화 요인이 될 수는 있으나, 아직 임팩트 창출을 위한 핵심 경로로서의 구성 조건이 되기에는 미흡한 상황
 - 사례5는 아직 프로그램 전반부인 상황에서 특히 네트워크 확장이나 제도화 수준이 제한적이었고, 주민들의 규범적 내면화 또한 불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천 주체들의 자발성과 공공 자원의 적절한 연계, 내부 조직 기반의 안정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실질적 변화와 긍정적인 실행 성과를 차츰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3-30〉 사례4 및 사례5 간의 주요 내용 비교 요약

항목	사례4	사례5
시민 주도 캠페인	모아, 수리모아, 주민자치 기반의 상향식 캠페인 활발	장바구니, 우유팩 캠페인, 교육 실천. 다만 캠페인성 한계 존재
정부/정책 지원	숲과나눔, 지자체 자원 활용 적극	시청, 면사무소, 회계자문 등 제도 지원 확보
공동체 조직화	다양한 마을 주체 조직 존재, 내부 응집력 강함	농민회 및 귀촌자 단체 중심, 일부 내부 갈등 및 소통 미흡
네트워크 확장성	복지관, 외부 마을과의 연계 있음.	대부분 산내면 내부에서만 활동. 상대적으로 아직 외연 확장 미흡
제도적 실험장 존재	비영리단체 등록 시도. 제도화 초기 단계	제도화 목표는 명확하나 현실화를 위해 노력 중
파급효과 정도	군수 방문, 행사에 마을 전역 참여 등 파급 효과 강함	일부 마을 정착, 80% 분리배출 달성. 타 마을은 미참여

항목	사례4	사례5
사회적 규범 강도	밥 나눔, 정서적 관계 형성으로 규범 공유 진행	개인차 큼. 공동 규범으로 내면화되진 않음
임팩트 창출	'모아' 시스템, 이웃들의 공방 참여 등 자발적 확산	일부 마을 성과 있으나, 관광지 마을 등은 참여 거부

○ 사례5의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실천이 제도와 연결되고, 광범위한 지역이 순환경제의 실험장이 되는 커뮤니티 혁신 모델로 거듭나고 있었음.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이 문제를 정의하고 실천 행동을 자기 조직화하여 행정과의 협력 속에서 제도화를 시도하고자 하였음.

- 이 역시 사례4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주체가 연결된 공동체 기반의 실천이 지역 단위에서 작동되고 있었으며, 점차적으로 농촌쓰레기 자원순환 실천 → 정책의 제안 → 제도화 → 지역 확산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었음.

3. 지원조직

○ 사업수행단이 소기의 사업 목표의 달성과 사회적 임팩트 창출 및 확산을 위해 높은 수준의 시민 자발성과 행정을 지원하고 사업수행단 대상의 투명한 정보 공유를 통해 본 사업이 보다 안정적이고 자율적인 시민사회 실천 모델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나타남.

- 주요 개방 코딩 내용으로는 크게 문제인식의 차이와 복잡성(제도와 현실의 간극, 지역성과 분산된 문제 해결), 시민의 자발성 지원, 제도적 연계성, 학습과 전문성 강화의 노력, 네트워크 확장성 지원, 정보 공유의 지원 부문으로 도출할 수 있었음.

제4장

결론: 연구요약 및 종합 제언

제1절	연구 진행 및 결과 요약
제2절	시사점 도출 및 제언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탐색

4

결론: 연구 요약 및 종합 제언

제1절 연구의 진행 및 결과 요약

1. 연구의 진행

<그림 4-1> 초록열매 성과확산 프로젝트: 사업과 연구의 흐름 도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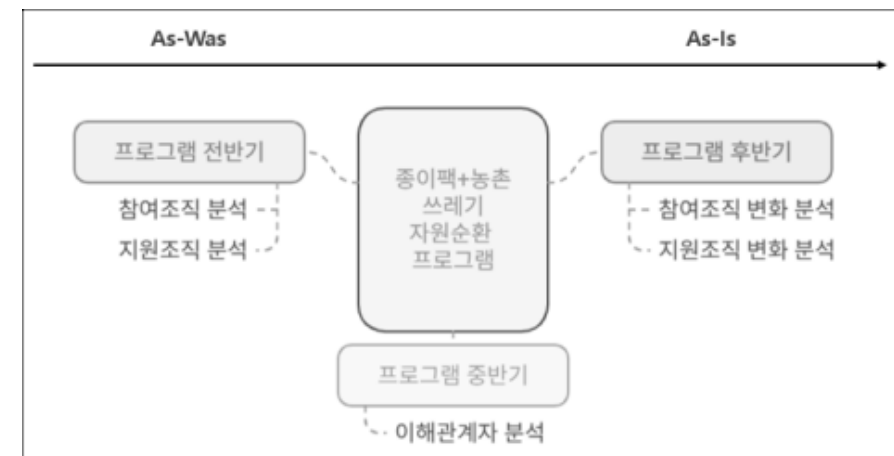


(1) 연구의 흐름 및 기간

○ 본 연구의 경우 <그림4-1>과 같이 2024년 10월 숲과나눔의 <2024 초록열매 성과확산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2024년 11월 킥오프를 가졌으며, 크게 2025년 2월 프로그램 전반부, 2025년 5월 프로그램 후반부에 걸쳐 동일 조직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2회 실시하였음.

- 이는 프로그램의 진행에 따라 참여조직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함이었으며, 총 37명이 참여하여 20개의 사례가 도출되었음. 임팩트의 창출 및 확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이번 2차년도 사업 참여가 지난 2023년 1차년도 사업에 이어 두 번째인 조직 <종이팩 컬렉티브>의 경우에는 주로 임팩트의 확산에 초점을 두어, 참여가 처음인 조직 <농촌쓰레기 컬렉티브>의 경우에는 주로 임팩트의 창출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고자 하였음.
- 주요 분석의 틀은 <그림4-2>와 같으며, 본 연구는 참여조직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 이외에도, 종이팩 자원순환과 농촌쓰레기 자원순환 활동에 참여하는 직·간접적 이해관계자들(지역주민, 전문가, 지자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집합적인 수준에서의 임팩트의 창출 및 확산을 살펴보고자 하였음.
- 특히, 본 연구는 참여조직이 자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개별 사례 단위에서의 임팩트를 살펴보았을 뿐만 아니라, <초록열매 성과확산 프로젝트>라는 하나의 구심점 속에서 연결된 네트워크를 특징으로 하고 있으므로 주제별(종이팩, 농촌쓰레기)로 나타낼 수 있는 집합적 수준의 임팩트 역시 살펴보고자 하였음. 이는 연구가 진행되면서 '커뮤니티 혁신을 바탕으로 한 순환경제의 발전'으로 수렴됨에 따라, 커뮤니티 혁신의 측면에서도 어떠한 양상이 관찰되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음.

<그림 4-2> 초록열매 성과확산 프로젝트 연구를 위한 분석의 틀



(2) 연구의 대상

○ 면접조사의 참여자는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업수행단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참여조직은 다음 <표4-1>과 같음.

<표 4-1> 면접조사 참여조직

구분	인원(명)	주제	대상	주요 내용
2월	1	종이팩+농촌 쓰레기	숲과나눔	· 프로그램 주요 참여자 대상 · 프로그램 전반기에 대한 인터뷰 · 종이팩 정책포럼 #10 <종이팩 재 활용률 13%, 반전의 시작>
	1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	종이팩	지구를지키는소소한행동	
	1		경기환경운동연합	
	1		전북환경운동연합	
	2	농촌쓰레기	삼삼은구	
	2		비니루없는점빵	
10명				
3월	3	종이팩	경기 시흥시 지역주민	· 프로그램 이해관계자 대상(지역주 민, 지자체 구성원, 시민 활동가, 전 문가 등) · 수거 모델의 확립(확산)과 관련, 프 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확인되는 촉 진/저해 요인 도출 · 농촌쓰레기 정책포럼 #1 <홍천군 폐농약 및 폐농약병 수거시스템 활 성화 방안>
	2		전북 전주시 전문가	
	2		중구 지역주민	
	1		중구 지자체 구성원	
	1	농촌쓰레기	홍천 지역주민	
	1		홍천 지자체 구성원	
	3		남원시 산내면 지역주민	
	1		남원시 산내면 지자체 구성원	
14명				
4월말~ 5월초	1	종이팩+ 농촌쓰레기	숲과나눔	· 프로그램 주요 참여자 대상 · 프로그램 후반기에 대한 내용 · 농촌쓰레기 정책포럼 #2 <남원, 마 을과 함께 농촌쓰레기 자원순환을 디자인하다> · 종이팩 정책포럼 #11 <지자체 주도 의 종이팩 자원순환 활성화 방안>
	1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	종이팩	소비자기후행동	
	2		지구를지키는소소한행동	
	2		경기환경운동연합	
	2		전북환경운동연합	
	2	농촌쓰레기	삼삼은구	
	1		비니루없는점빵	
13명				

2. 면접조사의 내용

○ 면접조사의 문항은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묻는 질문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본 프로그램에 갖는 참여의 의미, 사회적 임팩트(성과/영향력)의 의미, 사회적 임팩트를 확산하기 위한 참여조직들의 노력과 이에 수반한 어려움, 활동을 기반으로 관계를 맺은 이해관계자와의 상호작용에 대해 묻는 것으로 이루어졌음.

- 이러한 내용을 기본 질문으로 하되, 프로그램 전반기, 중반기, 후반기 그리고 참여조직의 주제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다른 내용의 면접조사 질문을 구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연구보고서의 부록1~6에 제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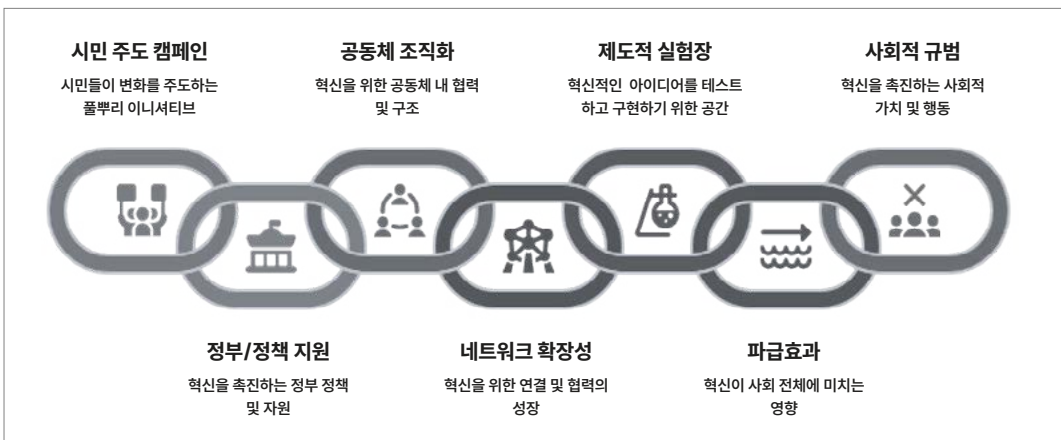
<표 4-2> 면접조사 질문지 예시(지원조직 대상)

구분	질문
참여의 의미	<2024 초록열매 성과확산 프로젝트>의 두 가지 주제 '종이팩'과 '농촌쓰레기'를 소재로 프로그램을 참여·진행해 오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회문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업을 전제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모색을 해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두 사회문제의 참여는 어떤 점에서 의미가 있나요?
임팩트 정의	지원조직으로서 소기의 성과는 어떠셨나요? 그러한 성과가 사회적으로 파생된 가치들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참여조직의 특성	참여하였던 조직들의 활동이나 문제 해결 사례 중심에서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은 것들이 있으세요? 주제별('종이팩 자원순환', '농촌 쓰레기')로 수렴되는 조직의 성향이나 특성도 있을까요?
프로그램 자원 노력	지원조직으로서 목표한 바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회고해 본다면 그 목표들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참여조직의 기여	지원조직으로서 참여조직들에 받은 도움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고 이유는 무엇인가요?
프로그램 발전을 위한 조언	본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다른 지원조직들(또는 관심있는 비영리 활동가)에 줄 수 있는 조언들이 있을까요? 그들이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프로그램 이해관계자와의 상호작용	종이팩 자원순환과 농촌쓰레기 자원순환이라는 사회적 실천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이해관계자를 만났을 텐데요. 참여조직 이외에 가장 도움을 받았던 분(조직)이 있으셨나요?
자유 의견	지금까지 이야기 해주시는 것들 중에서 덧붙이고 싶은 의견이나, 이야기나누지 않은 중요한 사항이 더 있을까요?

3. 연구분석의 틀

○ 본 프로젝트의 분석은 <2024 초록열매 성과확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업수행단의 개별 단위의 임팩트를 살펴보면서, 여기에 기여하는 공통 요소들을 살펴보고자 하였음.

<그림 4-3> 초록열매 성과확산 프로젝트의 집합적 임팩트(커뮤니티 혁신) 구성 요소



○ 여기에는 시민 주도의 캠페인, 정부/정책 지원, 공동체 조직화, 네트워크 확장성, 제도적 실험장, 파급효과(파급력), 사회적 규범과 같은 요소로 구성될 수 있었으며, 이들은 전체 사업수행단의 참여와 활동이 숲과나눔의 지원으로 하여금 커뮤니티 혁신(community innovation)이라는 집합적 수준의 임팩트로 수렴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음.

4. 문헌 분석의 요약

○ 자원순환과 임팩트 확산에 대한 이론적 관점

- 순환경제와 임팩트는 기술·디자인·시민참여·사회적 가치 등 복합적 시스템의 전환 과제로 인식되고 있음.
- 해외 문헌에서는 아직 자원순환과 임팩트 확산에 대한 정량적 평가 체계가 미비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이론을 바탕으로 사회적 연결성(connectivity), 사회적 피드백(시민사회의 동조, 협력 등)을 자원순환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하였음.
- 또한 AI, IoT 등 디지털 기술이 자원 추적과 쓰레기 불법투기의 억제 등에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실시간 정책 대응성과 수거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디자인 전략 및 정책적 흐름의 측면

- 스마트 패키지 디자인과 소재 효율화의 전략은 순환경제 제품 설계의 핵심 요소로 등장하였음.
- 사회적 네트워크 기반의 정책 설계는 시민참여형 자원순환 모델 구축의 핵심 전략으로 강조되고 있음.

○ 국내외 정책 및 사례 비교의 측면

- 한국은 AI 기반 기술 도입과 시민참여 확대를 병행 중에 있으나, 지역 간 불균형 및 제도적 연계 미흡이 해결 과제로 지적되고 있음.
- EU, 독일, 일본은 각각 순환경제의 정책 표준화, 보증금 제도, 공동체 중심 모델로 임팩트 확산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은 고소득국으로서 소비 감축, 시스템 재설계, 시민역량 강화 중심의 전략적 전환 필요성이 제기됨.

○ 종이팩 자원순환 시민조직의 참여

- 종이팩 자원순환 시민조직들은 공통적으로 시민 주도 기반의 사회적 실천을 제도와 연계하려는 시도가 뚜렷하며, 이의 일환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데이터 수집의 노력, 정책 피드백 등의 활동이 관찰되었음.
- 프로그램 초반부에는 시민조직들의 협력 형태가 단순한 편이었으나, 프로그램 후반부로 갈수록 제도의 구축과 지역맞춤형 전략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공동체의 조직화 수준이 높은 편으로 산업계·NGO와의 네트워크 확장성이 두드러짐. 또한 제도적 실험장으로 기능하는 경향이 있으며, 실천에서 정책 전환으로의 연결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음.

○ 농촌쓰레기 자원순환 시민조직의 참여

- 농촌쓰레기 시민조직의 자발성과 공공 자원의 적절한 결합, 내부 조직 기반의 안정성이 변화와 성과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사업에 처음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은 제도화 수준이 낮고 네트워크의 확장성이 제한적인 편이지만, 점차적으로 발전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실천 주체들의 자율적 기획과 실행이 긍정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임.
- 사회적 규범의 내면화는 개인차의 조율에 있어 향후의 해결 과제로 남아 있음.

○ 지원조직의 역할 관련

- 시민의 자발성과 행정 간 연계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정보의 투명한 공유, 제도적 연계, 학습 및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시민사회 실천 모델을 구축하는 것으로 나타남.
- 종이팩 및 농촌쓰레기 참여 주체의 문제 인식의 조율, 제도와 현실 간의 간극 줄이기, 분산된 지역 문제 해결의 복잡성(특수성)이 주요 도전 과제로 파악되었음.

5. 연구 결과의 요약

(1) 종이팩 자원순환 참여조직의 사례 분석

○ 사례1, 사례2, 사례3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각 사례들이 시민 주도의 실천을 제도적 설계로 확장하고 다중 이해관계자 간의 실질적인 협력을 도모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사업단마다 자체적으로 조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는 시스템 전반에 개입하려는 공통적인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커뮤니티 혁신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전반부에는 어떤 종류의 문제로 인식하는지 탐색하고 이에 따른 협력이 상대적으로 단순하였다면, 후반부로 갈수록 시민의 주도성이 강화되고 보다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아울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각 사업단은 보유 조직역량을 다양한 측면에서 시도하고 배우며 지역 특유의 조건에 기반한 맞춤형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움직임이 관찰되었음.

〈표 4-3〉 사례1, 사례2, 사례3 간의 주요 내용 비교 요약

항목	사례1	사례2	사례3
시민 주도 캠페인	서포터즈를 통한 종이팩 배출 카페를 설득, 청년 환경활동가 양성에 초점	시민이 수거 실천과 정책 제안의 주체로 작동하며, 수용성 높은 모델을 공동 설계하는 단계임.	제도적 개선과 데이터 수집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시민참여가 두드러짐.
정부/정책 지원	아직은 제한적이며 구청과의 제도 협력 과정에서 지속적 설득 필요	지자체 실무자 수준의 제도 협력이 있으며, 제안이 정책 항목으로 반영된 사례가 존재함.	지자체 일부 부서의 실무 차원 협력은 존재하나, 행정-시민단체 간 갈등이 존재하고, 및 시스템 차원의 정책 지원은 미흡
공동체 조직화	전반적으로 매우 강함	시민·지자체·환경단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 시도가 활발한 편	전반적으로 공동체 조직화 전반적으로 매우 강함
네트워크 확장성	산업계 공공-비영리 연계로의 사업 기회 확장과 동기가 강화됨.	다양한 재활용 기업, 시민단체, 환경부와 연결된 전국 규모의 컬렉티브 연계 확대 중	지역 내 시민, 동 주민센터, 환경운동단체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나, 조직이 지향하는 완전한 거버넌스 수준까지는 아님.
제도적 실험장 존재	카페 지역 연계를 구축 중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음.	시범사업이 동 평가 지표로 반영되고 있고, 이를 전국 확산하려는 구조적 기획이 존재함.	수거 체계 실험, 평가 지표 반영 등 일부 제도 연계가 있으나 제도화의 지속가능성은 제한적임.
파급효과 정도	자원봉사, 서포터즈 활동 등을 통해 시민이 주체적으로 기획·운영함.	시민 감수성이 증대하였고 보다 투명한 재활용 경로 요구가 나타나고 있음.	데이터 수집과 정책 피드백 시도는 지역 범주 내에서 파급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는 증거로 제시될 수 있음.

항목	사례1	사례2	사례3
사회적 규범 강도	아직은 초기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실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수거함의 자발적 설치, 설문 응답을 통한 시민의식 확인 등 생활 내 인식 확산의 토대가 형성되고 있음.
임팩트 창출/확산	수거 체계의 효율화에 대한 지자체와의 공동 협업이 발견됨.	지역 내 성공 모델의 타 지역 전파가 나타남. 이를 통해 사회적 인식과 시스템을 변화시키고자 함.	지역 기반의 실험이 다음의 아젠다로 확장되는 것에 대해 관심이 대단히 많음.

(2) 농촌쓰레기 자원순환 참여조직의 사례 분석

○ 사례4와 사례5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각 사례들이 자체적으로 정의한 임팩트 창출에 도달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시민주도의 참여, 정부지원, 공동체 조직화, 파급력이 모두 존재하였던 것으로 파악되었음.

- 프로그램 전반기에는 이러한 조합이 임팩트 창출을 위한 충분조건으로 도출되었다고 할 수 있음. 한편 네트워크 확장성과 사회적 규범 강도는 임팩트 창출에는 유의미한 영향 요소로 꼽히지 않았음. 제도화나 문화적 내면화의 접근화는 임팩트 창출을 위한 강화 요인이 될 수는 있으나, 아직 임팩트 창출을 위한 핵심 경로로서의 구성 조건이 되기에는 미흡한 상황
- 사례5는 아직 프로그램 전반부인 상황에서 특히 네트워크 확장이나 제도화 수준이 제한적이었고, 주민들의 규범적 내면화 또한 불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천 주체들의 자발성과 공공 자원의 적절한 연계, 내부 조직 기반의 안정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실질적 변화와 긍정적인 실행 성과를 차츰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4-4〉 사례4 및 사례5 간의 주요 내용 비교 요약

항목	사례4	사례5
시민 주도 캠페인	모아, 수리모아, 주민자치 기반의 상향식 캠페인 활발	장바구니, 우유팩 캠페인, 교육 실천. 다만 캠페인성 한계 존재
정부/정책 지원	숲과나눔, 지자체 자원 활용 적극	시청, 면사무소, 회계자문 등 제도 지원 확보
공동체 조직화	다양한 마을 주체 조직 존재, 내부 응집력 강함	농민회 및 귀촌자 단체 중심, 일부 내부 갈등 및 소통 미흡
네트워크 확장성	복지관, 외부 마을과의 연계 있음.	대부분 산내면 내부에서만 활동. 상대적으로 아직 외연 확장 미흡
제도적 실험장 존재	비영리단체 등록 시도. 제도화 초기 단계	제도화 목표는 명확하나 현실화를 위해 노력 중

항목	사례4	사례5
파급효과 정도	군수 방문, 행사에 마을 전역 참여 등 파급 효과 강함	일부 마을 정착, 80% 분리배출 달성. 타 마을은 미참여
사회적 규범 강도	밥 나눔, 정서적 관계 형성으로 규범 공유 진행	개인차 큼. 공동 규범으로 내면화되지 않음
임팩트 창출	‘모아’ 시스템, 이웃들의 공방 참여 등 자발적 확산	일부 마을 성과 있으나, 관광지 마을 등은 참여 거부

- 사례5의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실천이 제도와 연결되고, 광범위한 지역이 순환경제의 실험장이 되는 커뮤니티 혁신 모델로 거듭나고 있었음.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이 문제를 정의하고 실천 행동을 자기 조직화하여 행정과의 협력 속에서 제도를 시도하고자 하였음.
- 이 역시 사례4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주체가 연결된 공동체 기반의 실천이 지역 단위에서 작동되고 있었으며, 점차적으로 농촌쓰레기 자원순환 실천 → 정책의 제안 → 제도화 → 지역 확산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었음.

(3) 지원조직의 사례 분석

- 사업수행단이 소기의 사업 목표의 달성과 사회적 임팩트 창출 및 확산을 위해 높은 수준의 시민 자발성과 행정을 지원하고 사업수행단 대상의 투명한 정보 공유를 통해 본 사업이 보다 안정적이고 자율적인 시민사회 실천 모델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나타남.
- 주요 개방 코딩 내용으로는 크게 문제인식의 차이와 복잡성(제도와 현실의 간극, 지역성과 분산된 문제 해결), 시민의 자발성 지원, 제도적 연계성, 학습과 전문성 강화의 노력, 네트워크 확장성 지원, 정보 공유의 지원 부문으로 도출할 수 있었음.

(4) 종이팩 자원순환 부문: 변화의 양상으로 본 사례 분석

- 모든 프로그램 참여 수행단은 프로그램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갈수록 지원조직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부문에서의 변화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음(<표4-5>).
- 사례1의 경우에는 시민 주도의 캠페인은 단순한 참여를 넘어 정책 제안과 실행 기획으로까지 확장되며 네트워크의 외연을 넓힌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다양한 로컬 이슈와 연결된 활동들이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 시민 주도의 임팩트가 프로그램 전반부보다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다고 말할 수 있음(<표4-6>).
- 사례2의 경우에는 시민 주도의 캠페인 관련, 초기에는 개별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에 머물렀지만 점차 제

도적 한계를 인식하고 구조적 변화로 나아가는 것으로 나타났음(<표4-7>).

- 아직은 제도적 실행 역시 구상과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 제도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의 인식 변화와 함께 사회적 규범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시민은 단순한 참여자를 넘어 변화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으로 제 역할을 하고 있었음.
- 사례3의 경우, 초기에는 시민 주도의 캠페인에 있어 실행력에 대한 의문이 있었지만, 점차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역 내 연결망이 갖추어지면서 실질적인 실행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표4-8>).
- 또한 이 과정에서 마을회관이나 지역 모임 등 생활권 내 공간을 활용한 참여 기회가 확대되면서, 시민들은 단순한 수용자가 아닌 변화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었음.
- 집합적 임팩트(커뮤니티 혁신으로 하여금 순환경제의 발전에 나아가는 과정) 수준에서는 사례1, 사례2, 사례3 모두 종이팩 자원순환의 문제를 통해 기존 시민운동이 정치적 의제 중심에서 생활 기반 실천과 제도 전환에 기반 한 커뮤니티 혁신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제시하였음(<표4-9>).
- 이를테면, 환경 NGO의 투쟁 중심 운동에 초점을 맞추었던 조직이 실천 기반의 매개자형 시민 운동으로의 변모까지를 고민하고, 시민과 활동가 간 연대를 통해 보다 파급력 있는 임팩트를 확산하고자 하였음.

<표 4-5> 프로그램 후반부 종이팩 자원순환 조직

분석 항목 사례	시민 주도 캠페인 (C)	정부/정책 지원 강도 (G)	공동체 조직화 수준 (O)	네트워크 확장성 (N)	제도적 실험장 존재 (L)	파급효과 정도 (R)	사회적 규범 강도 (S)	임팩트 창출/확산 (I)
1	3	2	3	3	3	3	2	3
2	3	3	3	3	2	2	3	3
3	3	2	2	2	1	2	2	2

주) 굵게 표기된 것은 프로그램 전반부 종이팩 자원순환 조직의 진리표를 기준으로 보다 강화된 인식 및 실천(수행)의 변화를 나타냄.

<표 4-6> 사례1의 분석 항목별 변화의 양상

분석 항목
시민 주도의 캠페인
(변화의 양상)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 전환과 실천을 촉진하는 활동. 교육, 홍보, 대면 설득 등이 포함됨. 초기에는 수거 중심의 시민 실천에 무게를 두었으나 후기에는 구조적 인식 개선 캠페인으로 전환됨. 서포터즈 활동을 통한 간접 실천 유도과 메시지 전달이 중심이 됨. “162개 카페가 참여를 하겠다고 해서 분리배출을 시작했죠.” “서포터즈들은 많은 카페들을 섭외 시도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드리거든요.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는 이유는 종이팩이 종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분석 항목
정부/정책 지원 강도
(변화의 양상) 프로그램 초기에는 구청과의 협조가 어려웠으나, 후반에서는 정책적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한 소통의 노력이 더욱 요구됨. 즉, 초기에는 지자체의 방어적 태도가 관찰되었으나, 후기로 갈수록 지속적 소통과 전략적 협상 시도가 조금씩 달라진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여전히 행정 영역의 비협조적 태도가 장애물로 존재하는 것 역시 확인되었음. “청소행정과 〇〇〇 주무관이나 팀장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쪽은 관심이 없어요.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 종이팩 사실 개인적으로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연락하는 거죠. 진짜 되는 거 맞죠? 계속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나서서 하고 있는데도... 너무 또 애네가 기분 나쁘지 않게 부담스럽지 않게 그 수준을 지켜가면서 소통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동체 조직화 수준
(변화의 양상) 프로그램 초기에는 조직 차원에서의 대응 및 실험이 시작 단계였으나, 후기에는 서포터즈 조직화 및 커뮤니티 중심 교육·홍보 활동 등 체계화된 실천으로 진전되었음. “서포터즈 활동에서 종이팩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분명히 메시지는 전달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종이팩은 이러한 문제로 분리배출되어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담아서 비닐을 카페들에게 드렸기 때문에...”
네트워크 확장성
(변화의 양상) 프로그램 초기에는 포럼 참여 중심이었고, 후기에는 협력 강사 초청, 교육 콘텐츠 공유, 다른 지역 활동가와의 지속적 연결 등으로 확장되었음. 즉, 단순한 정보 교류 수준을 넘어 타 단체와의 협업, 프로그램 외부 협약, 교육 강사 초청 등으로 연결 범위가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음. “유어스텝 〇〇〇 님에게 부탁드렸는데 일정까지 바꾸면서 와주셨어요. 교육을 다채롭게 만들어주셔서 엄청 감사했고...” “정책 포럼에서 만났던 HRM 〇〇〇 팀장님을 만나서 멸균팩 회수와 관련된 협약을 맺고 회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제도적 실험장 존재
(변화의 양상) 서포터즈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사용자 여정 지도 작성, 종이팩 분리배출 구조 설계 등 다양한 제도 실험이 시도됨. 구체적으로 초기에는 자원봉사 중심 수거 활동 위주였고, 후기에는 사용자 여정 설계, 교육 기획안 발표, 파일럿 제도 운영 등 실험 성격이 강화됨. “사용자 여정 지도를 그린다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서포터즈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섭외까지 하고 그 과정들을 다... 진짜 이거는 준비를 하면서 머리 아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2기 때는 소스 아이디어 내고 중간에 종이팩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획안 작성을 조별로 했었거든요. 기획안을 발표해서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6개 조가 다 다른 주제로 진행하고...”

분석 항목
사회적 규범 강도
(변화의 양상) 참여자의 인식 변화 및 참여 방식의 확장으로 자원순환 실천이 시민 규범적 행위로 차차 자리잡고 있었음. “기후 행동 실천이라는 게 그 내용 자체가 별로 없고... 그런데 이 짧은 기간에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떤 변화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실천을 했을 때 뭔가 이런 효능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효능감을 좀 줄 수 있었던 표현인 것 같아서...”
임팩트 확산
(변화의 양상) 단순 재활용률 향상을 넘어서, 환경 교육, 정책 제언, 실행 기획안 등 다층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로 연결되었음. “기획안을 팀 미팅을 하고 발표해서, 진짜 아까울 정도로 문제의식이 다 담겨 있어서 3기 때 구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기후 시민으로서 뭔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요. 활동하는 데도 많이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기업에 바라는 점이나 구청에 바라는 점, 아니면 시민들이 해야 할 일등, 구현할 수 있는 방법들로 한번 꺼내볼까 하고 있어요.”

〈표 4-7〉 사례2의 분석 항목별 변화의 양상

분석 항목
시민 주도의 캠페인
(변화의 양상) 프로그램 초기에는 시민 주도의 캠페인은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나, 제도적/구조적 한계로 인해 분절적이고 고립된 형태였음. 또 활동가는 자원봉사 수준에서 활동하며 시스템 개선보다는 지역 내 한정된 실천에 집중한 측면이 있었음. 그러나 후반기로 갈수록 종이팩 수거, 선별, 분리과정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실천적 과제가 늘어났으며 변화의 운영 주체로 나서며 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기 시작함. “각자의 노력은 굉장히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각자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나 뚜렷했고 그 영역을 넘어서기가 너무 어려웠어요...(중략) 참여하는 사람들도 〇〇동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동에서 참여했고, 공익적인 활동에서 자기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는 자기 일처럼 막 나서면서 활동하게 됐고요... 다들 척척척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시민들이 공공에 계속 가서 이거 해줘라 저거 해줘라 자꾸 막 요구해요. 이제는 얘기를 하면 쉽게 쉽게 가더라고요.”
정부/정책 지원 강도
(변화의 양상) 프로그램 초기에는 정책 지원이 주로 개별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며, 아직은 지속가능성과 정책 전환이 미약했음. 그러나 후반기로 갈수록 시민 및 단체의 요청을 계기로 시 행정과 공공기관이 점진적으로 응답하며, 입찰 구조 변경 및 조례 제정 등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짐.

분석 항목
“지자체가 실행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어떻게 제안할 것인가를 주요하게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이런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좋은 사업들이 시도됐다가 사장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〇〇도시공사도 툭툭거리면서도 해줄 거 다 해주셨어요. 종이팩 입찰도 해 주셨고 〇〇시청 자원순환과도 처음엔 ‘잘해보시오’ 스탠스였지만 요청하면 빨리빨리 해주고” “조례 만드는 것에 있어서도 되게 애써주셨고...정책이 하나 만들어지기 위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관여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공동체 조직화 수준
(변화의 양상) 공동체 조직은 기존 네트워크 중심으로 제한되어 있었고, 새로운 외부 참여자 유입이나 교차 협업은 어려운 상태였음.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시민 기반 활동가가 확대되고 지역 단위 경계를 넘어 시 단위 조직화로 진전되었으며, 외부 인지도까지 강화되었음. “기존에 우리 마을학교 활동가들 또 하던 사람이 또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과 같이 하게 될 수 있었는데 다양한 지역에서 제가 잘 모르던 활동가들이 참여할 수 있었고” “이건 우리 동네 사업이 아니라 〇〇시 사업이니까 우리 동네에서만 꼼짝꼼짝하지 않아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참여자의 폭을 열어놓고 활동가들을 모집했어요.” “땃골마을학교나 이런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곳이 있다는 걸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었다가 이제는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된 게 아닌가 해서 되게 뿌듯해요.”
네트워크 확장성
(변화의 양상) 프로그램 전반부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했지만, 실질적인 네트워크 결합이나 역할 분담은 부족한 측면이 있었음. 조직 간의 실무 연계, 지역 간 협력 네트워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며, 지속가능성과 파급력 있는 구조로 전환되었음. “저희는 이 사업을 직접 받은 곳은 경기환경운동연합이고... 실제로 실무를 맡고 진행한 곳은 땃골마을학교인데요. 활동가들의 폭이 넓어졌어요.” “참여하는 사람들도 대화동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동에서 참여했다 그랬잖아요. 공익적인 활동에서 자기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고... 우리가 어쨌든 계속 가서 이거 해줘라 저거 해줘라 요구하다 보니, 이제 얘기를 하면 쉽게 가더라고요.”
제도적 실험장 존재
(변화의 양상) 프로그램 전반부에는 정책 제안과 제도화 가능성을 위한 실험적 접근이 구상 및 준비 단계에 머물렀으나, 후반기로 갈수록 해당 실험적 접근이 실질적인 수용 및 적용으로 전환되며 제도화 가능성의 실질적 진전을 확인하였음. “지자체가 실행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어떻게 제안할 것인가를 주요하게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게끔 지금 시범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고 시민의 아이디어로 이런 시범사업들이 진행이 되어 왔고...” “이번 컬렉티브를 통해서도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 제안과 제도 마련을 통해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갔어요.” “공동주택에서 이러한 조건에서 ‘종이팩은 따로 시에서 수거할게요’라는 조건을 말을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주택이 많지 않았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도 받아들이고...”

분석 항목
임팩트 확산
(변화의 양상) 임팩트의 확산이 주로 수거량이라는 정량 지표와 제도의 반영이라는 거버넌스 확산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있었음. 그러면서도 차차 주민조직과 실무 주체의 확장이라는 활동 기반의 확산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여 질적 성격의 전파력이 강조는 양상으로 관찰되었음. “〇〇시가 맨 초창기에 대략적으로 한 저희가 이제 시작할 때 한 15톤 정도 모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2020년 2021년에는 150톤 가까이 이러한 효과들을 이제 가지고 오게 됐죠.” “저희 땃골마을학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활동가들의 폭이 넓어졌어요. 이 사업 하나로.”

〈표 4-8〉 사례3의 분석 항목별 변화의 양상

분석 항목
시민 주도의 캠페인
(변화의 양상) 시민참여의 실질적 실행력에는 의문이 있었던 측면이 있었지만, 직접적인 시민 주도의 실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지와 연결의 역할을 강화해 갔음. “시민들의 준비가 과연 얼마만큼 됐을까... 그런데 단지를 돌아보면서 느낀 건 종이팩 수거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소에서 종이팩 수거함을 따로 만들어서 놓는 데도 있었고요.” “저희가 단체의 역할에서는 그 중간 다리의 역할을 계속 연결해 주는 역할로 저는 어찌 보면 지역사회 내에서는 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들긴 해요.”
정부/정책 지원 강도
(변화의 양상) 지자체와의 갈등과 불신이 존재했으나 점차적으로 소통 체계를 갖추려는 변화가 관찰되었음. “〇〇시가 계속 환경을 훼손해요. 그래서 계속 싸우고 있어요.” “문제 제기를 했는데 반응이 없거나 이런 거하곤 달리 그래도 뭔가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보여지는 것 같아서...”
임팩트 확산
(변화의 양상) 전반기에서는 제도 변화까지의 연결은 기대 수준에 머물렀으나, 후반기에서는 실제 조례 개정 및 제도 기반 구축이 진행되었음. 또한 프로그램 전반기에는 종이팩 수거에 대한 시민 인식이 부족했으며 ‘수거함이 없어서 안 한다’는 정도의 반응이 대부분이었으나, 후반기로 갈수록 자발적으로 종이팩 수거함이 설치되고 운영이 확산되는 양상으로 관찰되었음. “조례까지 바뀌는 것까지만 말해도 마무리해도 저는 어찌 보면 지역사회 내에서는 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들긴 해요.” “관리소에서는 종이팩 수거함을 따로 만들어서 놓는 데도 있었고요. 그게 누군가가 가져가서가 아니라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269개 정도가 다 깔렸거든요. 아파트 66개 단지에 다 깔려서 이제 이거는 나름 노력했다는 생각이 좀 들고...”

〈표 4-9〉 사례1, 사례2, 사례3의 커뮤니티 혁신 변화의 종합

조건과 맥락	예시 및 함의
종이팩 자원순환에 대한 시민의 문제 인식의 전환	(예) “이해 당사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 분담이 되지 않았던 과거에서...” → 초기에는 시민들이 각자 자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공공적 의제로 전환되며, 종이팩 자원순환은 시민뿐 아니라 기업·행정이 함께 다뤄야 할 ‘공적 커먼즈(common)’의 문제로 자리매김되었음.
종이팩 자원순환의 실천 행위 주체가 참여자→협력자→변화의 기획자로 서서히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남	(예) “이건 우리 동네 사업이 아니라 OO시 사업이니까 다양한 지역에서 제가 잘 모르던 활동가들이 참여할 수 있었고”, “지속가능하게 우유팩을 모아가지고 기업에게 보낼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제안했고 지자체가 움직이게 하기 위한 제도화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목표예요.” → 참여자들이 단순 실천자에서 벗어나 정책을 제안하고 제도 설계까지 시도하는 수준으로 성장하였음. 또한 활동가는 마을 단위에 머물지 않고 시 단위의 공론 형성자로 진화함.
처음에는 시범사업이었으나 지금은 제도 설계의 실험장으로 변모하고 있는 상황	(예) “2025년부터는 종이팩과 폐지류는 따로 나누어서 입찰을 받겠다… 쉽게 쉽게 잘 되더라고요” → OO시에서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OO에서는 새로운 지자체 제도 설계를 위한 정책 실험장의 역할을 수행 중. 이는 공동주택 수거 방식과 입찰 구조 등에 영향을 미쳤음.
시민의 실천을 통한 종이팩 자원순환의 사회적 학습의 강화	(예) “어르신들이 이걸 여기다 버리고 이걸 저기다 버린다고 알려주면 고맙다고 하세요… 내가 이걸 한다고 재화용이 되나, 하시면서도 믿음이 생겨요.” “시민들하고 함께 해서 변화를 만드는 시민 실천인데, 시민 실천 운동을 우리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더 저변으로 더 내려가서 활동하는 시민의 감성에 맞게 그런 운동을 더 해보고 싶은데...” →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학습을 통해 인식의 전환을 이루고 있음.
조직 정체성의 변화와 중간자 역할의 강화	(예) “원래 우리의 스타일은 뭔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런 정신이었다면, 이 자원순환 종이팩은 진행하면서 우리가 약간 중간자 역할을 해야하더라고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더 좀 낮은 참여로, 시민참여형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좀 한 단계 진입했다고 해야할까요.” → 기존의 조직이 갖고 있던 투쟁 중심의 이미지를 넘어, 시민 친화적이고 협업 중심의 실천 활동으로 방향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자체 평가함.

(5) 농촌쓰레기 자원순환 부문: 변화의 양상으로 본 사례 분석

〈표 4-10〉 프로그램 후반부 농촌쓰레기 자원순환 조직

분석 항목 사례	시민 주도 캠페인 (C)	정부/정책 지원 강도 (G)	공동체 조직화 수준 (O)	네트워크 확장성 (N)	제도적 실험장 존재 (L)	파급효과 정도 (R)	사회적 규범 강도 (S)	임팩트 창출/확산 (I)
4	3	2	3	3	3	3	2	3
5	3	2	3	3	3	3	2	3

주) 굵게 표기된 것은 프로그램 전반부 농촌쓰레기 자원순환 조직의 진리표를 기준으로 보다 강화된 인식 및 실천(수행)의 변화를 나타냄.

○ 사례4의 경우에는 시민 주도의 캠페인이 농촌 지역의 쓰레기 문제를 계기로 시작되어, 마을 공간을 중심으로 한 공동 관리와 주민 간의 자발적인 협력으로 발전해왔음을 알 수 있음(〈표4-10〉, 〈표4-11〉).

- 주민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대화를 통해 점차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새로운 유형의 공동체 내 신뢰를 쌓아가는 점이 특이할만한 사항으로 분석되었음.

- 또한 아직 정부나 정책 차원의 지원은 제한적이었지만 오히려 주민들 스스로가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면서 자율성과 책임감이 강화된 측면도 살펴볼 수 있었음. 이러한 흐름 속에서 마을 주민들은 개인 수준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조직 문화가 움트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음.

- 한편 일상적인 관계망을 바탕으로 한 소규모 네트워크(예: 비니루없는점빵이 중심이 되는 연결망)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고, 이는 주민 간의 유대감을 높이며 캠페인의 지속성과 확장 가능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사례5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후반부로 진행되면서 다양한 측면에서의 변화의 양상이 나타났음. 시민 주도 캠페인은 단순한 인식 개선을 넘어 실제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도로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음(〈표4-10〉, 〈표4-12〉).

- 정부 및 정책 지원은 단순 사업비 지원을 넘어 사무국의 적극적인 고민과 포럼 개최를 통해 제도화 및 현실적인 도움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질적인 향상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음.

- 한편 사회적 규범의 강도와 관련, 쓰레기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생겨났으나, 여전히 책임 전가나 ‘국가가 할 일’이라는 인식이 잔존하며 실천적 규범으로의 전환은 더딘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임팩트 확산은 지역 내 유사 사업의 급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제로웨이스트 샵 등장과 같은 특정 분야의 움직임, 그리고 전국적인 환경 활동 정보 공유를 통해 잠재적 확산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임.

〈표 4-11〉 사례4의 분석 항목별 변화의 양상

분석 항목
시민 주도의 캠페인
(변화의 양상) 프로그램 전반기에는 농촌쓰레기 문제를 인식하고 마을 공간을 활용한 공동 관리를 시작하였으며 점차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마을 간담회가 조직되고 주민 중심의 대화와 공감의 형성이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쓰레기를 관리해야겠다. 도시하고는 다르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관리하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공간을 만들어서 같이 관리를 하면서 시작하게 됐고요.”

분석 항목
정부/정책 지원 강도
(변화의 양상) 프로그램 전반기에는 정책적 지원에 대한 언급은 미미하며 문제 해결의 주체는 시민 내부로 한정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간담회를 통해 정책 전달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나타남. “이걸 정리해서 군의회를 찾아뵙기로 했거든요.”
공동체 조직화 수준
(변화의 양상) 마을 주민들과의 이전과는 다른 관계가 형성되며 다른 차원의 상호 간 신뢰가 움트기 시작했음. “마을 사람들 간의 관계가 생활쓰레기 처리할 때랑은 다르게, 골치 아픈 문제를 같이 해결하기 위한 동료 같은 느낌이 생기더라고요.”
네트워크 확장성
(변화의 양상) 프로그램 전반기에는 개인 단위의 작은 모임을 기반으로 한 실천이 주로 눈에 띄었다면, 군의회 등 제도권 및 주민 다수와의 연계로 확장해 나가는 양상이 관찰됨. “마을 분들을 초대해서 얘기를 정리해 가지고 군의회를 찾아뵙기로 했거든요.”

〈표 4-12〉 사례5의 분석 항목별 변화의 양상

분석 항목
시민 주도의 캠페인
(변화의 양상) 프로그램 전반부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주도하여 농촌쓰레기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 및 개선 요구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음. 후반부에서는 단순한 주민 참여에서 나아가 제도적 제안 및 실현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 지역에 쓰레기 수거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이런 현상과 현장의 상황을 행정이 아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문제의식을 주민들이 공감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한 다음에 주민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먼저 되게 공을 들어서 좀 하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정부/정책 지원 강도
(변화의 양상) 프로그램 전반부에는 행정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나 제도화된 지원보다는 일시적, 비공식적 지원이 주를 이루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점차적으로 참여조직은 행정과 제도 활용에 대한 이해가 고도화되면서 행정과의 긴밀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분석 항목
“저는 되게 다른 지원 사업하고는 좀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다른 데는 그냥 우리가 좀 뭐랄까 공모사업 지원금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미션을 수행하면 끝인데 네 여기는 이거를 진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사무국에서도 스스로 공부하고 지원을 어떻게 해줄까 다각적으로 도움을 주고 특히 이런 포럼은 저는 정말 되게 이번에 포럼하고 너무 좋았거든요. 이런 자리를 마련해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현실로 만들고 제도화하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사무국에서도 굉장히 끊임없이 고민하고 거리를 마련하고...”
공동체 조직화 수준
(변화의 양상) 프로그램 전반부에는 농민회 전체 차원에서 쓰레기 문제를 다루는 것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부분도 있었음. 또한 공동체가 활성화되어야만 쓰레기 문제 해결에 대한 논의가 수월하다는 인식이 서서히 나타나는 측면이 있었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쓰레기 문제가 가장 공통의 관심사로서 기능한다는 점은 강화되었으며, 이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단초로 활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가능성도 관찰되었음. “제가 일을 하면서 많이 느낀 거라고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공동체가 자체가 활성화가 되어야지만 조금 이제 얘기하기가 좋거든요.” “사람들이 뭐랄까 마음이 좀 닫혀 있거나 참여하거나 말하기를 주저하거나 아니면은 비판받을까 봐 어떤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거나 뭔가 손해 보는 느낌이 든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그런 활동에 대한 보상이 다른 것들을 들어온 경험들이 안 좋은 것으로 쌓여 있을 때 공동체가 좀 활성화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네트워크 확장성
(변화의 양상) 프로그램 후반기로 갈수록 숲과나눔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활동가들의 활동을 접하고 정보를 얻으며 힘을 얻는 등 전국적인 단 위에서 환경 관련 활동가들과의 정보 교류가 가능하다는 연대감을 가지는 것으로 관찰됨. “많이 유익하죠. 저는 거기에서 다른 분들이 하는 활동도 보는 것도 너무 도움이 많이 되고 힘도 나고 또 아이들도 생기고 이런 활동을 또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환경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구나 하는 또 정보도 또 알게 되고 너무 좋죠.”
제도적 실험장 존재
(변화의 양상) 프로그램 후반기로 갈수록 숲과나눔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활동가들의 활동을 접하고 정보를 얻으며 힘을 얻는 등 전국적인 단 위에서 환경 관련 활동가들과의 정보 교류가 가능하다는 연대감을 가지는 것으로 관찰됨. “그전에는 그냥 주민들하고 알음알음하고 좋았다 박수 치고 잘했다 이렇게 평가했다고 치면, 이번에는 그거를 조금 더 공식화해서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거에 좀 성과가 있고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어떤 제도가 있고 그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고 누구랑 그런 얘기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파악했다는 측면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갔다고 해야 될까요?”

분석 항목
임팩트 창출/확산 (변화의 양상) 프로그램 전반부에는 산내면의 시범적인 분리배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산내 전체 마을로 확대해서 해볼 필요가 있다는 인식은 있었으나, 실제 확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족한 측면이 있었음. 하지만 차츰 남원에 제로웨이스트 샵이 생기는 등 특정 분야에서 유사한 움직임이 나타나며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전국적으로 환경 관련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됨으로써 긍정적인 임팩트 확산의 가능성을 시사하였음. "이런 활동을 또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환경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구나하는 또 정보도 또 알게 되고 너무 좋죠."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붙어서 마을 곳곳에서 활발하게 이 문제를 얘기하고 파고들어서 집집마다 다니고 계속해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활동가랑 조직화가 조금 더 결합이 된다면 요새 주민자치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거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좀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면 단위의 공동의 경험을 가진 굉장히 중요할..."

(6) 농촌쓰레기 부문 집합적 임팩트 수준의 변화의 양상 분석

- 사례4와 사례5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후반부로 갈수록 숲과나눔을 통해 커뮤니티 혁신의 노력이 구체화되는 측면이 발견되었으며, 커뮤니티가 단순한 캠페인이나 개인적 노력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실험과 시스템 구축의 장(場)으로 거듭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표 4-13〉).
- 한편 커뮤니티 혁신으로 더욱 나아가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과제 역시 도출되었으며, 이는 여전히 변화를 가로막는 심리적, 사회적 장벽에 관한 것으로 몇몇 주민들에게서 관찰된 깊이 뿌리 박힌 회의적 인식과 관련됨.

〈표 4-13〉 사례4, 사례5의 커뮤니티 혁신 변화의 종합

조건과 맥락	예시 및 함의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실험과 시스템 구축의 노력	(예) “그전에는 그냥 주민들하고 알음알음하고 좋았다, 박수 치고 잘했다, 이렇게 평가했다고 치면 이번에는 그거를 조금 더 공식화해서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것에 좀 성과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고 누구랑 그런 얘기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나아갔다고 해야 될까요?” → 커뮤니티가 쓰레기 문제라는 현실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이를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만들고자 노력하는 과정이 엿보였음.

(7) 지원조직의 집합적 임팩트 수준의 변화의 양상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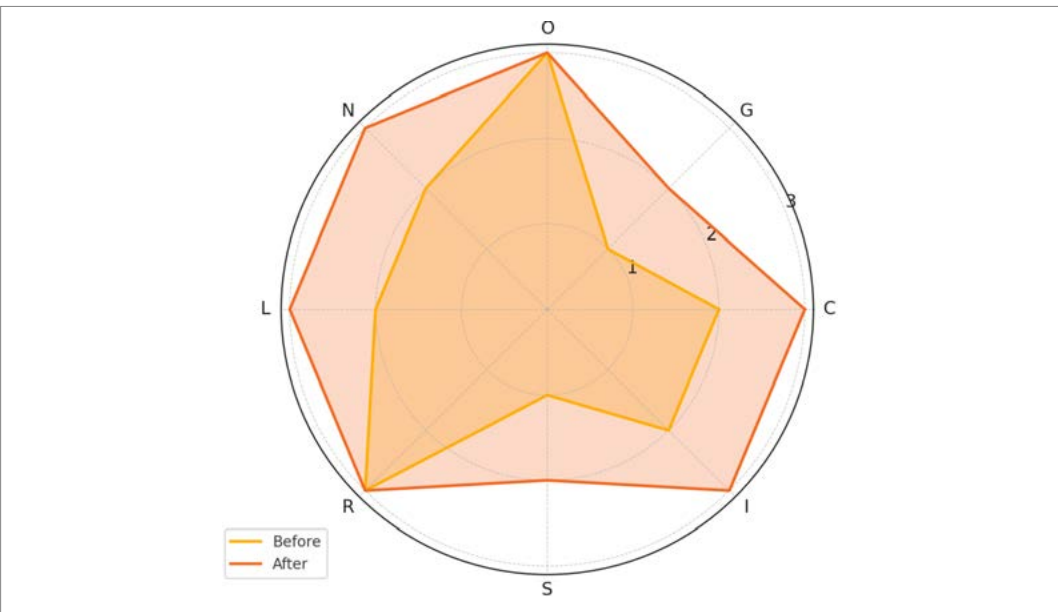
- 프로그램 후반부로 갈수록 관찰되고 있는 지원조직의 변화의 양상으로, 숲과나눔에 참여하는 사업수행단의 자체적인 임팩트 창출 및 확산과 커뮤니티 혁신을 위해 어떠한 측면에서 그 변화의 양상이 엿보여지는지를 살펴보았음.
- 이러한 변화의 양상을 통해 중간지원조직이 갖는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와 함께 일부 프로그램의 발전 및 임팩트 창출 및 확산을 위한 과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이를테면, 여전히 복잡한 이해관계와 사회적 인식 변화라는 큰 과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4〉 지원조직의 집합적 임팩트 수준의 변화의 양상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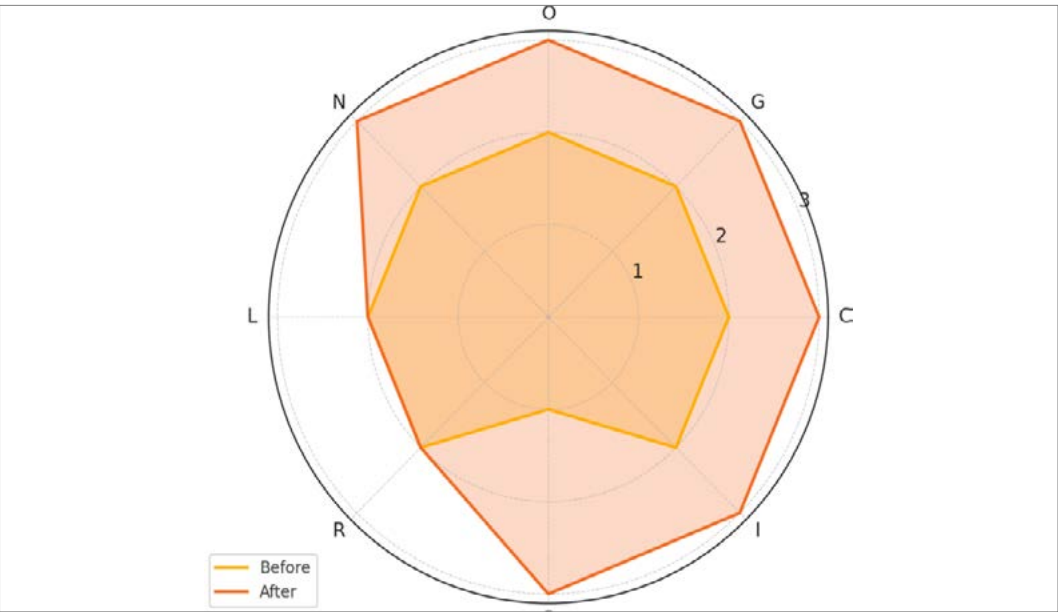
분석 항목
문제 인식의 심화 및 구체화 (변화의 양상) 프로그램 전반부에서는 농촌쓰레기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전문가의 부재, 그리고 이해관계자 간의 이견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었으나, 후반부로 갈수록 농촌쓰레기 문제를 포함한 자원순환 문제 전반에 대한 조직적 미션 의식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이러한 유형의 사회적 문제의 해결이 단편적이지 않고 '뒷단'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산업적 연결을 포함한다는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어쨌든 자원순환이 필요하고 관심 있는 여러 주체들과 이제 머리를 맞대면서 내가 되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일을 좀 잘 해내고 싶다는 생각은 점점 이제 이제 쌓이는 것 같아요.” “사실 그전에는 종이팩과 폐기물은 농촌 쓰레기는 관심 밖이었죠. 오히려 이제 시민사회에서 먼저 제안할 수 있는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시민사회가 약간 중심이 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게 되게 괜찮은 전략이었다는 생각도 해요. 정부 입장에서는 기업의 요구를 듣고 뭔가 정책을 바꾸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그게 시민사회의 요구라고 이제 했을 때는 좀 더 다르게 받아들이는 게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시민사회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게 되게 의미는 있더라 정도...” “뒷단에 이제 이제 산업이니까 산업이랑 연결되는 문제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씩 배워가면서 관계들을 좀 만들어 가면서 하고 있고...”
이해관계자 관여 및 네트워크 확장 (변화의 양상) 프로그램 전반부에는 농촌쓰레기 문제의 복잡성과 이해관계자들의 상이한 인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후반부로 진행되면서 이해관계자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을 가지는 여유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 프로젝트의 문제 해결의 키워드가 주요 이해관계자가 다 모여서 서로 문제점을 계속 공유를 하고 대안을 찾는 건데 이게 종이팩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빨리 그 네트워크가 좀 된 것 같아요.” “멸균팩협회나 테트라팩이나 이런 데도 어쨌든 거기는 이제 멸균팩에 포커스 돼 있지만 그래도 일단 그제 자원순환 회수력을 높이고 그 뒷단에 인프라 개발을하고 이런 것은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그런 식의 이제 파트너십까지 이제 저희가 조직화를 할 수 있었던 같아요. 그래서 그 지자체의 협약이나 이런 것들도 이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수거량을 높일 수 있겠다는 기대가 좀 있고요.”

분석 항목
성과 및 목표의 구체화와 실질적인 진전
(변화의 양상) 프로그램 전반부에는 종이팩 자원순환 문제의 경우 '분리배출 지침 개정'을 1순위 과제로 삼고 있으면서 일의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었으며, 농촌쓰레기 자원순환의 문제는 아직 문제 정의가 잘 되지 않은 편이어서 구체적 성과를 정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었음. 후반부로 갈수록 농촌쓰레기 자원순환과 관련해서는 시민사회의 주도적인 역할에 대한 강한 인식을 가지며 성과의 정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남. “오히려 이제 시민사회에서 먼저 제안할 수 있는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시민사회가 약간 중심이 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게 되게 괜찮은 전략이었다는 생각도 해요. 이제 저희가 나섰을 때랑 시민사회가 먼저 나서서 이제 여기 붙어라, 하고 이제 이렇게 듣는 그림이 좀 다른 것 같거든요.”
내부 학습 및 역량강화의 인식
(변화의 양상) 프로그램 전반부에는 농촌쓰레기 문제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자료의 한계를 인식하며, 전문가 탐색의 어려움이 다소 관찰되었음. 후반부에는 여러 조직들과 새로운 미션을 수행하고 다양한 주체들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는 것까지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남. 이는 종이팩과 농촌쓰레기 자원순환 문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 개인적·조직적 역량이 성장하였음을 나타냄. “이제 다른 되게 이 문제에 관심 있는 여러 주체들과 이제 머리를 맞대면서 내가 되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일을 좀 잘 해내고 싶다는 생각은 점점 이제 이제 쌓이는 것 같아요.” “이제 조직에 들어와서 어쨌든 미션으로 주어졌으니까 이제 공부하고 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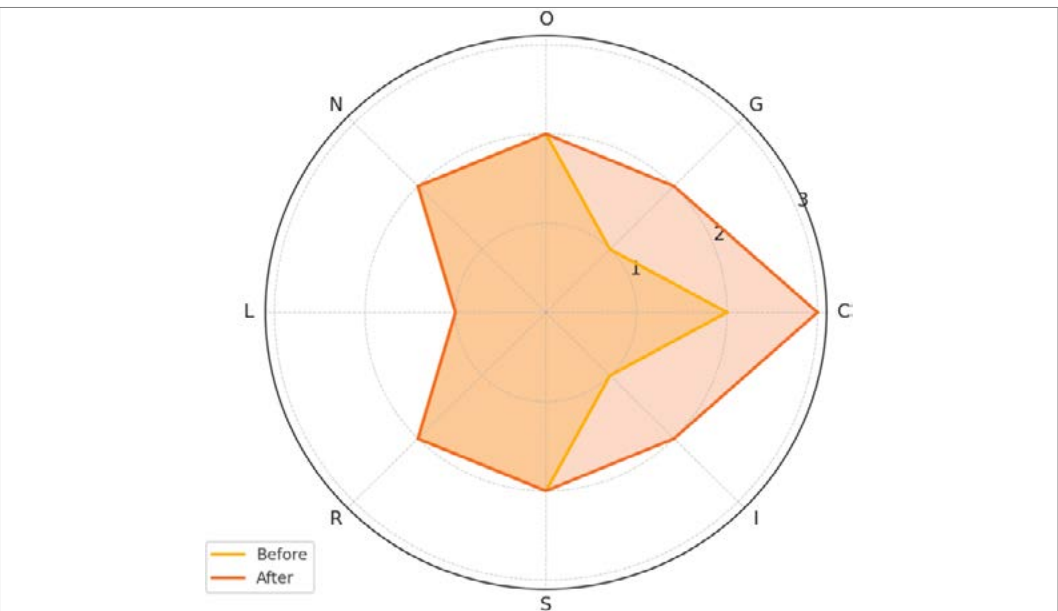
〈그림 4-4〉 종이팩 자원순환 부문: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사례1의 임팩트 확산 요소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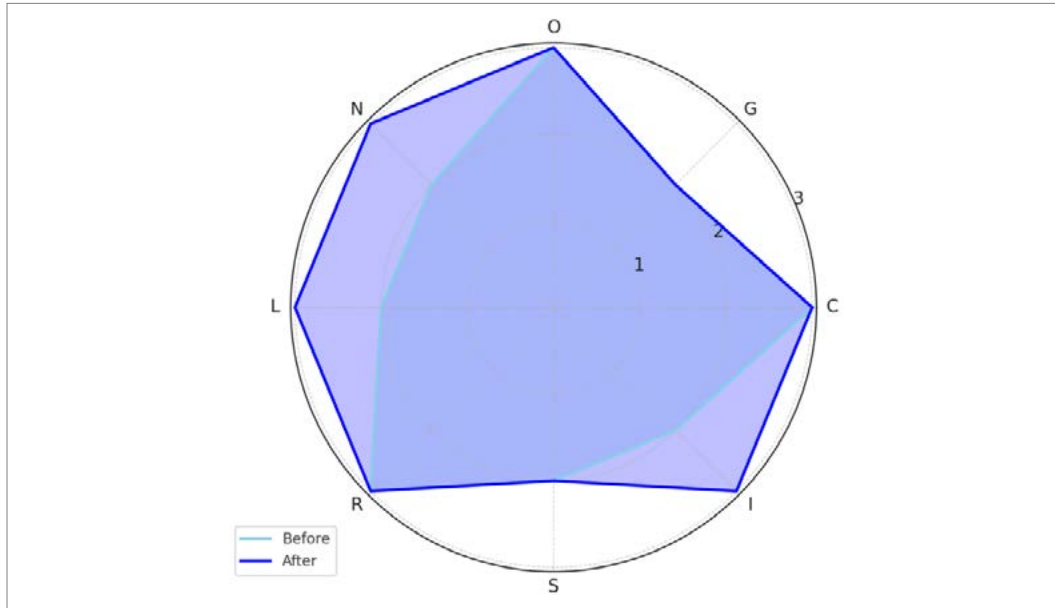
〈그림 4-5〉 참여에 따른 사례2의 임팩트 확산 요소의 변화



〈그림 4-6〉 참여에 따른 사례3의 임팩트 확산 요소의 변화



〈그림 4-7〉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사례4의 임팩트 확산 요소의 변화



〈그림 4-8〉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사례5의 임팩트 확산 요소의 변화



(8) 참여조직의 임팩트 확산 요소 변화 요약

-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참여조직의 임팩트 확산 요소의 변화를 시각화를 통해 요약하였으며, 프로그램 전반부(before)와 후반부(after)에 걸쳐 참여조직의 어떠한 임팩트 확산 요소가 보다 강화되었는지를 알 수 있었음(〈그림4-4〉, 〈그림4-5〉, 〈그림4-6〉, 〈그림4-7〉, 〈그림4-8〉).
- C: 시민 주도 캠페인(Citizen-led Campaigns), G: 정부/정책 지원 강도(Government/policy Support's Strength), O: 공동체 조직화 수준(Community Organization Level), N: 네트워크 확장성(Network Scalability), I: 제도적 실험장 존재(Presence of an Institutional Laboratory), R: 파급효과 정도(Degree of Ripple Effect), S: 사회적 규범 강도(Social Norms' Strength)
- 사례1의 경우, 모든 요소의 축에서 프로그램 임팩트 전반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공동체 조직화 수준, 파급효과 정도, 네트워크 확장성, 시민 주도 캠페인에서 뚜렷한 향상이 두드러짐. 이와 더불어 프로그램 후반부로 갈수록 보다 조직적이며 정부 지원 및 사회적 규범의 뒷받침과 함께 제도적 실험 가능성까지 함께 증진되었음을 알 수 있었음.
- 사례2의 경우, 변화의 폭이 두드러지는 요소는 정부/정책 지원 강도, 공동체 조직화 수준, 네트워크 확장성, 제도적 실험장 부문이었으며, 변화의 폭이 비교적 적은 항목으로는 파급효과와 정도였음. 프로그램의 참여 이후, 커뮤니티의 자율성과 제도적 실험 여건, 외부 연계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제도적 실험장과 조직화의 동시 향상은 제도 기반의 실험과 공동체 내부 실행 역량이 함께 강화되었음을 나타냄. 다만,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외부로의 확산 전략 또는 후속 확장 정책 설계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사례3의 경우, 시민 주도 캠페인, 제도적 실험장에서 향상되었으나 사회적 규범과 파급효과와 같은 일부 항목은 향상이 미미하거나 변화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음. 사례3만의 지역 내 성공 사례를 보편화하여 사회적 규범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자체적 노력이 요구되며, 이는 이후에 성과 확산을 위한 긍정적인 압력으로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다른 지역 또는 이해관계자들과의 점점 확대함으로써 성과 확산의 전략을 체계화할 수 있을 것임.
- 사례4의 경우, 프로그램 후반부로 갈수록 프로그램 전반부에서보다 임팩트 창출 요소들이 더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어, 임팩트 창출 역량이 전반적으로 크게 향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특히 향상의 폭이 크고 균형 있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프로그램과 같은 전략적 개입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음. 공동체 조직화 수준, 네트워크 확장성, 시민 주도성의 지표가 3점에 근접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변화가 나타났으며, 사회적 규범은 모든 요소에서 가장 낮은 변화의 양상을 기록, 농촌쓰레기 자원순환 행동의 지속성과 문화적 내면화 측면에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음. 이를 위해 지역 내 사례를 공유하거나 스토리텔링 기반의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는 등 사회적으로 보다 수용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사례5의 경우, 프로그램 후반부로 갈수록 임팩트 요소의 전반적인 향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공동체 조직화 수준, 네트워크 확장성, 시민 주도성, 제도적 실험장 부문에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

타남. 반면, 상대적으로 다른 지표에 비해 사회적 규범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지역 커뮤니티 내에서의 자발적인 참여가 아직 문화적 규범으로 정착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음. 또한 프로그램의 임팩트 확산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주민 대상으로 스토리텔링 중심의 참여를 유도하거나 변화의 파급효과를 하기 위해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 전략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제2절 시사점 도출 및 제언

- <2024 초록열매 성과확산 프로젝트>의 커뮤니티 혁신을 위한 공통 요소들은 다음 <그림4-9>와 같이, 생활 기반의 실천, 커뮤니티 조직화, (기존)관계의 회복, 지역 확산으로 꼽을 수 있었음. 이러한 내용들이 층분성의 조건으로서 결합되었을 때 집합적 수준의 임팩트인 커뮤니티 혁신이 도출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커뮤니티 혁신이라는 집합적 수준의 임팩트 창출을 위해 생활 기반의 실천, 커뮤니티 조직화, (기존)관계의 회복, 지역 확산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며, 이 중의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전체 혁신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
- 생활 기반의 실천: 지역 자원과 기술을 활용하여 일상생활에서 혁신을 실천하는 행동 또는 그 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프로젝트의 참여조직들은 지역주민들과의 삶과 밀접한 실천들을 바탕으로 종이팩 자원순환과 농촌쓰레기 자원순환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었음(<표4-15>).

<표 4-15> 프로그램 참여조직의 생활 기반의 실천 사례

카페 종이팩 분리배출 캠페인 “162개 카페가 참여를 하겠다고 해서 분리배출을 시작했죠.” → 일상생활 공간인 카페를 거점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자원순환 실천하였음. 농촌 마을에서의 공동 수거와 공동 공간의 운영 “공간을 만들어서 같이 관리를 하면서 시작하게 됐고요.” → 쓰레기 문제를 마을 생활 기반에서 인식하고, 주민 스스로 관리 공간을 조성하였음. 어르신들의 행동 변화 “이전 여기다 버리고 이전 저기다 버린다고 알려드리면 고맙다고 하세요.” → 주민 간 지식 공유를 통해 생활 습관이 바뀌고 있음.
--

- 커뮤니티 조직화: 프로그램 참여조직들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 기반의 공동체 형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자원순환이라는 공동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였음. 이는 <표4-16>과 같이 몇 가지 사례에서 자발적 참여를 넘어 구조화된 활동 주체와 커뮤니티가 구성되는 과정을 엿볼 수 있었음.

<표 4-16> 프로그램 참여조직의 커뮤니티 조직화의 실천 사례

서포터즈 조직화 “서포터즈 활동에서 종이팩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 자원봉사자들이 체계적 역할을 부여받아 활동하고 있었음. 지역 간 활동가를 유입 “기존에 하던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과 같이 하게 될 수 있었는데...” → 외부 활동가의 유입과 조직의 확장이 병행되었다고 볼 수 있음. 공동체 내부의 신뢰 회복 “골치 아픈 문제를 같이 해결하기 위한 동료 같은 느낌이 생기더라고요.” → 쓰레기 문제 해결 과정에서 관계성과 정체성이 공동체 내부에서 강화된 것으로 나타남
--

- 지역 확산: 지역 확산은 성공적인 커뮤니티 혁신 사례가 단일 지역에 그치지 않고, 인접 지역이나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의미하며, 참여조직들의 활동에서 이른바 ‘로컬에서 글로벌로’의 전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음(<표4-17>).

<표 4-17> 프로그램 참여조직의 지역 확산 실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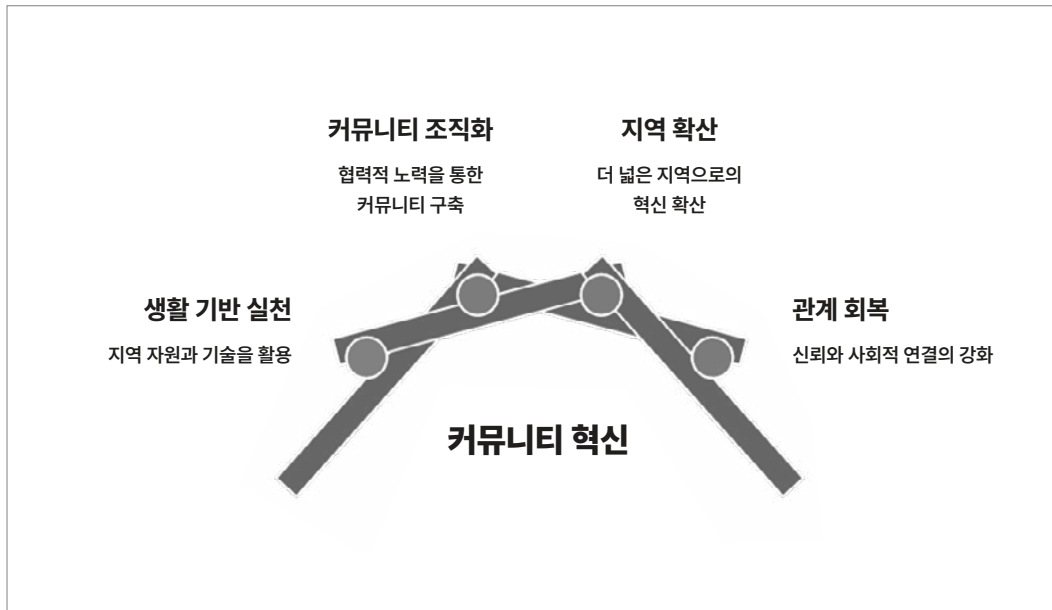
타 지역 활동가와의 연계 “전국적으로 환경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정보를 알게 되고 너무 좋죠.” → 전국 단위 네트워크 형성과 확산 가능성을 확보함. 제로웨이스트 샵 등 후속 모델이 구동되고 있었음. “기존에 하던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과 같이 하게 될 수 있었는데...” → 실천 캠페인이 지역 내 새로운 활동(예: 제로웨이스트 상점)으로 확산되고 있었음.

- 관계 회복: 프로그램 참여조직들의 자원순환 활동은 개인 간, 세대 간, 지역 간 단절된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공동체의 회복탄력성과 연대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지속가능한 혁신의 정서적·사회적 기반이라고 볼 수 있음(<표4-18>).

<표 4-18> 프로그램 참여조직의 관계 회복 실천 사례

행정과의 신뢰 재형성의 노력 “그쪽은 관심이 없어요’하는데, 계속 연락하는 거죠.” → 행정에 대한 다소의 불신의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었음. 공공영역에 대한 요구의 주체화 “이제는 시민들이 공공에 가서 해줘라, 저거 해줘라 자꾸 막 요구해요.” → 자원순환에서 주민의 위치가 수동적 대상에서 능동적 주체로 전환되고 있었음. 주민 간 신뢰의 회복 “그전에 닫혀 있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관계적 거리가 좁혀지고 있었음.
--

〈그림 4-9〉 초록열매 성과확산 프로젝트의 커뮤니티 혁신을 위한 공통 요소



- 이러한 맥락적 상황에서 종이팩 자원순환 부문과 농촌쓰레기 자원순환 부문을 나누어 몇 가지 시사점 및 제언 사항을 제시하고자 함.

1. 종이팩 자원순환 활동 부문

- 시민의 실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책의 설계
 - 종이팩 분리배출을 명확히 규정하는 조례 제정 및 행정 지침 마련이 필요하며 수거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함(예: 종이팩 전용 수거함, 간소화된 배출 방식 도입). 또한 실천 유도형 인센티브 제도 도입의 검토가 필요할 것(예: 포인트, 교환 물품 등)
- 교육과 홍보의 체계화 필요
 - 학교 교육과정에 자원순환 교육을 포함하거나(예: 실천 중심의 체험형 교육), 시민 대상으로 잘못된 분리배출 사례에 대한 피드백과 관련 보안 교육 시스템의 제고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민간-공공-기업 간 협력 구조 강화의 필요
 - 시민사회단체, 시니어클럽, 자활센터 등과의 협력 모델의 제도화를 검토할 수 있으며, 지자체의 경우 종이팩 자원순환에 대한 실무적 교육 및 인식 개선의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자원순환을 통한 다양한 사회적 가치 확산의 검토
 - 자원순환을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닌 사회적 돌봄, 공동체 회복, 시민성 교육의 장으로 확장할 수 있으며, 이번 사업에서 도출된 다양한 실천 사례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공유하여 시민 공감대의 형성을 유도할 수 있음. 또한 지역 내 자원순환 거점(커뮤니티 센터, 순환마을 등)의 전략적 조성을 통해 보다 다양한 양상의 사회적 가치의 창출을 예상할 수 있을 것임.
- 시민 주도 캠페인이 단순한 분리배출 실천을 넘어 정책 제안 및 제도 설계의 주체로 성장하고 있음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시민의 역할 확장이 환경 문제 해결의 지속적인 핵심 동력이 될 수 있으므로, 시민이 단순 실천가를 넘어 '제도의 설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정부 및 정책 지원이 지자체 실무 차원에 머무르거나 일부 부서의 제한적 협력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행정의 평가 항목에 재활용 실적을 반영하는 등 제도화를 통한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 시민, 지자체, 기업, 환경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각자의 문제를 솔직하게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협력적 네트워크가 관찰되었으며, 이는 복잡한 자원순환 문제 해결의 필수적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2. 농촌쓰레기 자원순환 활동 부문

- (1) 농촌 커뮤니티 혁신에서 발생하는 갈등: 이해관계자 간 인식의 차이 관련
- 사회혁신의 경우 지속요인의 강화뿐만 아니라, 저해요인의 완화 역시 뒷받침되었을 때 시스템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음. 본 연구의 결과 농촌 커뮤니티 혁신에서 발생에서 포착되는 저해요인은 주로 이해관계자 간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구체적으로 행정 관계자는 현장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음을 인정하는 사례도 있었으므로,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모든 이해관계자가 공감하는 공동의 문제 정의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특히 시(市) 행정 관계가 참여하는 공청회, 포럼, 간담회 등의 자리가 더욱 활발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 자리에서 농민, 주민, 지자체, 시민단체 등 현장의 다양한 주체들이 직접 참여하여 실질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그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는 과정 자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변화의 혁신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고민할 필요가 있음.

(2) 농촌쓰레기 자원순환의 제도적 사각지대의 적절한 대응 필요

- 농촌쓰레기 문제는 제도적으로 관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품목과 지역에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일부 책임 회피와 지역 간 처리 방식의 불균형 역시 나타나 농촌쓰레기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관찰되었음.
- 농촌 지역의 지리적, 인구학적,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이른바 '맞춤형' 폐기물 관리 인프라와 회수 체계 구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단순히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넘어, 접근성, 관리 용이성, 주민 참여 유도 방안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효율적 체계의 공통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3) 농촌쓰레기 자원순환을 위한 공공조직에서의 정책 주체성 확립

- 농촌쓰레기 자원순환과 관련, 행정이 아직 지원하는 제도적 주체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그 역할과 관련 대안을 명확히 재정할 필요가 있음. 이는 행정 조직 내 자원순환의 주체적 참여와 이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농촌쓰레기 자원순환 관련 정책 이행력의 저하로 이어지는 핵심 원인으로 꼽히고 있음.
- 이러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 자율 활동을 지원하는 행정적 틀을 제도화하고, 그 실행을 위한 행정 담당의 책임이 명시될 필요가 있음(행정 담당의 책임이 불분명하거나 인식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공무원 대상의 인식 개선의 교육 확대가 필요하며 특히 농촌쓰레기 자원순환에 대한 주민 실천의 가치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주민-행정 간의 상시적 소통을 위한 플랫폼이 보다 다양화될 필요가 있으며, 관련 포럼이나 공청회 등 다층적 참여 기제가 설계될 필요가 있을 것임.

(4) 사업참여단 구성원 대상의 갈등 조정 및 관리 교육의 필요

〈표 4-19〉 사업참여단 구성원 대상의 갈등 조정 및 관리 교육의 필요성 제언

구분	제언
자발성 현실화	생활 속 필요에서 비롯된 초기의 문제 인식을 스스로 무언가 해보자는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동기 강화 교육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전략적 결합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연습 필요	외부의 공공 자원을 단순히 수용·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속성, 확산, 인건비 활용 등)에 맞춰 결합해 나갈 수 있는 자원 조직화의 연습이 필요함.
조율자/매개자 역량 강화	지역 내 갈등(귀촌자 vs 원주민, 이장단 vs 외부활동가 등)은 문제 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를 조율하고 중재할 수 있는 역량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사업수행단은 공동체 내부에서 보다 효능감 있는 역할로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정책 창출로의 전환	사업수행단이 공공 자원 결합 시 아이디어 및 마을 실험 등의 결과를 단순 제안이 아니라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행을 요청함

주) 참여자 개개인 모두 조율자와 매개자로서의 역량(soft skill)을 갖추고 있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의 갈등 관리 교육이 지원된다면 보다 큰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사회적 임팩트의 확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사업참여단의 경우 다양한 이슈에 매 순간 직면함으로써 특히 갈등 관리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향후 더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문제 해결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이들의 대상으로 한 갈등 관리 역량에 초점을 맞춤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접근은 갈등을 단순한 문제로 여기기보다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고 더 나은 해결책을 모색하는 건설적인 과정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인지적 유연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함.
- 또한 이를 통해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중심으로 합의를 도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기술을 익힘으로써, 사회혁신의 단순한 참여자가 아닌 제도적 설계자로서 거듭나는 기회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임.

3.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자원순환 활동 관련

- 시민 참여자의 참여 동기는 개인적 문제의식과 사회적 연계의 교차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교육 프로그램의 개인적 참여, 대외활동, 가족의 생활경험, 지역사회 네트워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원순환의 참여가 유도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 과정에서 단순한 환경운동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 보호, 공동체 회복과도 연결된 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천적 동기가 강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종이팩 자원순환은 환경적 가치와 사회적 실천이 결합된 영역으로서 시민에게 어필(appeal)되고 있었음.
- 시민 참여자들은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 지속 가능한 사회, 미래 세대 책임, 윤리적 소비 등의 개념을

직·간접적으로 제시하며 이를 아우르는 통합적 가치로 종이팩 자원순환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종이팩 자원순환 실천을 통해 자존감, 시민의식, 공동체 소속감이 강화되는 긍정적 효과도 체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종이팩 자원순환 실천의 장애 요소로 아직은 낮은 시민 인식과 제도적 미비인 것으로 나타났음.
 - 구체적으로 시민들의 무관심, 분리배출 피로감, 복잡한 처리 과정 등으로 실천이 저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수거 시스템의 부재, 행정과 조례 간의 괴리, 경제성 부족 등 구조적 한계도 반복적으로 지적되었음.
 - 특히 전문가의 '공공도, 기업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인식은 자원순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음.

- 농촌쓰레기 자원순환 문제는 복잡한 이해관계와 현장-통계 간 인식의 괴리가 맞물려 있어, 다양한 주체의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농촌쓰레기 자원순환의 경우 현장에서는 관리 부실과 무단 투기 등의 문제가 심각하였으나, 인터뷰에서 이해관계자 간 문제 인식의 동의 수준이 달랐다고 할 수 있음.
 - 이는 문제 해결의 출발점인 문제 인식부터 이견이 발생하여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공통의 문제 인식을 형성하는 다자간 소통 채널과 포럼을 정기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농촌쓰레기 자원순환 문제는 복잡한 이해관계와 현장-통계 간 인식의 괴리가 맞물려 있어, 다양한 주체의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농촌쓰레기 자원순환의 경우 현장에서는 관리 부실과 무단 투기 등의 문제가 심각하였으나, 인터뷰에서 이해관계자 간 문제 인식의 동의 수준이 달랐다고 할 수 있음.

4. 기타: 외부 변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대안 필요

- 참고로 본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회적 충격(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연구의 진행과 프로젝트의 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에 다양한 영향(예: 시민의 자유 및 활동의 자유 위축, 자원순환이라는 공적 담론의 경직화, 시민사회의 심리적 위축 및 불안 심화 등)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소통 방식에 있어서 물리적 제약 속에서도 소통과 정보 공유를 지속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강화하는 대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후에도 급격한 환경적 변화나 비상 상황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사업 지속성 계획에 대한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보다 대의적인 사회적 가치(예: 민주주의의 회복 등)를 실천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가 주어진 활동가의 경우, 심적인 부담과 주의 분산 등으로 종전과 같이 과제에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음. 이에 대비해 사업 참여자 및 활동가들을 위한 회복탄력성 기반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임.
- 결론적으로 사업 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조정 메커니즘을 마련하여 단순히 비상 상황에 대한 사후 대응을 넘어,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커뮤니티 혁신 활동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능동적인 정책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중요하다 할 것임.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탐색

1. 연구방법론의 측면

- 본 연구에 쓰인 연구방법론인 QCA와 사회과학 연구에서 인과 복잡성(causal complexity)을 탐색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인정받고 있으나, 몇 가지 연구의 한계가 제기될 수 있음.
 - 먼저 사례 수 제한으로 인해 일반화의 한계가 제기될 수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사례의 수를 확대하거나 지역 유형별로 구분하여 계층적 QCA, 혼합 방법론(mixed methods)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음.
 - 향후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명확히 정량화하는 작업에서는 참여자 행동 변화나 지역별 재활용률 변화 등 객관적 수치 기반의 종단적 분석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참고로 본 연구를 통해 다음의 실험연구 모델이 도출되어 추가적인 연구(예: <그림4-10>)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임.

<그림 4-10> 공익적 메시지 프레임에 따른 종이팩 재활용 의도에 관한 실험연구 모델



○ 향후에는 실험적 연구 설계를 통해 시민참여의 학습 전이 효과(transfer of learning)를 평가하거나, 공공 메시지 프레이밍에 따른 행동 변화를 검증하는 실험 연구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학습 차원의 메커니즘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2. 정책 포럼 등 학습 기반의 온라인 네트워크 강화

○ 정책 포럼은 단순한 발표의 장이 아니라, 이해관계자 간 신뢰를 구축하고 공동의 문제 인식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온라인 기반의 포럼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지식 공유를 위한 기회를 더욱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참고문헌

- 김용학, 임현진(2000). 비교사회학: 쟁점, 방법 및 실제. 나남출판.
- 문진영, 박영석, 나승권, 이성희, 김은미(2021).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확산과 한국의 과제. [KIEP] 연구보고서, 1-231.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www.seoul.go.kr
- 순환자원정보센터 홈페이지, www.re.or.kr
- 숲과나눔(2023). 초록열매 성과확산 임팩트 평가보고서 Vol.1
- 신상철, 신정우, 주문술, 권민지(2018).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 수거·처리 체계 개선 방안 마련 연구. 수시 연구보고서, 2018, 1-82.
- 유재호, 김하나(2022). 토픽모델링 분석을 활용한 국내 자원순환 연구동향 분석.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지, 39(2), 166-173.
- 윤달환(2020). AI 를 활용한 생활 폐기물 순환자원 관리체계. 안전문화연구, (10), 1-20.
- 윤혜진(2020).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스마트패키지디자인의 지속가능성 분석과 활용. 브랜드디자인학연구, 18(3), 33-50.
- 이소라(2021).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자원순환 정책분석 연구. 도시연구, (20), 11-38.
- 이승환(2023). 우리나라 자원순환 정책수단 유형의 특징 및 변화: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2011-2015)” 과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2018-2027)” 비교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37(2), 25-47.
- 조수향, 남태우(2025). 자원순환정책의 수용성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제주도와 세종시의 일회용품보종금 제도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35(1), 85-119.
- Ansell, C., & Gash, A. (2008). Collaborative governance in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8(4), 543-571.
- Ellen MacArthur Foundation, www.ellenmacarthurfoundation.org
- Iofrida, N., Spada, E., Gulisano, G., De Luca, A. I., & Falcone, G. (2024). The social impacts

of circular economy: disclosing epistemological stances and methodological practices. Environment, Development and Sustainability, 1–34.

Moulaert, F., Martinelli, F., Swyngedouw, E., & Gonzalez, S. (2009). Can neighbourhoods save the city?. Abingdon and New York, NY: Routledge.

Padilla-Rivera, A., Russo-Garrido, S., & Merveille, N. (2020). Addressing the social aspects of a circular economy: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Sustainability, 12(19), 7912.

Parmar, B. L., Freeman, R. E., Harrison, J. S., Wicks, A. C., Purnell, L., & De Colle, S. (2010). Stakeholder theory: The state of the art. The academy of management annals, 4(1), 403–445.

Reina-Rozo, J. D. (2019). Communal innovation: collective creation towards wellbeing. Available at SSRN 3639564.

Saeedian, M., Tu, C., Menegazzo, F., D’Odorico, P., Azaele, S., & Suweis, S. (2024). Modelling co-evolution of resource feedback and social network dynamics in human–environmental systems. New Journal of Physics, 26(8), 083004.

Seyfang, G., & Smith, A. (2007). Grassroots innovation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owards a new research and policy agenda. Environmental politics, 16(4), 584–603.

The Circulate Initiative, www.thecirculateinitiative.org

The World Economic Forum, www.weforum.org

Tu, C., Chen, R., Pan, X., Fan, Y., & Guo, J. (2024). Impact of resource availability and conformity effect on sustainability of common-pool resources. Fundamental Research.

Yin, R. K. (2009).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Vol. 5). sage.

부록1 1차 면접조사 질문지 지원조직 대상 질문지

구분	질문
문제 인식	<2024 초록열매 성과확산 프로젝트>의 두 가지 주제 ‘종이팩’과 ‘농촌쓰레기’를 소재로 프로그램을 참여·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회문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업을 전제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모색을 해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이 두 가지 사안의 경우, ①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서 어떤 점에서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그리고 ② 문제 정의나 문제 해결의 난이도/복잡성/특이성/시급성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임팩트 정의	지원조직으로서 기대하는 소기의 성과는 어떠한가요? 그러한 성과가 사회적으로 파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치들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참여조직의 특성	프로그램 초반부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참여하였던 조직들의 활동이나 문제 해결 사례 중에서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은 것들이 있으세요? 주제별(‘종이팩 자원순환’, ‘농촌 쓰레기’)로 수렴되는 조직의 의사결정 성향이나 특성도 있을까요?
프로그램 지원 노력1	지원조직으로서 목표한 바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주력하고자 하는 부분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프로그램 지원 노력2	지원조직으로서 참여자들이 보다 나은 문제 해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떠한 측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프로그램 도전 과제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프로그램 참여 초반에, 특히 어려워 하였거나 도움을 필요로 했던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었나요?
프로그램의 장벽과 해소의 노력	현 시점에서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 가장 큰 도전 과제는 무엇이었고 대처나 해결 전략은 무엇이었나요? 이는 크게 두 가지 입장에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① 참여조직들의 문제 해결을 돕는 지원조직으로서의 입장에서, ② 참여조직들이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갖는 그들 입장에서.
자유 의견	지금까지 이야기 해주신 것들 중에서 덧붙이고 싶은 의견이나, 이야기 나누지 않은 중요한 사항이 더 있을까요?

부록2 1차 면접조사 질문지

종이팩 컬렉티브 참여기관 대상 질문지

구분	질문
문제 인식	<2024 초록열매 성과확산 프로젝트>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종이팩 자원순환이라는 사회 문제는 지금까지 참여하시거나 관심을 가지셨던 다른 주제의 사회문제 해결과는 어떠한 점에서 같거나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임팩트 정의	참여조직으로서 기대하는 소기의 성과는 어떠신가요? 그러한 성과가 사회적으로 파생될 것으로 예상 되는 가치들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재)참여 동기	지금까지 참여하시거나 관심을 가졌던 사회문제 지원(해결)프로그램과 달리, 본 프로그램의 경우 특별히 (재)참여를 하시게 된 배경이나 동기는 어떻게 되시나요?
프로그램 참여 노력	본 프로그램을 통해 목표한 바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원조직과의 상호작용	참여조직으로서 보다 나은 문제해결/선택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조직으로부터 특별히 필요로 했던(하는) 도움들이 있었나요? 그것은 무엇인가요?
프로그램 도전 과제	현 시점에서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 가장 큰 도전 과제는 무엇이었고 대처나 해결 전략은 무엇인가요?
자유 의견	지금까지 이야기 해주신 것들 중에서 덧붙이고 싶은 의견이나, 이야기나누지 않은 중요한 사항이 더 있을까요?

부록3 1차 면접조사 질문지

농촌쓰레기 컬렉티브 참여기관 대상 질문지

구분	질문
문제 인식	<2024 초록열매 성과확산 프로젝트>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농촌쓰레기를 주제로 한 사회문제는 지금까지 참여하시거나 관심을 가지셨던 다른 주제의 사회문제 해결과는 어떠한 점에서 같거나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임팩트 정의	참여조직으로서 기대하는 소기의 성과는 어떠신가요? 그러한 성과가 사회적으로 파생될 것으로 예상 되는 가치들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재)참여 동기	지금까지 참여하시거나 관심을 가졌던 사회문제 지원(해결)프로그램과 달리, 본 프로그램의 경우 특별히 (재)참여를 하시게 된 배경이나 동기는 어떻게 되시나요?
프로그램 참여 노력	본 프로그램을 통해 목표한 바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원조직과의 상호작용	참여조직으로서 보다 나은 문제해결/선택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조직으로부터 특별히 필요로 했던(하는) 도움들이 있었나요? 그것은 무엇인가요?
프로그램 도전 과제	현 시점에서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 가장 큰 도전 과제는 무엇이었고 대처나 해결 전략은 무엇인가요?
자유 의견	지금까지 이야기 해주신 것들 중에서 덧붙이고 싶은 의견이나, 이야기나누지 않은 중요한 사항이 더 있을까요?

부록4 2차 면접조사 질문지 지원조직 대상 질문지

구분	질문
참여의 의미	<2024 초록열매 성과확산 프로젝트>의 두 가지 주제 '종이팩'과 '농촌쓰레기'를 소재로 프로그램을 참여·진행해 오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회문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업을 전제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모색을 해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두 사회문제의 참여는 어떤 점에서 의미가 있나요?
임팩트 정의	지원조직으로서 소기의 성과는 어떠셨나요? 그러한 성과가 사회적으로 파생된 가치들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참여조직의 특성	참여하였던 조직들의 활동이나 문제 해결 사례 중심에서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은 것들이 있으세요? 주제별('종이팩 자원순환', '농촌 쓰레기')로 수렴되는 조직의 성향이나 특성도 있을까요?
프로그램 지원 노력	지원조직으로서 목표한 바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회고해 본다면 그 목표들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참여조직의 기여	지원조직으로서 참여조직들에 받은 도움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고 이유는 무엇인가요?
프로그램 발전을 위한 조언	본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다른 지원조직들(또는 관심있는 비영리 활동가)에 줄 수 있는 조언들이 있을까요? 그들이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프로그램 이해관계자와의 상호작용	종이팩 자원순환과 농촌쓰레기 자원순환이라는 사회적 실천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이해관계자를 만나셨을 텐데요. 참여조직 이외에 가장 도움을 받았던 분(조직)이 있으셨나요?
자유 의견	지금까지 이야기 해주신 것들 중에서 덧붙이고 싶은 의견이나, 이야기 나누지 않은 중요한 사항이 더 있을까요?

부록5 2차 면접조사 질문지 종이팩 컬렉티브 참여기관 대상 질문지

구분	질문
참여의 의미	<2024 초록열매 성과확산 프로젝트>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본인에게 '종이팩 자원순환'이라는 사회문제의 참여는 어떤 점에서 의미가 있었나요?
임팩트 정의	참여조직으로서 소기의 성과는 어떠셨나요? 그러한 성과가 사회적으로 파생된 가치들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프로그램의 특성	지금까지 참여하시거나 관심을 가지셨던 다른 종류의 사회문제 지원(해결) 프로그램과 달리, '종이팩 컬렉티브' 프로그램은 어떤 점에서 비슷하였고 달랐는지요?
프로그램 참여 노력	본 프로그램을 통해 목표한 바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가장 주력하신 부분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지원조직과의 상호작용	본 프로그램의 참여조직으로서 보다 나은 문제 해결/선택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조직으로부터 특별히 필요로 했던 도움들이 있으셨나요? 그것은 어떤 내용들인가요?
프로그램의 선제적 준비사항	본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다른 조직들에 줄 수 있는 조언들이 있을까요?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프로그램 이해관계자와의 상호작용	종이팩 자원순환이라는 사회적 실천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이해관계자를 만나셨을 텐데요. 가장 도움을 받았던 분(조직)이 있으셨나요? 있다면 또는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유 의견	지금까지 이야기 해주신 것들 중에서 덧붙이고 싶은 의견이나, 이야기 나누지 않은 중요한 사항이 더 있을까요?

부록6 2차 면접조사 질문지

농촌쓰레기 컬렉티브 참여기관 대상 질문지

구분	질문
참여의 의미	<2024 초록열매 성과확산 프로젝트>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본인에게 ‘농촌쓰레기’라는 주제의 사회문제의 참여는 어떤 점에서 의미가 있었나요?
임팩트 정의	참여조직으로서 소기의 성과는 어떠셨나요? 그러한 성과가 사회적으로 파생된 가치들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프로그램의 특성	지금까지 참여하시거나 관심을 가지셨던 다른 종류의 사회문제 지원(해결) 프로그램과 달리, 본 프로그램은 어떤 점에서 비슷하였고 달랐는지요?
프로그램 참여 노력	본 프로그램을 통해 목표한 바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가장 주력하신 부분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지원조직과의 상호작용	본 프로그램의 참여조직으로서 보다 나은 문제 해결/선택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조직으로부터 특별히 필요로 했던 도움들이 있으셨나요? 그것은 어떤 내용들인가요?
프로그램의 선제적 준비사항	본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다른 조직들에 줄 수 있는 조언들이 있을까요?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프로그램 이해관계자와의 상호작용	농촌쓰레기 문제 해결이라는 사회적 실천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이해관계자를 만나셨을 텐데요. 가장 도움을 받았던 분(조직)이 있으셨나요? 있다면 또는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유 의견	지금까지 이야기 해주신 것들 중에서 덧붙이고 싶은 의견이나, 이야기 나누지 않은 중요한 사항이 더 있을까요?

에필로그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남원시 산내면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위 사진은 2025년 4월 23일
남원시 산내면 웨이스트 제로(waste-zero) 지향의
마을공동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민주주의는 대화의 조건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숲과나눔의 <초록열매 성과확산 프로젝트>는
시민들의 대화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한때 민주주의의 위기로 대화의 과정이 멈춰질 뻔한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민주주의의 대화의 조건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숲과나눔,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지구를지키는소소한행동, 소비자기후행동,
경기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삼삼은구, 비너루없는점빵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연구였습니다.

초록열매 성과확산 임팩트 평가보고서 Vol.2

〈종이팩 컬렉티브〉, 〈농촌쓰레기 컬렉티브〉를 중심으로

발행인 재단법인 숲과나눔

발행일 2025년 6월

연구기관 이노소셜랩

집필 주미옥 책임연구원

문의 koreashe@koreashe.org

초록열매 성과확산 임팩트 평가보고서 Vol.2

기획 재단법인 숲과나눔
집필 이노소셜랩 주미옥
발행일 2025년 6월
문의 koreashe@koreashe.org